

김성철 교수(동국대 경주캠퍼스)
"욕망 가득찬 고기 몸
벗어나는 것이 열반"
8면

창간 20년
2014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윤9월 21일) · 주간

제1018호 2014년 11월 13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아함경〉
진실로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은
모든 공포를 초월한다.
집착을 버리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다.

서울 도심 템플스테이서 '행복여행'을

서울시 · 문화사업단, 12월 1~7일 '템플스테이 WEEK'

서울 도심 사찰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하며 돌아오는 2015년을 준비하는 템플스테이가 마련된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와 서울시(시장 박원순)은 오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간 '2014 서울 템플스테이 WEEK'를 개최한다.

서울 시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9곳에서 진행되는 이번 주간은 서울시민과 서울을 방문한 내 ·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다양한 전통문화와 사찰음식,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체험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템플스테이 WEEK'는 서울시의 슬로건인 '함께 서울'에 발맞춰 템플스테이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한국 전통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월에도 '전통사찰 WEEK'를 열고 시내 53개 전통사찰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 같은 주간 행사는 불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데 있어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초겨울의 문턱에서 열린 '템플스테이 WEEK'는 당일형과 1박2일형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주간 동안에는 목동 국제선센터의 '숨 쉼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우면산 관문사의 '참된 나를 만나는 소중한 경험' △금선사의 '산사에서 길을 묻다' △길상사의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묘각사의 '내 마음 내려놓기' △조계사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진관사 '마음을 다스리는 템플스테이' △봉은사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화계사 '지금 여기 깨어 있다는 것' 등의 주제의 템플스테이가 진행된다.

특히 진관사는 12월 1~2일 템플스테이 참가자에 한해 '사찰음식으로 만나는 템플스테이'를 열고 사찰음식의 정신과 맛을 참가자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템플스테이 WEEK' 참가자에 한해 행복한 내년을 위한 기원을 담아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타임레터(Time Letter)' 이벤트도 진행된다. 미래의 나에게 엽서를 쓰고 한 달부터 최대 1년 이내까지 요청한 날짜에 받아볼 수 있으며, 참가자들에게는 엽서와 함께 기념품이 제공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17일(월)부터 12월 4일(목)까지이며,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www.templestay.com)를 통해 예약 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기간은 당일 혹은 1박 2일 중 선택 가능하다.

〈표〉 2014 서울 템플스테이 위크 참여 사찰 (가나다 순)

사찰명	프로그램	프로그램 유형	운영대상	외국어
관문사	참된 나를 만나는 소중한 경험	당일템플	개인/단체	가능
		1박 2일 체험형		
국제선센터	숨 쉼 템플스테이	당일템플	개인/단체	
		1박 2일 체험형		
금선사	산사에서 길을 묻다	당일템플	개인/단체	
		1박 2일 체험형		
길상사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당일템플	개인/단체	
		1박 2일 체험형		
묘각사	내 마음 내려놓기	당일템플	개인/단체	
		1박 2일 체험형		
조계사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당일템플	단체	
		1박 2일 체험형	단체	
진관사	마음을 다스리는 템플스테이	당일템플	개인	
		1박 2일 체험형	개인	
봉은사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당일템플	개인/단체	
		1박 2일 체험형		
화계사	지금 여기 깨어있다는 것	당일템플	개인/단체	
		1박 2일 체험형		

조계사 등 9곳 무료 진행
12월 4일까지 선착 접수
타임레터 등 이벤트 풍성
직장인 · 고3 대상 행사도

'전통사찰 WEEK' 이어
불교문화콘텐츠 활용

본격적인 '템플스테이 WEEK'에 앞서 오는 11월 22일(토), 서울시민청에서는 사전 홍보 부스를 열어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체험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2월 3일부터 6일까지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종로구 우정국로 56)에서 아름다운 한국 불교문화를 알리고 '템플스테이 WEEK' 참여를 독려하는 소통과 힐링의 장 '마음으로 통해요(스님과의 톡! 토크! Talk!)'를 연다. 일상에 지친 직장인, 새 출발을 준비하는 수험생, 특별한 나들이를 원하는 가족 등 다양한 대상층을 위한 스님과의 오감 명상, 차담 등의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음으로 통해요'는 서울 시민청 부스 현장에서 접수 가능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아름다운 서울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해 서울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높이고자 한다"고 본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南北불교, 日약탈 문화재 반환 나서

문화재제자리찾기 조정 신청에… 조불련 성명 발표

日법원, '자격 없음' 기각
"국제사회 문제 제기할 것"

일제시대 수탈된 문화재인 오구라 컬렉션을 돌려달라는 남북 불교계가 요구했지만 일본 측이 이를 거부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공동대표 혜문)는 11월 5일 도쿄 간이재판소에서 진행된 조정 신청에서 '조정 불성립' 판단이 내려졌다고 전하며 일본의 해명거부에 대해 국제박물관협회 등 국제사회에 문제제기 및 제소할 것을 밝혔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8월, 도쿄국립박물관 내 '오구라 컬렉션' 문화재 가운데 조선왕실유물, 경주금관총 유물, 창녕출토유물, 부산 연산동 가야 고분 출토 유물 등 일제 강점기에 도굴된 것이 유력해 보이는 34점에 대한 '소장 중단'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도쿄 간이재판소에 낸 바 있다.

도쿄 간이재판소는 시민단체인 문화재제자리찾기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 같은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본의 약탈문화재 반환에는 이례적으로 북한 불교계도 동참했다. 북한은 조선불교도연맹 성명을 통해 "약탈 문화재 반환 요구는 우리 민족의 권리이고 국제법적 의무"라며,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한 '고종황제 투구' 등 약탈문화재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남과 북의 불교계는 단합된 힘으로 일제가 약탈해간 모든 문화재를 찾기 위한 공동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혜문 스님은 "국제박물관협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교계,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

4일 '기후변화대응 아시아 시민사회 컨퍼런스' 발족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와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가 결성됐다.

'기후변화대응 아시아 시민사회 컨퍼런스 한국조직위원회'는 10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한국조직위원회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로터스월드,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를 비롯해 원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푸른아시아, 피스빌리지네트워크 등 종교 · 일반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 스님 등 불교계 인사들을 비롯해 박경조 前대한성공회 주교, 인명진 목사,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불교계를 대표해 참석한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은 "오늘날 직면한 기후변화의 위기는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것"이라며 "자연과 생명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에 종교인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조 녹색연합 상임대표는 "기후변화의 근원이 기독교의 인간중심주의에 있다는 글을 접하고, 성직자로서 환경운동에 나서게 됐다"며 "불교의 생명관과 가치관 등 종교 안에 있는 환경에 대한 가르침을 살려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서명과 함께 콘퍼런스 원만 개최에 대한 뜻을 모았다. 한국조직위원회는 2015년 4월 27일부터 6박 7일 간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20개국 200여 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대응 아시아 시민사회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노덕현 기자

땅끝 미황사 괘불 서울에 나투신 뜻 대형 괘불이 전시장 4개 층의 벽을 꽉 채웠다. 해남 미황사 괘불(보물 1342호) 모사도가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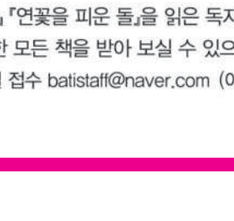
높이 1170㎝, 폭 486㎝의 초대형 괘불을 1대 1 크기로 재현한 작품은 도심에서 미황사 괘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전시를 주최한 미황사(주지 금강)는 전시기간 동안 매일 예불을 올리고, 문화 공연도 갖는 등 대중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미황사 괘불 외에도 천불도 25점, 포벽나한도 13점, 단청문양도 114점 등 153여점의 작품도 함께 선보여 조선 후기 단청과 벽화들의 아름다움을 전했다.

11월 11일 이운식을 갖고 미황사로 돌아간 괘불은 앞으로 꾸준히 대중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모사도로 법회를 여는 것은 물론 찾아가는 전시를 통해 대중들에게 미황사 괘불의 아름다움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교역직 스님과 개그맨 전유성 씨, 외국인 등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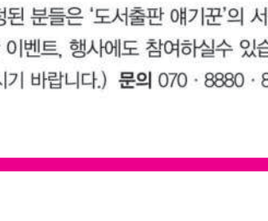
글=정혜숙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1018호 INDEX

시방세계 5
홍법사 '美 포교 현황과 과제' 토크콘서트



화엄만다라 16 · 17
금강경독송회



국어교사인 강기혜와 다솔스님, 신문사 기자인 자운이와 혜강스님,
이들이 펼치는 사랑은 투명한 수채화 같다. 사랑이 이토록 아름답고 애절할 수 있다니!

너무도 그리웠던 그 소설!

남지심의
『솔바람 물결소리』『연꽃을 피운 돌』출간

소중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 가장 행복한 선물!

출간 기념 '서평' 이벤트

『솔바람 물결소리』『연꽃을 피운 돌』을 읽은 독자님들의 서평을 기다립니다. 선정된 분들은 '도서출판 얘기꾼'의 서평단이 되어 얘기꾼에서 출간한 모든 책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얘기꾼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에도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 이메일 접수 batistaff@naver.com (이름, 연락처, 주소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70 · 8880 · 8202



연꽃을 피운 돌 남지심 지음 | 값 13,500원 | 양장본
솔바람 물결소리 남지심 지음 | 값 13,500원 | 양장본
도서출판 얘기꾼

전국 비구니회 갈등 '심각'

열린비구니 3일 기자회견… 원로 명의도용 의혹 제기

조계종 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촉발된 전국비구니회의 갈등이 이제는 원로 스님들의 성명서에 대한 명의 도용으로까지 번졌다. 갈등의 장기화로 치닫고 있다.

열린비구니모임(가칭)은 11월 3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관 보현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집행부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전국비구니회의 임시총회 소집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10월 30일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 원로위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성명을 발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열린비구니모임은 "원로 묘관 스님께서는 '나는 거절한다고 했는데 이름을 올렸으니 내 이름으로 반박 성명서를 내어도 좋다' 고 하셨다. 또 다른 스님들도 '내 이름 올리지 마세요' '나는 찬성 안합니다' '나는 거절합니다' '운영위원장 계환 스님을 사퇴시키는 조건으로 이름을 올려도 좋다' 라고 했다"며 "한 순간 우리의 심경을 착잡하게 했던 원로 스님들의 심려의 글은 원로스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비구니회장과 운영위원장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금할 수 없다. 원로스님의 이름을 도용해 원로스님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은 바로 전국 비구니들의 명예까지 훼손시킨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열린비구니모임은 "이번 일로 더 이상 명우 스님과 계환 스님은 전국비구니회장과 운영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함을 한번 더 확인시켜줬다"면서 △전국비구니회는 속히 임시총회 소집을 개최할 것 △ 계환 스님은 종회의원직과 운영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하고, 현 회장인 명우 스님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제16대 비구니 종회의원은 무효라는 것 △비구니 원로 스님들의 명의를 도용한 전국비구니회 제10대 집행부는 이에 대한 진상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열린비구니 모임은 11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구니 원로스님들의 명의도용 의혹을 제기하고 임시총회소집을 촉구했다.

6일 집행부 · 열린 측 만남
입장 차 못 좁히고 결렬

대화의 노력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다. 전국비구니회는 11월 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열린비구니모임이 주장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자리에는 전국비구니회 정상화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비구니회가 대화를 시도했으나 현격한 입장차만을 확인했다. 열린비구니모임 공동대표 임대 스님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명우 스님은 운영위원장 선출 관련 의혹과 원로스님 명의도용 주장에 대해 "12명 원로스님들에게 전화했다"고 입장을 밝혔고, 계환스님은 종회의원 선출 문제제기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해 온 열린비구니모임 측의 요구와 주장의 수용이 아닌 집행부 입장을 재차 밝히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져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신성민 · 이나은 기자

선학원이사회, 제2 정화운동 선언 선포

3일 결의… 20일 기념관 기공식

선학원이 '제2 정화운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갖가지 비리에 연루된 권승들은 즉각 조계종을 떠나라"고 주장했다.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11월 3일 서울 안국동 선학원 회의실에서 재적 이사 11명 중 8명의 이사와 감사 2명 등 10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학원은 선언문에서 "선학원은 타락한 승려들을 종단에서 추방하고 조계종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정화운동을 다시 한 번 시작함을 엄숙히 선언한다"면서 "조계종 권승들은 혼인 사실이 드러나거나 성매수가 확인돼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 조계종의 풍토를 지적하며 급기야 송담 스님이 탈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지만 반성과 성찰은커녕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폄훼하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선학원 이사회는 또 내년 1월 2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법진 · 종근 · 종열 스님의 이사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 현 감사인 현호 · 한북스님, 비구니 청안스님을 새 이사로 선출했다.

또한 이사회는 오는 11월 20일 오후 3시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기공식을 열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오후 1시에는 제2 정화운동을 위한 분원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광장 · 삼화도량 '내실 · 결속 다지기'

16대 중앙종회 개원 앞두고 종책모임들 잇달아 워크숍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 모임인 불교광장과 삼화도량이 각각 워크숍을 갖고 향후 운영방향과 조직 구성을 진행했다. 16대 중앙종회 개원을 앞두고 내실 다지기와 결속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불교광장은 11월 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의 '종단 정체성 확립과 법인관리법의 추진 및 과제'를 비롯해 총무원 기획실장 일감 스님의 '제34대 집행부 종책과제 및 부서별 주요 업무', 중앙종회 사무처의 '중앙종회 운영과 의사진행', 조계종 법무전문위원 정병택 변호사의 '종헌의 이해 및 종회의 기능과 역할'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불교광장은 정기총회도 함께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불교광장을 이끌 대표 회장에는 지홍 스님(불광사 회주)가 선출됐다.

이날 불교광장은 56명의 소속 중앙종회의원을 금강회와 무량회, 법화회, 화엄회 등 4개 계파로 나누어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표 회장은 4개 계파를 아우르며 불교광장을 대표하고, 사무처장은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금강회는 지현 스님을 회장으로 14명의 중앙종회의원으로 구성됐으며, 법화회와 화엄회는 각각 범해 스님과 종삼 스님이 회장을 맡았다. 진화 스님이 회장을 맡은 무량회는 불교광장 내 계파로 들어가면서 사실상 통합됐다. 이에 따라 불교광장은 4개 계파와 중앙종회의원 56명을 가진 거대 여권으로 16대 중앙종회를 맡게 됐다.

이날 총회에서 불교광장은 16대 중앙종회 원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반기 의장 후보를 정하지 않았으나 4선 의원인 성문 스님(前 동화사 주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회장 후보에는 자현 스님(무량회)을 추천키로 했다.

이번 종회 선거를 통해 세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삼화도량은 11월 4~6일 한중불교문화교류 연수와 워크숍을 열고 내부 결속을 다졌다. 5일에는 중국 옌지(延吉) 대우호텔 2층 세미나룸에서 워크숍 일정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삼화도량은 16대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직선제와 교구자치를 골자로 한 종회 입법 활동에 전념하기로 결의했다.

삼화도량은 이날 워크숍에서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인선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삼화도량 회장에 영담 스님, 부회장 정산 스님을 비롯해 종책위원장 장명 스님, 대변인 현민 스님, 삼화연구소장 화림 스님 등이 소임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삼화도량은 16대 중앙종회 주요 종책과제로 △총무원장 직선제 △교구자치 등을 꼽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중앙종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은 물론이고 종도들이 바라는 종책과제들을 입법활동을 통해 전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불교광장
화엄 · 법화 · 무량 · 금강회 재편
회장 선임 등 조직 구성 마쳐
5일 워크숍… 종단 현안 강의


삼화도량
4~6일 중국서 연수 · 워크숍
직선제 · 교구자치 종책과제로
"비판 · 견제 본연 역할 충실"

이날 삼회도량 종책위원장 장명 스님은 '16대 중앙종회 삼화도량의 주요 종책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총무원장 간선제로는 국민들과 종도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수행 · 도덕성을 갖춘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사부대중 연대회의가 발족했고, 불교광장이 총무원장 직선제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만큼 16대 중앙종회에서는 총무원장 직선제 개정안을 통과함으로써 종도들의 바람에 부응하고 미완의 종단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구자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교구자치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인사권, 재정운영권, 재산처분권 등 주요 권한들을 교구가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오랜 역사의 산문 제도를 계승해 조계종은 교구자치를 실현함으로써 각 문중 가풍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화도량 소속 스님들은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임으로써 방편지혜를 얻고, 총무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는 종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신성민 기자

"결사 지속될 기반 구축해야"
"사건 무마한 미봉책에 불과"

결사추진본부, 6일 대중공사…날선 비판 이어져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조계종 자성과 쇄신결사의 현 주소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결사가 대중과 총무원의 간극을 더욱 벌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이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 도법 스님은 결사를 세속화 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11월 6일 결사본부 3년을 평가하는 대중공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대중공사는 오는 12월 22일 '천일정진'의 회향을 앞두고 열릴 공개 대중공사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중공사에는 본부장 도법 스님, 결사총괄부장 덕산 스님을 비롯해 포교국장 노휴 스님, 신도국장 덕산 스님, 김종규 교단자정센터 원장 등 사부대중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도법 스님은 "진정한 결사는 포괄적으로 우리사회, 한국불교의 문제를 짚고 대안을 찾고 만드는 일"이라며 "결사본부의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종단 비판이 역할의 전부라고 보는 태도는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화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성패와 상관없이 '화쟁'이라는 성찰을 통해 종단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중 공사와 천일정인 등에 대해선 대중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스님은 "대중공사와 천일 정진 등은 불교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문제를 풀어보려 한 것"이라며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종단의 실력과 역량이 부족했다. 일거리를 짊어지고 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다"고 토로했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는 11월 6일 시행 3년째를 맞은 자성과쇄신결사에 대한 대중공사를 진행했다. 사진=노덕현 기자

하지만 토론자들은 자성과 쇄신 결사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규 교단자정센터 원장은 "자성과 쇄신 결사는 총무원을 지탱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결사 이후에도 지도층은 복지부동했고, 결과 없는 결사에 대중은 무관심해졌다. 결사 시행 3년동안 조계종이 무엇이 변화했는가"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대중의 요구 받아들여야 결사의 대중성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결사는 오히려 대중과 총무원의 간극만 벌여놓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법 스님은 "결사라는 개념을 세속화 시켜서는 안된다"면서 "결사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기 위해선 종단 정치와는 상관없이 결사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결사본부는 두 차례 대중공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사부대중 공개 대중공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5학년도 전기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일반대학원

1 모집과정 및 학과

과 정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석사 학위 과정	불교학과	• 불교학 • 역경학 • 실천불교학 • 상담학 • 문화재학	30명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 과정	불교학과	• 불교학 • 역경학 • 실천불교학 • 문화재학	15명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2 지원자격
1)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석사학위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인정한 타 종단 승려
※ 타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입학 후 소정의 개설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3 전형일정
1) 원서 교부 : 2014. 10. 27(월) ~ 2014. 11. 26(수)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2) 원서 접수 : 2014. 11. 13(목) ~ 2014. 11. 26(수)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3) 전 형 일 : 2014. 12. 3(수), 13:00(박사과정), 14:00(석사과정)
4) 합격자 발표 : 2014. 12. 9(화)
5) 등록 기간 : 2014. 12. 29(월) ~ 2015. 1. 9(금)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1) 장소 : 면접 고사실 – 대학본부 4층 세미나실
2) 시간 : 2014. 12. 3.(수), 13:00(박사과정), 14:00(석사과정)

5 제출서류
1) 입학지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2) 학업 및 연구계획서 (본교 소정양식) 1부.
3) 석사과정 : 학사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예정증명서,
박사과정 : 석사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예정증명서 1부.
4) 대학 /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백분율 성적 기재분) 1부.
5) 최종수계증명서 (조계종 총무원 발급, 3개월 이내) 1부.
6) 해당 총무원장의 추천서.(타 종단 스님)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칼라사진 5매 제출(가사 수한 사진 3×4㎝)
※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스님은 합격 후, 2015. 2. 28까지 학위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 무료
2) 전형료 : 박사과정 80,000원 / 석사과정 60,000원

7 사정원칙
1)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에 허위 및 하자가 있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형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상기 사정원칙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입학사정회의에서 결정함.

8 지원자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2)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www.sangha.ac.kr)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415-070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123 (풍무동)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전화 : 031)980-7864 / FAX : 031) 980-7863

※ 특전 : 1) 석사학위 취득 및 박사학위과정 수료시 승가고시법시행령에 의거 3급 고시 응시 자격에 혜택이 있음.
2) 조계종 승려(구족계수지자 및 익년4월 구족계수지예정자)는 장학금 혜택이 있음.
3) 학업 우수 학인을 선발하여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기간 전액 장학 혜택부여
4) 각종 교내 · 외 장학금 지급

중 앙 승 가 대 학 교 대 학 원

사찰불교대학, '부동품계 양성' 요람 맞나

조계종 신도 정책을 점검하다

① 시행 5년 신도품계와 조직화
② 신도재교육 '불교대학'의 명암
③ 신도정책 변화 성공하려면

조계종 포교원에서 2009년부터 추진한 신도품계제도의 핵심은 교육화 · 전문화된 신도를 양성하고 이들을 조직화하는 데 있다.

입교와 기본 오계를 수지하면 받을 수 있는 발심과 사찰에서의 기본교육 12시간을 이수하면 승급되는 행도는 정확하게는 조계종 신도로서 기본 소양을 닦는 과정이다. 신도 재교육을 통한 교육화된 '진성 신도' 양성은 부동 품계에서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품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중심에 있는 사찰불교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도들이 부동 품계를 받기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조계종 포교원 인가 불교대학에서 1년에 96시간 이상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불교대학 현황을 살펴보면 입학생과 포교원 인가 불교대학 수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졸업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러다 보니 불교대학을 졸업해 부동품계를 받는 신도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포교원이 지난 6월 불교대학 학장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118개의 불교대학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11~2013년 기준으로 입학생은 7300명에서 8127명으로 증가했으며, 인가대학수도 112곳에서 121곳으로 늘어났다.

2011~13학년도 불교대학 통계 현황

구분	입학생	졸업 및 수료자	부동품계 품서자	인가 대학수	졸업보고 제출대학	졸업보고 미제출대학	기타 (휴교·해외)
2011학년도	7,300명 (100%)	5,600명 (77%)	4,900명 (67%)	112곳	96곳 (86%)	8곳 (7%)	8곳 (7%)
2012학년도	8,200명 (100%)	5,700명 (70%)	4,700명 (57%)	115곳	96곳 (83%)	9곳 (8%)	10곳 (9%)
2013학년도	8,127명 (100%)	5,435명 (67%)	4,582명 (56%)	121곳	90곳 (83%)	18곳 (16%)	13곳 (11%)

불교대학 · 입학생 수는 느는데
졸업생 숫자는 나날이 감소 중
성별 · 연령 · 지역별 편중도 심각

지방일수록 강사 수급에 난항
교육 커리큘럼 소화도 힘들어

그러나 졸업 및 수료자는 5600명에서 5435명, 부동품계 품서자는 4900명에서 4582명으로 줄었다. 불교대학 · 입학생 수와 졸업생 수가 반비례 하는 소위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졸업생 구성현황도 연령 · 성별 · 지역별 편중이 심해 계층별로 다양한 불자를 양성해 내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도 제기 된다.

2013년 지역별 졸업생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졸업생 4582명 가운데 서울 870명(18.9%), 경남 606명(13.2%), 부산 477명(10.4%)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인천 86명(1.8%), 대전 84명(1.8%), 전남 95명(2.0%), 광주 125명(2.7%), 전북 88명(1.9%)으로 지역별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졸업자 현황 비율은 1:3으로 여성 불자 수가 3배 많았다. 또한 연령대로는 50대가 2336명으로 절반(50.9%)을 차지했으며 40대 1300명(28.3%), 60대 682명(14.8%) 순으로 졸업생이 배출됐다. 하지만 젊은 불자는 10대 1명(0.02%), 20대는 15명(0.3%)만이 불교대을 졸업해 연령대 불균형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포교원 관계자는 "입학 후 중도에 수업을 듣지 못한 신도들이 보수교육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불교대학의 20~25%가 인원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부분도 포함해야 된다"며 "또한 매년 10개의 사찰에서 불교대학이 신규 인가돼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으나 운영상 어려움으로 휴교 및 폐교 신청을 하는 사찰도 있어 불교대학이 증가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졸업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은 2011년 8곳에서 2013년 18곳으로 늘어났으며, 휴교 및 폐교를 한 사찰은 8곳에서 13곳으로 증가했다.

졸업보고를 하는 불교대학이 줄었다는 것은 신도품계제도가 시행 된지 4년이 지났음에도 일선 사찰에서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역으로 갈수록 커리큘럼 구성과 강사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를 위해 종단 포교원에서 강사 인력풀과 커리큘럼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개별 사찰에서 불교대학을 개설하기보다는 지역 교구 본사를 중심으로 일원화 된 신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제 제12교구본사 해인사의 경우 일부 소속 말사에서 '해인사 불교문화대학'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불교대학이 운영하고 있다. 강사 수급도 해인사 강원의 스님들이 나서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 불교대학과 지방의 소규모 불교대학으로 출강하는 한 강사는 "요즘 수강생들은 불교를 이해하는 수준이 높아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접근해야 한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유명강사를 주지 스님이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지만, 시간 · 물리적 한계로 지방의 불교대학과 커리큘럼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불교대학 강사는 "대부분의 불교대학은 강사들을 발굴하기 보다는 단순한 인맥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포교원은 일선 불교 대학에서 강사 수급을 요청할 경우 적재적소에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 이나은 기자

제26회 조계종 포교대상 지홍 스님 선정

지역 · 문서 포교에 기여… 무구 스님 등 원력상 수상



조계종 제26회 포교대상 수상자로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1월 6일 포교대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제26회 포교대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포교원은 대상(종정상) 수상자인 지홍 스님을 비롯해, 공로상(총무원장상)에 대원 스님(각원사 주지),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 최정수(봉은사 신도회장), 류재환(전국병원불자회 고문단장) 4명을 선정했으며, 원력상(포교원장상)에는 환성 스님(영평사 주지), 무구 스님(백천사 주지 · 수효사 효림원 대표이사), 일운 스님(불영사 주지), 신호승(인천파라미타협회 사무처장), 배광식(국제포교사회 명예회장), 진정순(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 부연맹장),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교직원불자회 '연우회' 등 6명, 단체 1곳을 선정했다.

포교원은 "포교활동을 통해 불교와 종단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사찰,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종정상) 수상자로 선정된 지홍 스님은 90년 광명에 금강정사를 설립해 지역의 중심 사찰로 성장시켰으며, 98년 조계사 주지 부임 이후 시민들에게 열린 사찰로 운영해 신망을 얻었다.

또한 2004년 불광사 회주로 부임해 송파노인요양센터, 불광유치원, 불광출판사의 발전을 이끌어 지역사회의 포교역량을 강화하고 사회포교와 계층포교를 아우르는 원력을 펼쳐왔다. 특히, 불광출판사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출판사로 성장해 매년 30종이 넘는 단행본을 발간하는 등 불교문화 발전에 지대한 업적을 쌓아왔다.

한편 제26회 포교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4일 오후 3시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원주 법천사지 추정 寺域 최초 확인

금당지, 강당지, 동 · 서탑지 등 쌍탑 1금당 가람구조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장 지현병)은 최근 발굴조사를 진행 중인 사적 제466호 '원주 법천사지(原州 法泉寺址)'에서, 금당(金堂, 본존불을 안치하는 중심 건물)과 강당(講堂)으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함께 금당지 전면에서 두 기의 탑지를 확인했다.

원주 법천사는 국보 제59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와 지금은 서울 경복궁으로 옮겨진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있던 통일신라 시대 대가람이다. 고려 시대까지 크게 융성하였으나 임진왜란을 겪으며 없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탑지와 금당지, 강당지가 남북 방향으로 일직선 상에 놓여 있으며, 금당지 전면에 동서로 각 1기의 탑이 배치된 쌍탑 1금당 형식(하나의 금당에 탑이 두 개 있는 구조)가 드러났다. 이는 경주 불국사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서탑지 앞에서는 공양보살좌상의 지대석(址臺石)으로 보이는 육각형 기단석(基壇石,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단을 쌓는 돌)이 발견됐으며 금당지 주변으로 통일신라 시대 건물지 등도 확인됐다.

중심 사역 서편의 건물지에서는 양 익사(翼舍, 주 건물 좌우에 붙어 뻗어 나온 부속 건물)를 갖춘 대형 건물을 중심으로, 공용 생활공간으로 추정되는 건물지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강원고고문화연구원은 "조사 결과로 볼 때 원주 법천사는 계획적으로 구획된 공간 내에 다양한 기능의 건물들이 복합적으로 조성된 다원식(多院式) 가람이었다"고 추정했다.

한편, 문화재청과 원주시는 원주 법천사지의 성격 규명과 사역 확인 등을 위해 2001년부터 발굴조사를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금당지 사역 전경. 통일신라시대 건물지가 확인됐으며 공용생활공간으로 추정되는 건물지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돼 있음을 확인했다.

"길 위로 몰린 노동자 외면할 수 없다"

종교계, 씨앤앰 노사 문제 해결 촉구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와 천주교 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장경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소장 정진우)는 11월 4일 종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씨앤앰 사측과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성토했다.

종교단체들은 조계종 노동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덕본 스님이 대표로 낭독한 호소문에서 "해고한 비정규직 109명을 복직하는 것이 이번 갈등 해결의 첫 걸음"이라며 "노 · 사간 맺은 고용승계 협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종교인들은 MBK파트너스를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익명 비구스님, 동국대에 10억원 '쾌척'

5일 계좌에 송금… "선방 불사 대신 인재불사에"

10월 27일 오전 10시. 동국대의 기금모금 부서인 대외협력본부에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동국대에 기부를 하고 싶으니, 김희옥 총장과 직접 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희옥 총장과 통화를 한 이는 자신이 산중의 작은 사찰에 있는 스님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인재양성의 산실인 동국대가 최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며 "동국대가 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고, 108주년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는 것 같아 기부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이어 "선방을 짓기 위해 오랫동안 불사금을 모았으나 인재를 키우는 것이 더 큰 불사라고 생각했다"며 "11월 5일 10억원을 기금모금 계좌에 입금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11월 5일 통장을 확인한 동국대 측은 스님에게 작은 답례라도 하고자 연락처를 찾았지만 전화번호와 입금자 명도 적혀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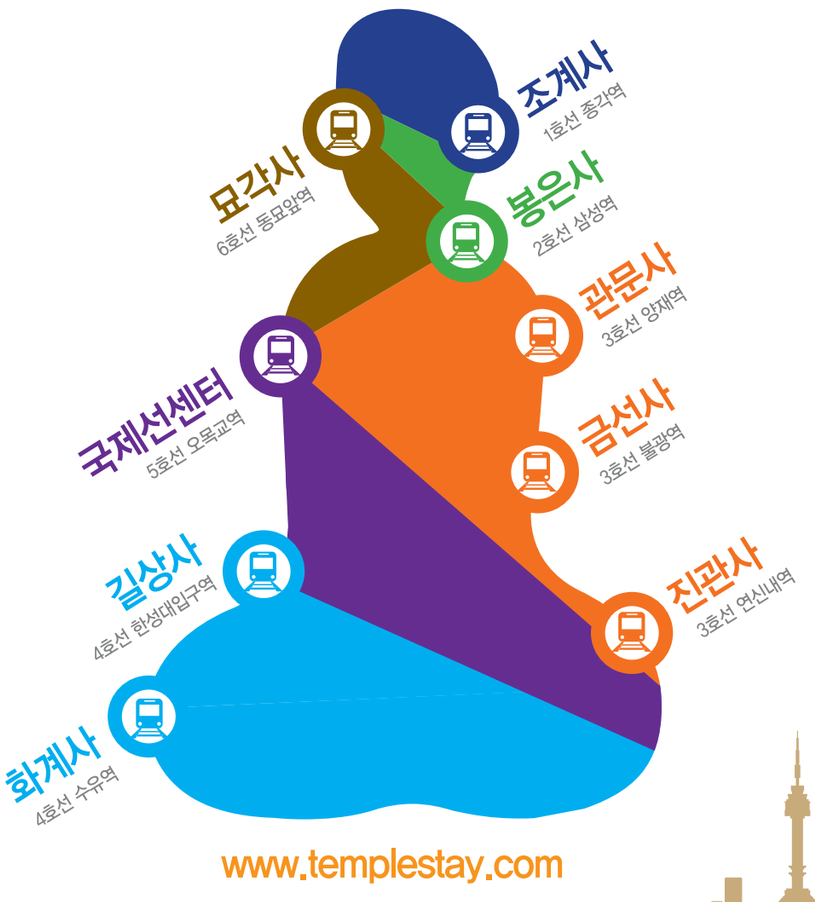
노스님과 직접 통화한 김희옥 총장은 "산중의 작은 사찰에 기거하시는 스님께서 무주상보시의 큰 뜻을 보태주셨다"며 "이러한 도움 하나 하나가 대학을 경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옥 총장은 이어 "스님의 큰 뜻을 깊이 새겨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갖춘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동국대는 지난 3월에도 제2기숙사 착공현장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노스님이 찾아와 김희옥 총장에게 현금 3억원을 기부했다. 또 3월 말에는 부산의 작은 사찰 숭림사 주지 진락 스님이 5억원을, 대구 길상선원 원명 스님이 1억원을 기부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스님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동국대는 이번 익명의 스님이 전달한 기부금을 108주년기념관 건립기금으로 사용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공간 조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개교 108주년을 맞아 건립되는 108주년 기념관은 연면적 8,194평 규모의 동국대를 상징하는 건물로 컨벤션홀, 불교연구시설, 국제선센터, 동창회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템플스테이 TEMPLESTAY



을미년 신년계획 득템(得Templestay) 하자!

2014 서울 템플스테이 위크 12월 1일(월) ~ 7일(일)

종이 울리고, 꽃이 피고, 새들의 노래가 들리는 아름다운 서울에서 특별한 템플스테이 위크가 열립니다. 서울 시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9곳에서 무료로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11월 17일부터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예약하세요.

템플스테이 EVENT

2015년의 나에게 보내는 타임레터
2014년의 내가 2015년 나에게로 보내는 편지로 한 해를 정리하고 신년의 희망을 이야기해요

사찰음식으로 만나는 템플스테이
일시 : 2014년 12월 1일 ~ 2일, 10시 ~ 13시 장소 : 진관사

미리 만나는 2014 서울 템플스테이 위크
일시 : 11월 22일 운영시간 : 11시 ~ 19시 장소 : 서울시민청 홍보부스
프로그램 : 돌려라 행복 회전판, 템플스테이 퀴즈쇼

마음으로 통해요(스님과의 톡! 토크! Talk!)

일 시	대 상	장 소
12월 3일(수) ~ 4일(목) 오후 7시 ~ 9시	직장인	승진인사, 연봉계약 등의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는 스님에게 심통(心通) 부리기
12월 5일(금) 오후 4시 ~ 6시	고3 수험생	인생은 성적이 아닌 적성대로 산다! 수능 성적으로 고민중인 고3 수험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마음나눔 시간
12월 6일(토) 오전 11시 ~ 오후 2시	가족	소중한 내 가족과의 특별한 나들이

11월 22일 시민청내 템플스테이 홍보부스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일 주 문



동국대 총동림동문회 수계법회

동국대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 회장 무문 스님은 10월 26일 경기 파주시 30사단 6028부대에서 장병 152명에게 수계했다.



2014청년한마당 투어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11월 6일 본관 중강당에서 2014 청년 한마당 투어를 개최했다. 청년 한마당 투어에서는 창업아이디어 오디션, 명사특강 등이 진행됐다.



최명숙 대표 문체부 장관상 수상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는 10월 3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문화체육부장관상(문학상)을 수상했다.

원융종 제9대 총무원장 진호 스님



사단법인 대한불교원융종(종정 일공)은 11월 4일 총본산 구로 원융사에서 중앙종회(의장 해안)를 열고 총무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부원장 진호 스님을 만장일치로 제9대 원융종 총무원장에 선출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제적인원 10명중 8명 참석 2명 불참으로 진행되었으며 전 총무원장 성관 스님도 참석하여 종회의원에게 진호스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진호 스님은 확정결과 확인 후 종회위원에게 동체대비의 정신과 애종심으로 원융종을 활성화 시키자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FC붓다, 불자축구 동호인 잔치 열어



불자 축구 동호인들이 어우러져 벌이는 잔치 '2014 불자축구동호회 큰잔치'가 11월 1일 남양주 부평체육센터에서 열렸다.

대회에서는 불교진각종, 봉은사, 광동고등학교 사제팀, FC붓다 4개팀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으며, 종립 광동고 사제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준우승은 봉은사 종무원들로 구성된 FC봉은이 차지했다.

노덕현 기자

"연구수행단체서 포교단체로"

창립 40주년 맞은 한국불교연구원 김종화 이사장



1974년 불연 이기영 교수 설립 구도회 · 무량감로회 등 수행봉사 "청년 불교단체와 연대 강화"

"연구와 수행, 出가자와 출가자가 함께 정진해 가는 새로운 40년을 꾸리겠습니다."

불연 이기영 교수가 出가불자(在家佛子) 중심의 생활불교를 정립하기 위해 1974년 설립한 한국불교연구원이 40주년을 맞았다.

김종화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은 "불연 이기영 선생은 우리나라 불교학을 현대적 학문으로 끌어올린 세계적인 불교학자"라고 추모하며 "그 원력을 이어받아 새로운 불교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한국불교연구원은 연구원 산하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구도회가 있고 수행처인 광주 유마정사가 있다. 출판부와 교사불자회, 의료봉사를 위한 무량감로회도 그 소속이다. 생활 속에서 불교를 실천하고, 교리를 연구하고 배우며 믿음에 깊이를 다진다. 수능 고득점, 공무원 합격 등 기도를 하지 않으며 월 회비 등으로 운영된다.

出가 중심의 수행 · 연구단체인 한국불교연구원에 대해 김 이사장은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사람이 아니라 불법에 의지하라고 하셨다. 법에만 의지할 뿐"이라며 "이제는 出가와 출가구분 없는 수행공동체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조계사에서 무량감로회를 통해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산하 단체인 무량감로회의 원칙도 봉사를 이용해서 약자인 환자에게 믿음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한국불교연구원은 공동연구 · 공동수련 · 공동참여를 기치로 1974년 4월 5일 故 이기영 박사를 원장으로 창립했다. 초대 원장은 이기영 박사, 2대 원장은 정병조 금강대 총장, 3대 원장은 정호영 충북대 교수, 4대 원장은 이민용 영남대 석좌교수가 역임했다. 5대 원장은 리영자 동국대 명예교수가 맡고 있다.

한국불교연구원은 11월 2일 광주 유마정사에서 불연 이기영 선생 18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이기영 박사가 설립한 전국 구도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불연 이기영 박사(1922~1996)는 동국대 교수를 지내며 한국불교학을 현대화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선지식으로 出가불교를 일으킨 학자이자 수행자였다.

특히 원효 스님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으며 신행모임인 구도회와 한국불교연구원 등을 설립운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지역경제 침체 극복, 힘모을 것"

부산사하구불교연합회 회장 혜우 스님



"지역 경제의 침체로 사하구는 부산에서 가장 낙후 된 곳입니다. 지역의 어려움을 돌아보기 위해 승가와 出가의 화합, 봉사의 실천, 기초 질서 확립 등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사하구 불교연합회 제 10대 회장으로 부산 감천동 약수사 주지 혜우 스님이 취임했다. 혜우 스님은 10월 17일 약수사에서 개최된 '제2회 사하구민과 함께하는 사하불교 불자의 밤 한마당'에서 전 회장 법인 스님으로부터 회기를 전달받고 이와 같이 밝혔다.

혜우 스님은 "종파와 소속을 초월해 사하불교가 대화합을 이룰 때 무한한 가능성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하불교 연합회 회원 스님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취임사를 통해 말했다.

이어 스님은 "사하구는 부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고통받는 주민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하불교연합회가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사하구 불교 연합회의 사업인 무료급식소의 운영과 소외이웃을 위한 자리를 꾸준히 마련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하성미 기자

관음종 태허 스님 탑비 · 부도 제막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이 2015년 창종 50년을 앞두고 11월 1일 순천 선암사에 개산조 태허 스님의 탑비와 부도를 봉안했다. 관음종은 창종을 앞두고 순천 선암사 측과 태허 스님 선양을 위한 부도 및 탑비 봉안을 협의해왔다. 이날 봉안법회에는 관음종 신도 2000여 명이 동참해 태허 스님의 가르침을 기렸다.

법회는 태허문도회(대표 법명)가 주관한 것으로 법회에 앞서 조계산 선암사 역대 조사 대례와 관음합창단 음성공양, 종사영반과 영산 범패시연 등이 진행됐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봉행사에서 "조사 태허 스님께서 열반하신지 35년이 흘러 출가본사인 선암사에 부도를 모시게 됐다"며 "태허 스님의 가르침을 올곧게 이어가기 위해 앞장서자"고 말했다.

태허문도회 대표 법명 스님은 "태허 스님의 문손들은 오늘을 계기로 태허 가르침과 사상을 받드는데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조계종, 지역 사회 화합에 앞장



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인)은 10월 26일 여주 백화사에서 여주시 승격 1주년을 기념한 시민노래자랑과 지역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단 율원장 혜일 스님. 부원장 서봉금산 스님, 비구니 총무 금산 스님, 여주사암연합회장 법진 스님을 비롯해 원경희 여주시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혜인 스님은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여주 발전을 기원한다"며 "종교를 떠나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기자"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군종교구 대만불교 순례 봉행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10월 27~31일 4박 5일간 대만불교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순례는 고웅 원조사, 제원사, 불광산사, 신죽 중태선사, 타이베이 자항사, 고궁박물관 순으로 진행됐다. 성지순례에는 육군사관학교 소령 법상 김대연 법사와 해군교육사 대위 여철 김영돈 법사 등 위관 군승 14명과 민간인성직자 비구니 스님 2명 등이 참여했으며, 군종교구에서는 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해 총무국장 지선 스님 등 교구 관계자 4명도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사찰 신도들의 자발적인 군포교 눈길



사찰 신도들의 자발적인 군포교가 눈길을 끈다. 관음종 구미 묘각사(주지 용담)는 10월 25일 인천 해역 방어사령부를 찾아 400여 장병들을 위문했다. 묘각사 청년회는 봉사단체 '엄마밥상'을 꾸려 지난 여름부터 군부대에서 손수차린 음식을 보시하고 있다.

정병수 묘각사 청년회장은 "연평도 해병대에서 시작한 엄마밥상을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모든 장병들에게 따뜻한 엄마의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54)442-5716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열린비구니모임》을 지지하는 우리의 입장

우린 3년 전 비구니회장 선거 과정의 치열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 당시 출마했던 현 비구니회장(명우스님)은 대중 스님들에게 앞으로 회장이 되면, 비구니(회) 위상 정립과 사회적 역할모델, 비구니회관을 실질적인 비구니 종합도량으로 쇄신하고, 종회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겠다 등을 공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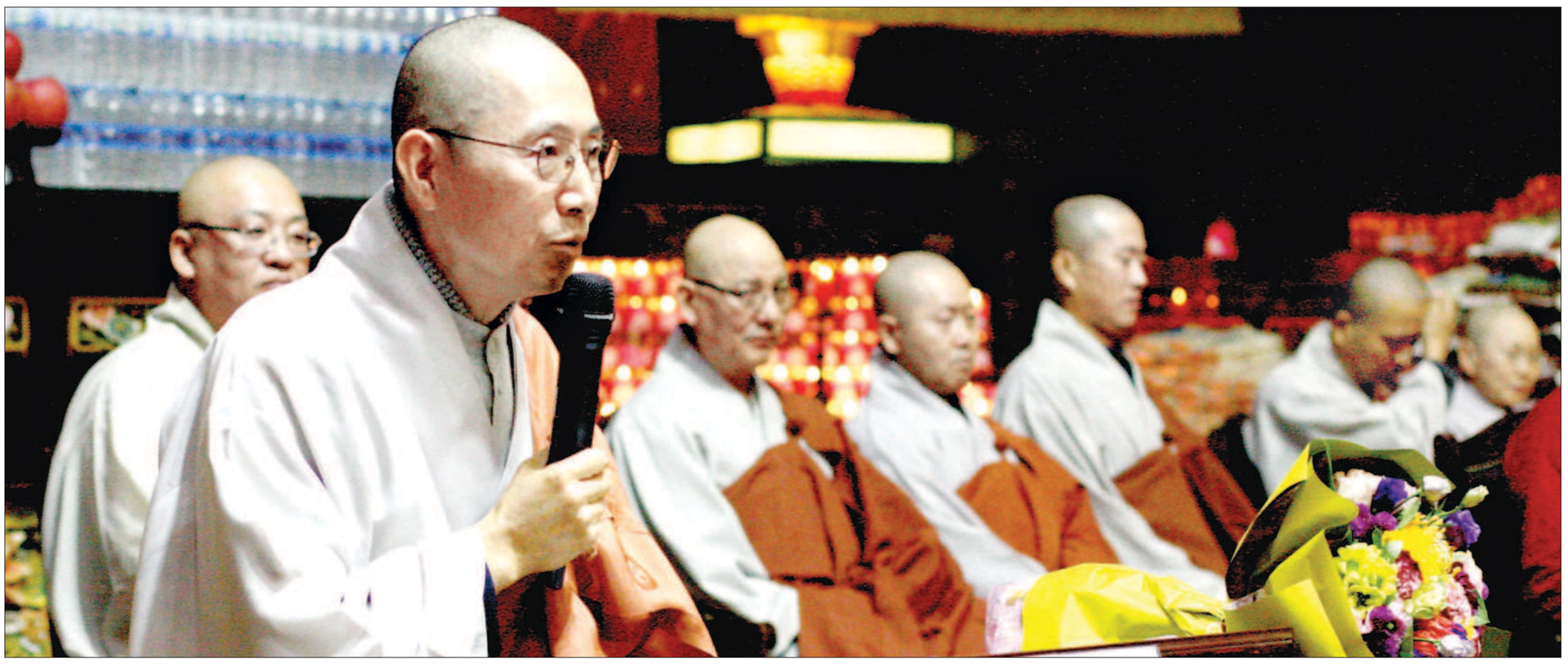
하지만 그동안 공약에 대한 과정이나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비상식적인 운영위원장 임명과 비구니 종회의원 비합법적 선출이라는 문제로 비구니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스님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서한문을 보내었다. 서한문에 나타난 전국비구니회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든다. 서두에 '전국비구니회가 여법하지 못한 일로 요즘 소란스럽다.'로 시작하여 '연주자가 건반을 잘 두드리면 화음이 되고 그렇게 못하면 불협화음이 된다.'고 하였다. 전국비구니회가 현실의 상황을 소란스러운 일정도로 대중의 뜻을 무시하려는 것도 모자라서, '전국비구니회 임원진을 연주자로, 6천 여 비구니를 건반'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전국비구니회 임원진들이 스스로 비구니 스님들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자임하고 있는 것으로 소임을 사는 임원진들의 사고부터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착각해서 전국비구니회 임원진들이 연주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연주를 잘못한 연주자가 바뀌어야 할 것이므로 임원진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비구니회에서 가장 중점에 두었던 사업이 위의 公約이 아닌 오로지 종회의원 선출과 관련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것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아무래도 제10대 비구니회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더 이상 우리는 비구니회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 또 운영위원장의 자격은 물론 잘못된 진행에 의해 선출된 종회의원도 인정할 수 없다. 법을 어기고 선출된 종회의원이 입법기구인 중앙종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전국비구니회가 우리들의 사표가 되는 비구니원로스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신들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처사는 비구니들을 대표하는 전국비구니회의 모습이 아님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따라서 전국비구니회를 잘못 이끌어 온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과 운영위원장은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반드시 대중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임시총회를 빠른 시일 안에 열 것을 촉구한다.**

불기2558(2014)년 11월 6일

동학사 승가대학 · 봉녕사 승가대학 · 삼선승가대학 · 청암사 승가대학 동문회 일동



11월 3일 부산 홍법사에서 열린 '미주불교와 한국포교에 대한 톡톡 콘서트'에서 미국 정혜사 주지 석타 스님이 현지 포교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5백여명의 참석자가 자리해 스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이 콘서트 진행자로 나섰다.

12년 美 포교 생생체험… 'Concert'로 톡톡 쏟아내

홍법사 초청, 美 정혜사 주지 석타 스님 토크 콘서트

기립 박수와 환호가 멈추질 않았다. 홍법사 대광명전을 가득 채운 참가자 5백여 명은 저녁 9시가 넘도록 한명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미국에서 온 스님의 말에 귀를 집중하고 있었다. 8시부터 토크 콘서트가 이뤄진 법당은 감탄과 환희로 가득했다.

11월 3일 '미주불교와 한국포교에 대한 톡톡(Talk talk) 콘서트'가 개최된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미국 LA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정혜사 주지 석타 스님을 초청, 미주 불교의 현황과 포교 활동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었다. 청소년 포교도량으로는 미국 내 유일한 사찰인 정혜사는 미 서부를 대표할 정도로 규모도 크고 젊은 신도 비율도 높다. 최근에는 신도수가 많아져 중창 불사를 할 정도로 입지가 커졌다.

톡톡 콘서트는 홍법사 개산 11주년과 11월 다라니 3일 기도 회향을 기념해 준비된 특별행사로 심산 스님이 진행자로 나섰다.

1백개vs4천개…기 펴지 못하는 한국불교

12년 전 정혜사에서 초청법회를 한 것이 계기가 돼 미국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 석타 스님. 유학을 위해 잠시 들른 미국에서 주지를 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신도들의 간곡한 부탁을 내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교포들을 대상으로 전법을 펼치고 있다.

"미국 불교는 인종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이민 온 아시아 민족들이 고국 불교를 이곳에 다 심어놓으니까요. 대만, 베트남, 티베트, 일본 할 것 없이 다들 포교에 열성적이지만 미국내 한국불교는 50년 역사를 가졌음에도 아직까지 조직이 미미하고 사세가 미약한 상황입니다. 미국에 한국 사찰은 1백개여개가 있지만 교회는 4천개가 넘어요. 한인 교회 신도들이 굉장히 조직력이 강합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자분들이 어깨를 펴고 살지 못해요. 식당에 조그만 불화 하나를 걸어놔도 다음부터 교인들이 오지를 않을 정도니까요. 반면 미국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당당하게 단주를 끼고 다녀도 별다른 차별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석타 스님의 말을 빌면 신도들의 고령화 역시 문제라고 했다. 이민 1세대들의 깊은 신심이 2세, 3세에게 전해지지 못하는 탓에 조부 장례식에 스님 대신 목사나 신부가 기도를 집전하는 일도 잦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던 심산 스님은 크게 공감하며 "한국이나 미국이나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홍법사의 경우 10년 전만해도 어린이 법회에 자리가 부족했지만 지금은 40명이 모이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석타 스님은 "자연히 청소년 포교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말을 이어나갔다.

한국문화 알리며 청소년 포교

"방학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하고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법회는 한국말을 모르는 아이들을 고려해 영어로 진행하지만 점차 한국어에 익숙해지면 한글 예불을 따라서 하도록 유도중입니다. 모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한국어 교실도 따로 운영하고 있구요. 이렇게 몇 년 하다보니 점차 입소문을 타더라구요. 어느 순간 사람이 많아져 법당이 점점 좁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정혜사는 대지 700평에 1백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법당과 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다였거든요."

마침 근처에 3천평 규모의 교회가 매물로 나왔다. 그러나 이곳을 눈여겨봤던 곳이 또 한 곳 있었으니 바로 인근 한인교회였다. 공교롭게도 입찰 경쟁을 벌인끝에 부지는 정혜사 몫이 됐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석타 스님은 쓴 웃음을 지으며 "'하나님 나라에 절을 만든다'고 한인교회 신도들이 정혜사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였다"며 그간의 우여곡절을 털어놓았다. 지금 정혜사는 교회의 십자가를 거둬낸 자리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한인교회신자 강한 조직력에 기눌려 고전
불교고령화 주목… 청소년 전법에 진력
방학마다 청소년 대상 템플스테이 '호응'
정혜사, 미국내 유일한 청소년 포교도량 성장



역경을 뚫고 전법에 매진했던 석타 스님의 이야기에 청중들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심산 스님은 "정혜사는 한국불교의 미국 진출을 상징하는 도량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며 석타 스님의 노고에 감탄했고 청중들 역시 박수로 응수했다.

기도 통해 원력 성취할 수 있어

고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석타 스님은 불사를 진행하는 동안 건강 악화로 2차례 심장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겨우 미국 최고 심장의라 불리는 한국의사를 만나 3번째 수술을 받은 후 쾌차할 수 있었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처음 정혜사 주지직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도, 그리고 절을 맡고 나서도 꾸준히 부처님을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정혜사가 청소년 도량으로 거듭나면서 불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이렇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기도 덕분입니다."

석타 스님은 "정혜사 법우들도 함께 기도해줘서 제가 나은 것 같다. 지금은 도반들이 저를 만나면 얼굴만 좋다고 한다"며 "정혜사가 기도로 힘을 얻은 만큼 기도에는 원력을 성취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걸 불자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한다"고 그 가피력을 거듭 강조했다.

스님의 생생한 미국 포교담이 끝나자 대광명전에 앉아 있던 청중들이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 건강이상에도 포교에 헌신적으로 임해온 스님의 노력에 보내는 환호였다.

법회를 마칠 무렵 한 참가자가 "우리 딸이 LA에 산다. 꼭 정혜사를 찾아가 공부하라 권하고 싶어서 스님의 주소를 받으러 가는 길"이라며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스님을 찾아 뛰어갔다.

또 다른 참석자 이경미(46)씨는 "기독교도가 많은 미국에서 포교를 하시는게 쉬운 일이 아닐텐데 스님의 원력에 감탄했다"며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느꼈다. 나도 원력을 세워 기도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심지영(45)씨 역시 "국내에서도 하기 힘든 청소년 포교를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며 하시는 게 감동이었다. 현지 아이들에게 불교를 포교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어와 전통문화를 알리는 공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산 스님은 참석자들에게 "오늘 석타 스님의 원력과 삶을 보면서 기도를 한 것 보다 더 큰 의미와 가피를 찾았을 거라 생각한다"며 "간절한 기도만이 우리가 갈 길이다. 석타 스님을 통해 간절함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홍법사와 정혜사는 청소년 교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석타 스님은 정혜사 청소년들의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홍법사와 함께 준비 중이다. 가정형편상 한국을 한번도 방문해보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홈스테이를 통한 한국 문화와 불교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홍법사에서 영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홍법사 역시 지난 두 차례 정혜사 방문에 이어 2016년 정혜사를 다시 찾는다. 조만간 청소년 미국문화탐방대 모집을 시작해 언어 교육 등 필요한 준비를 다져나갈 예정이다.

부산 홍법사=하성미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1.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2.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2014년도 12월 10일까지 수시전형

5.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7대 종단과 함께하는 자살예방 축제

불교상담개발원, 11월 17일 '자살예방위한 종교통합 문화대축제'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2014년도 생명존중 문화조성 민간지원사업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통합 문화대축제' 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주관, 불교상담개발원,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자살예방협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종교통합 생명존중 부스 운영 △생명살림 문화축제 △생명살림 톡톡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종교통합 생명존중 부스운영에서는 불교 · 가톨릭 · 개신교 · 원불교 · 유교 등 각 종교와 민간단체 및 자살예방기관이 참여하는 홍보부스 운영과 심진 스님, 가수 유리상자 · 김태곤 · 전미경 등이 출연해 생명살림 축제 한마당을 가질 예정이다.

생명살림 문화축제에서는 생명지킴 사진전과 문화행사를, 생명살림 톡톡에서는 힐링 공연, 토크 콘서트를 마련해 참가자 모두가 어우러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종교계에서도 각 교리에 따른 생명존중사상에 따라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자살예방 역량을 한데 모아 통합홍보를 실시해 종교간 화합을 통한 대국민 통합을 유도하고 자살예방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태고종 학천사, 수계법회 거행

11월 2일 전남 화순서, 제1회 산사음악회도 열려

전남 화순 불선산 학천사(주지 정각)는 11월 2일 대웅전에서 대승보살계 수계법회 및 제1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산사음악회는 세월호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1600년 불교문화를 근간으로 한 우리 문화가 융성해지기를 기원하는 자리였다.

대상보살계 수계법회에는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계화상에 종정 혜초 스님, 갈마아사리 도산 스님(총무원장), 교수아사리 호명 스님(총무원 부원장)이 삼화상으로 학천사 회주 현호 스님, 선암사 주지 설운 스님, 선암사 원로 서봉 스님, 광주전남종무원장 호산 스님, 총무원 규정부장 지담 스님이 증명법사로 증참한 가운데 종사이운, 개식,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청법게, 혜초 종정예하의 법어, 수계의궤 계설, 연비, 계첩수여식 등으로 이어졌다.

오후에 열린 산사음악회는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공연으로 이뤄졌다. 또한 학천사 회주 현호 스님이 능주고등학교 1학년 이초슬 학생과 화순고등학교 1학년 김향희 학생에게 장학금을 각각 전달했다.

이나은 기자



전남 화순 불선산 학천사(주지 정각)는 11월 2일 대웅전에서 대승보살계 수계법회 및 제1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불레협 겨울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

11월 15일 국제선센터서 진행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만, 이하 불레협)는 어린이 · 청소년포교 활성화를 위해 '제54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 를 개최한다.

이번 겨울강습회는 11월 15일 오전 9시 국제선센터에서 열리며 〈법구경〉을 재밌고 쉽게 지도할 수 있는 교육법과 2015년 1년을 알차게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법과 체험활동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2015 법회프로젝트 △팀워크를 활용한 레크리에이션 △캘리와 석고 방향제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찬불가를 활용한 법회지도법 등으로 마련됐다.

불레협은 "강습회에 참여한 지도자들이 스스로 즐기고 느낀 것을 법회에서 활용해 좀 더 재밌고 유익한 법회가 될 수 있도록 강습회를 개최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738-7860 이나은 기자

食이 아닌 藥의 개념… 조리법 인기

전국 사찰음식강좌 '풍성'

'절밥' 으로 불리는 사찰음식은 불교에서 음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음식을 먹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수행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 음식 자체도 단순한 식(食)이 아닌 약(藥)의 개념으로 몸을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또 사찰음식 자체를 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생명평화의 정신을 전파하는 도구로 보고 있다.

특히 사찰음식은 기본에 가장 충실한 음식으로 자연의 순리에 맞춰 제철 식재료를 활용, 음식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며, 수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들로 구성돼 수행을 위해선 사찰음식을 먹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최근 '힐링푸드' '슬로우 푸드' 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사찰음식이 종교적 공간에서 만들어진다는 점과 접근성 때문에 쉽게 가까이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가운데 사찰음식 강좌를 열어 재가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조리법을 배우고 불교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곳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불교여성개발원(02-722-2101)은 매주 화요일마다 '몸과 마음과 자연을 살리는 건강한 밥상' 강좌를 열고 있다. 건강한 밥상문화를 통해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사찰음식대중화를 통해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을 확산하기 위해 제철음식과 장아찌 및 김치 담그기 등 조리법을 가르쳐주고 실습한다.

지난 11월 4일,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에서는 사찰음식 강좌가 한창이었다. 이날 수강생들은 '연잎밥' '묵밥' '양상추 샐러드' 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불교여성개발원은 매주 화요일마다 '몸과 마음과 자연을 살리는 건강한 밥상' 강좌를 열고 있다.

최혜경 불교여성개발원 사찰음식센터장은 "사찰음식은 깨달음을 얻는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음식을 먹고 난 뒤 별탈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몸에 쌓여 병이 된다"며 "먹을 때 이 음식이 내 몸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생각해야 한다"며 수강생들에게 조리법을 지도했다.

수강생들은 오신채를 넣지 않고도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에 신기해한다. 수강생 유은경 씨는 "오신채를 넣지 않으면 맛이 안날까 걱정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사찰음식 조리법대로 하는데 가족들도 눈치 채지 못하는 것 같다"며 "불상생계도 지키고 영양도 보충하는 사찰음식을 생활화해야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목동 국제선센터(02-2650-2200) 지하 1층에 사찰음식교육관 '향적세계' 를 운영하고 있다.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찰음식을 배우고자 하는 수강생들도 늘어나 초 · 중 · 고급강좌가 개설돼 있다.

광주광역시에는 '빛고을 자연사찰음식체험관' 이 마련돼 대중에게 다양한 강좌를 열고 있다.

증심사와 (사)자비신행회가 공동으로 문을 연 이곳은 실습(교육) 공간, 다목적(교류) 공간, 회의 공간, 전시 공간 등으로 구성돼 각종 사찰음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요리학원 수준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체험관에서는 계절별로 4차례에 걸쳐 강좌가 열린다. 매주 수요일 주간, 야간반 강의로 구성되며, 학기별로 초청특강, 현장체험학습, 템플스테이, 요리대회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찰음식 교육은 제철 식재료를 기본으로 한다. 계절에 맞는 약선음식, 치유음식, 떡, 간식 등을 만들어보고, 내 몸과 체질에 맞는 자연요법관리법도 배울 수 있다.

수원 봉녕사(031-256-4127)는 사찰음식교육관 '금비라' 를 운영, 사찰음식 보편화 ·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찰음식의 기본이 되는 조리법과 천연재료를 이용한 계절식을 배우게 되며 초급반 1년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한다.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031-682-3169, www.templefood.co.kr)는 경기 평택 수도사 적문 스님이 운영하는 곳이다. 사찰음식 조리서부터 발우공양 · 다도 등 음식 예법까지 배울 수 있으며, 3개월 과정의 정기 강좌를 연 3회꼴로 연다.

동국대학교는 부설연구소로 **전통사찰음식연구소**(02-2260-8618)를 운영하고 있다. 사찰음식 전문가인 선재 스님과 대안 스님을 초빙해 강좌를 진행한다.

운아 전통사찰음식연구원(054-770-2554, cafe.daum.net/FOOD-GOOD)은 〈1식 3찬 보약밥상〉의 저자 운아 스님이 운영하는 곳이다. 부정기적으로 강좌가 있으며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도 사찰음식 요리법을 공개하고 있다.

선재 스님이 운영하는 **선재 사찰음식문화연구원**(02-3411-8103, cafe.daum.net/20060314)에서는 선재 스님이 직접 강좌를 열고 있다. 이론을 비롯해 요리시연, 조별실습으로 이뤄져 있으며 1년 강좌를 수료하면 연구반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효원의 **이지사찰음식문화원**(070-7581-8103, cafe.daum.net/templecook)은 1년 과정의 사찰음식수료반을 운영하고 있다. 한상차림반, 천연조미료반, 어린이요리반도 개설돼 있다.

금당 사찰음식문화원(02-733-2081)은 조계종이 운영하는 사찰음식 전문점 '발우공양' 의 총 책임자인 대안 스님이 운영하는 곳이다. 대안 스님의 지도하에 사찰음식과 산야초를 연구한다.

마하연 사찰음식문화원(031-634-5770)은 경기 이천 감은사 주지 우관 스님이 운영하는 곳이다. 우관 스님은 이천시에 '마하연' 이라는 사찰음식 전문점도 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성직자들 축구하며 '화합과 평화' 다짐

4대종교인 성직자 축구대회

4대종교 성직자들이 축구로 하나되며 '화합과 평화' 의 장을 펼쳤다. 2014 성직자 축구대회가 11월 3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원불교 중앙총부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각계 종교인 150여 명이 모여 종교간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은 "4대 종단이 모여 매년 열고 있는 행사다. 이번 경기가 종교인 화합과 친선 도모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참가한 스님들이 몸 안 다치고 경기를 잘 했으면 좋겠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주장 지담 스님은 "세월호 참사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어 올해는 경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하반기에 행사가 치러진다는 소식을 듣고 짧은 시간에 어렵게 선수 구성을 했다"며 "4대 종교인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경기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2005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성직자 축구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돼 예선 2경기 준결승 결승 순으로 진행됐다. 불교는 주장 지담 스님을 중심으로 20여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발휘했다. 이날 경기에서 불교팀은 천주교팀과 치른 예선경기에서 3대 2로 우승을 차지하고 결승전에 올랐으나 원불교에 2대 0으로 패해 아쉽게도 2위에 머물렀다. 선수로 참여한 서호 스님은 "승패에 상관없이 성직자들이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참가 소감을 전했다.



2014 성직자 축구대회가 11월 3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봉 축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11대 회장 석대응 대종사 · 제3대 이사장 석월인 대종사 취임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만추의 계절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충만하옵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금번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11대 회장 석대응 대종사, 제3대 이사장 석월인 대종사 취임식이 오는 양력 11월 17일 월요일(음력윤9월 25일) 오전10시에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성대히 봉행하오니 한국불교계 고승대덕 스님을 비롯 정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인사님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여 법석을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법하의 가내에 부처님의 가피로 건승과 행운이 항상 깃들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불기2558(2014)년 10월

- 아 래 -

◎ 행사제목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11대 회장 석대응 대종사
제3대 이사장 석월인 대종사 취임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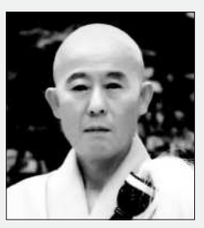
◎ 일시 : 불기 2558(2014년) 양력 11월 17일
(음력 윤 9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부터

◎ 장소 :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1-3)
(02)735-4111~3번

◎ 사무처 : (02)756-1227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11대 회장 석대응 대종사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3대 이사장 석월인 대종사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⑧번 출구 / 3호선 경복궁역 ⑥번 출구
1, 2호선 시청역 ③번 출구
◎ 버스 103, 109, 150, 401, 402, 406, 704, 1711, 7016, 7018
7022, 7023, 401
◎ 광역버스 5500, 9001, 9400, 9401, 9411, 9600, 9602, 9706
9708, 9713
◎ 주차장(지하) 세종문화회관 주차장 또는 세종로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주차권은 식장에서 확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회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동부상가맨션2층 216-1호 전화 : (042)285-1227 ● 사무처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6-17호 혜명빌딩 6층 전관 전화 : (02) 756 - 1227 홈페이지 : http://www.jongjeong.com

장애 · 비장애 야구단… 팀플레이는 'Best'

한솔복지관 베스트원 야구단

장애 · 비장애아동 통합 활동

손잡고 달리며 친밀감 쑥쑥

협동심 · 사회성향상 프로젝트


야구를 좋아하는 장애 · 비장애 아동들이 모여 결성된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의 베스트원 야구단

장애아동이 야구를 한다고?

"다시, 다시! 윤호 때문에 다시!"

11월 4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신기초등학교 운동장. 감독 선생님의 불호령이 연신 이어진다. 체조를 하는 둥 마는 둥 딴청을 피우는 윤호(11) 때문이다.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모인 10명의 아이들은 열 번의 PT체조를 더 하게 됐는데 어쩐 일인지 모두 태연하기만 하다. 그리고 이내 단체 기합의 주범 윤호의 게걸음 흉내에 아이들이 모두 깔깔대며 자지러진다. 발달장애 2급 윤호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웃음으로 무마시킨다.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가섭) 베스트원(Best one) 야구단의 몸풀기 체조시간. 과연 꼬마 선수들은 야구를 할 수 있을까.

야구단은 지난해 초 창단됐다. 장애아동에게는 사회성 향상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일반아동들에게는 장애에 대해 긍정적인 식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현재 장애아동 5명과 비장애아동 8명이 소속돼 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야구게임을 하고 프로야구 경기가 있으면 함께 관람도 다닌다.

처음 야구단이 창단됐을 때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팀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반응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달리기를 하면 신호와 상관없이 먼저 출발하기도 하고 엉거주춤 뛰는가 하면, 무슨 이유에선지 도중에 되돌아오는 아이도 있지만 그것이 운동을 못하는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때마다 팀원들끼리 유쾌하게 웃어넘기면 그뿐이다.

규칙배우며 배려심도 늘어

하지만 복병은 있기 마련. 프로야구팀 넥센의 열렬한 팬이라는 준석이(13, 자폐성장애)는 초기만 해도 공이 날아오면 피하기 바빠 제대로 된 경기를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경기마다 준석이 곁에서 야구공을 받도록 도와주는 서포터즈 형들 덕분에 이젠 제법 공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놨다.

비장애아동인 도윤이(8)는 "준석이 형이랑 야구를 하면 힘들기도 하지만 재미있다"고 했다. 빠르게 공을 주고 받는 캐치볼을 할 수는 없지만 준석이가 힘을 다해 던져주는 공을 받는 재미도 남다르다는 것이다.

도윤이 어머니 오은숙(43)씨는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깨주고 싶어서 아이에게 야구단 가입을 권유했다. 오씨는 "아이가 크다 보면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경계에 서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아이로 커줬으면 하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이어 "도윤이가 요새 몸이 불편한 사람이 보이면 먼저 다가가서 도와준다"며 "야구를 하면서 배려심을 키워가는 것 같다"고 흐뭇해했다.

야구단 활동이 가져다 준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준석이 역시 야구를 하기전에는 고집도 세고 마음대로 하려는 성향이 강했지만 야구규칙을 배워가면서 규율을 알게 되고 돌발 행동도 줄어들었다.

승엽이(13, 지적장애)와 종현이(13, 지적장애)도 줄곧 둘이서 놀았지만 점차 먼저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는 등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누군가와 팀을 이뤄 야구를 해본 게 처음이라는 수빈이(16. 왜소증)는 야구단 일원이 된 것이 마냥 자랑스럽다. 보충수업이 늦게 마쳐 10분밖에 공을 못 만지더라도 꼭 운동장으로 나오고야 만다. 때문에 팀원들의 출석률도 100점에 가깝다.

이처럼 결속과 화합이 생명인 베스트원 야구단은 기세를 몰아 내년에는 경기도 지역 리틀 야구단과 친선경기를 펼쳐볼 생각이다.

베스트원 박노진 야구감독은 "처음에는 배트로 공만치면 1루수에 있든 2루수에 있든 그냥 뛰어가기 바쁜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상대팀이 공을 잡았는지, 내가 뛰어도 팀에 실점이 되지는 않는지 살피기 시작했다"며 "아이들은 야구라는 단체활동을 통해 팀플레이가 주는 협동심을 키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승가원 후원금 사상 최고치 경신

10월 한달간 8억여원 모금… 2억원 후원자 '눈길'

승가원 설립이래 가장 많은 후원금이 10월 한 달 동안 모였다.

승가원은 지난 11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후원금이 총 8억7천여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월보다 2억1천만원이, 지난해 10월과 비교했을때는 3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모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던 데는 2억원을 쾌척한 후원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승가원에 따르면 이 후원자는 사전 연락없이 10월 29일 지로를 통해 고액을 납부했으며 이전에도 두 차례 기부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액은 5만원과 100만원이었다.

승가원이 후원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름과 나이, 주소가 전부다. 지로용지 발송록을 뒤져 찾아낸 주소로 감사인사를 하기 위해 두 차례 찾아갔지만 번번이 비어있어 만남이 성사되지는 못했다. 승가원 측은 "메모를 남기고 왔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전화번호도 모르기에 달리 연락할 방도도 없는 상황이다.

승가원측은 "후원자가 살고 있는 곳은 다소 허름한 아파트였다"며 "70대 할아버지가 아마 평생 모으신 소중한 재산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생명나눔, 장기기증자 20번째 천도재

신한은행, 환자치료비로 3백만원 후원도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는 지난 11월 1일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사에서 장기기증 및 시신기증 영가를 축원하는 천도재를 봉행했다. 생명나눔 천도재는 삶의 마지막 순간,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진정한 나눔을 실천한 영가들의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천도재에는 기증자 유가족 및 생명나눔 회원, 불암사 신도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련, 대령, 법문, 영가천도, 진혼무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관무용단 이영빈 단장이 직접 진혼무를 선보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2000년에 간경화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이름도 성도 모르는 한 청년의 간을 이식받아 새 생명을 얻었다"며 "장기기증은 자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숭고한 일인 만큼, 많은 분들이 희망등록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11월 1일 진행된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장기기증 영가 축원 천도재

한편 11월 3일 신한은행은 생명나눔실천본부에 환자 치료비 지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신한은행은 생명나눔 7월의 환자로 선정됐던 이효준 환아의 사연을 신한은행 홈페이지 '사랑의 클릭' 제도를 통해 알리고 9월 한 달 간 300만원을 모금했다. 사랑의 클릭 제도는 신한은행 직원들이 참여하는 기부 프로그램으로 한 번 클릭 할 때 마다 1천원이 적립된다.

배현진 기자

커피향 가득 강좌로 가을 감성 충전

중림복지관-스타벅스, 주민 위한 커피아카데미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이 10월 한달간 진행한 커피교실 강좌가 막을 내렸다.

스타벅스 광화문지점 바리스타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참여한 강의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특강에서는 커피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커피의 역사, 유래, 종류에 대해 배워보고 각자 집에서 손쉽게 향좋고 맛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커피를 만들기 실습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번 강좌에 참여한 한 직장인은 "퇴근 후 이런 유용한 강좌를 듣게 돼서 뿌듯했다. 특강에서 배운 커피 내리기 노하우로 집에서 향긋한 커피를 즐겨봐야겠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측은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영유아가 엄마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키즈뮤직 둥가둥가'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키즈뮤직 둥가둥가'는 뮤지컬 동화를 듣고 음악을 몸으로 표현하는 수업으로, 20개월에서 4세 아동과 엄마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12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진행된다. (02)362-3348 배현진 기자


중림복지관에서 진행한 커피 수업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커피를 직접 만들어보고 있다.

부천시 '무지개작은도서관' 개관

석왕사 룸비니, 지역 문화공간으로 운영

작은도서관이 많은 도시를 추진 중인 부천시가 10월 30일 소사동에 '무지개작은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무지개작은도서관은 부천시 공립도서관으로 사회복지법인 석왕사 룸비니(이사장 영담)가 운영한다.

영담 스님은 개관식 개회사에서 "무지개도서관 사업을 통해 구도심 지역의 하나인 소사동 인근지역을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로 만드는 일에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축사에서 "무지개작은도서관이 소사동 인근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기를 바란다" 며 "지역 곳곳에 더 많은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지개도서관은 78평 공간에 정보자료실, 어린이서재, 열람석(50석) 등의 시설로 꾸며져 있다. 소사동을 비롯한 원미동 인근 주민들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운영한다.

앞으로 무지개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동아리조직을 구성, 주민참여를 통해 도서관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같은 건물 3층에 위치한 청소년카페 무지개와 연계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석왕사 룸비니 운영 무지개작은도서관의 내부

선암복지관, 스마트폰 교육 참여자 모집

어르신 사기 예방 소비자 교육도

울산 선암호수노인복지관(관장 이성호)에서는 스마트폰 무료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삼성과 LG 스마트폰 이용 어르신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은 11월 12~13, 19~20, 26~27일로 나눠서 진행된다. 원하는 날짜에 접수하면 된다. 30명 선착순 모집이다.

한편 선암호수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덕상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어르신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 11월 13일 복지관 1층 강당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실시된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뜰폰 구매요령과 홍보관 상술 피해등을 연극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1월 19일 최근 개봉한 '우리는 형제입니다'를 관람할 어르신들을 모집중이다. 영화는 어릴적 고아원에서 생이별한 후 30년만에 상봉한 형제이야기를 다룬 코미디물이다. 만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관 내 1층 안내데스크에서 접수한다.

배현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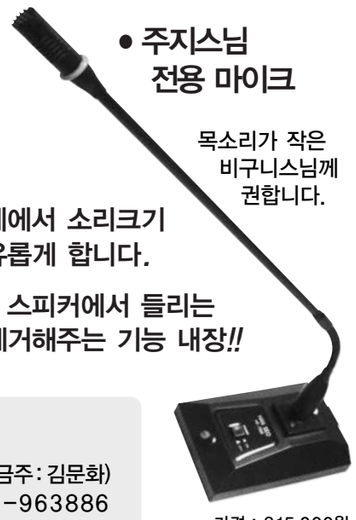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백화도량 종남산
송광사삼장원 안거대중 모집

백화도량 종남산 송광사는 종법인 '삼장원·염불원법'에 바탕한 경전안거를 다음과 같이 사부대중과 함께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삼장원에서 시행하는 경전안거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거 기간 : 2558(2014)년 10월 15일(음) ~ 2559(2015)년 1월 15일(음)
■ 안거 장소 : 백화도량 종남산 송광사
■ 안거 대중 : 조계종 승려 중 승납 7년 이상의 비구
■ 안거 내용 : 경전 연찬 및 「종경록」 강독
■ 안거 과정 : 매주 월·목 오전 7시~ 10시 강의 및 세미나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5시 공개 강의 및 세미나
■ 안거 특혜 : 삼장원의 안거는 전국 사찰 결계록에 등재하며,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중 안거로 인정되며,
2급 승가고시 응시할 때 수행이력으로 인정됨.
■ 연 락 처 :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1 송광사 (☎ 063-243-8091)

불기 2558년 11월 3일

백화도량 종남산 송광사 회주 금산도영
백화도량 종남산 송광사삼장원 운영위원장 백강법진
백화도량 종남산 송광사삼장원장 덕산



“욕망 가득찬 고기 몸 벗어나는 것이 열반”

〈肉體〉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초청강연회

김성철 교수(동국대 경주캠퍼스)

최근 들어 생명체의 형태는 물론 인간의 행동이나 심리까지 진화생물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종교 역시 과학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면서 기존의 세계관을 수정하든지, 과학과 대립하면서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는 부처님에 의해 발견된 진리로 현대과학과 방법론을 같이 한다. 김성철 교수(동국대 경주)는 11월 5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불교와 자연과학의 흥미로운 만남에 대해 강연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접근하는 동시에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의 강연을 들어본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김성철 교수는 … 서울대학교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에서 〈용수의 중관논리의 기원〉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앙승가대와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강사를 거쳐 현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티벳장경연구소장,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 계간지 〈불교평론〉 편집위원장을 역임했고 한국불교학회, 불교학연구회, 인도철학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도불교의 중관학을 전공했지만 불교논리학, 티베트불교, 반야삼론학 등으로 연구의 범위를 넓혀왔으며 최근에는 진화론, 뇌과학, 윤리학, 심리학, 사회학 등 인접학문과 불교를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교와 진화생물학의 만남

불교를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자 할 때 가장 유용한 학문은 생물학입니다. 그중에서도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원리를 갈파한 찰스 다윈(1809~1882)의 진화생물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통해 태어났지만 먹고 먹히면서 살아가다가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 모든 생명체의 고통(苦)을 관찰하신 후, 그런 고통의 원인(集)을 발견하셨으며, 그런 고통에서 벗어난 경지(滅)를 체득하셨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道)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네가지 성 스러운 진리’ 란 뜻에서 사성제(四聖諦)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생명 세계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괴로움’ 이라는 고성제,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 분노, 교만, 어리석음과 같은 우리 마음 속 번뇌에 있다’ 는 집성제, ‘그런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경지인 열반’ 을 의미하는 멸성제, ‘괴로움이 사라진 열반에 이르는 수행 방법인 팔정도’ 의 도성제의 네 가지 진리를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이 갈파한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원리와 목격담은 이러한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와 집성제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두 가지 고통에 시달립니다. 하나는 굶주림의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살해의 공포입니다. 참새든, 늑대든, 물고기든, 나비든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먹을 것을 찾아 헤매야 합니다. 굶주림의 고통입니다. 맹수의 제왕 사자도 늙고 병들면 먹이를 구하지 못해 몇날 며칠을 굶습니다. 지쳐 쓰러지면 독수리 떼가 하늘에서 맴돌고 허기진 하이에나들이 모여들어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 몸은 쪼이고 뜯깁니다.

야생에서는 나보다 강한 놈이 항상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 몸이 그의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약자일수록 사방을 기민하게 살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살해의 공포’ 입니다. 약한 놈은 고기가 되고, 강한 놈은 먹습니다. 최강의 포식자도 늙고 병들면 결국 먹히고 맙니다. 냉혹한 약육강식의 법칙입니다. 배고픔의 고통과 살해의 공포, 고성제의 괴로움입니다. 허기를 채우려는 욕망과 먹이를 구하기 위한 투쟁, 집성제의 번뇌들입니다. 생명의 참모습으로 찰스 다윈이 생생하게 목격한 고(苦)와 집(集)의 진리입니다.

몸, 그리고 번뇌

다윈 진화론의 장점은 실증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화 현상을 해석했다는 데 있습니다. 영국의 맨체스터 지방에 살던 흰 후추나방이 산업혁명 이후 검은 후추나방으로 진화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흰 나방이 많았으나,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공장의 검은 연기로 인해 맨체스터 지방의 나무와 벽들이 검게 그을게 되자 눈에 잘 띄는 흰 나방은 대부분 포식자인 새들에게 잡아먹히고 검은 나방만 살아남아서 맨체스터 지방에 널리 퍼집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난 일이며 겉보기에는 흰 나방들이 새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몸을 검은 색으로 변화시킨 것 같지만 사실은 자연선택을 통해서 솎아진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자연선택 이론과 함께 다윈의 진화론을 떠받치는 또 하나의 기둥은 성선택(Sexual Selection) 이론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유는 나의 부모를 포함한 모든 조상들이 사춘기 이후까지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섹스와 임신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춘기 이후까지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는 것은 성적으로 성숙해 2세를 낳을 능력을 갖출 때까지 ‘자연선택’ 에서 도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섹스와 임신에 성공했다’ 는 것은, 사춘기 이후에 인간 종 내에서 벌어지는 ‘성선택’ 의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물로서 살아갈 때, 짐승으로 살아갈 때, 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얼굴의 중앙에 뚫린 ‘입 구멍’ 과 사타구니에 붙은 ‘성기’ 입니다. 수천, 수만, 수천만이 넘을 나의 조상들 모두 자신의 입에 음식을 넣는데 성공해 사춘기 이후까지 굶어 죽지 않았고, 배우자를 만나 섹스를 통해 2세를 낳는 데 성공했기에, 그 후손인 나의 몸이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눈, 귀, 혀, 코의 감각 기관과 팔다리와 손발은 우리 몸의 주인이 아닙니다. 모두 몸의 중앙에 있는 입과 성기를 위한 보조기관일 뿐입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과 성기를 위해 종사하는 감각 신경과 운동 신경의 지휘부일 뿐입니다.

입은 식욕의 원천이고, 성기는 성욕의 뿌리입니다. 탐욕, 분노, 우치(愚癡)라는 삼독의 번뇌 가운데 동물적인 탐욕을 충족시키는 기관입니다.

나의 몸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식욕→입→자연선택으로 이어지고 성욕→성기→성선택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두 가지 길에서 나의 조상들이 모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의 조상들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강력한 식욕과 음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연선택과 성선택이라는 진화의 두 원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 번뇌에 닿아 있습니다.

자연 · 성선택에 의해 우리 몸 존재
두 원리는 우리 마음 속 번뇌와 닿아
번뇌를 끊어 열반 체득 하려면
짐승과 반대로 살아야 고통 벗어나

그러나 이는 ‘몸의 길’ 일 뿐입니다. 고, 집, 멸, 도의 사성제 가운데 ‘집(集)의 번뇌’ 를 갖고 ‘고(苦) 속에서’ 살아가는 고달픈 삶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멸성제의 목표와 도성제의 수행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넘어섭니다. 번뇌를 끊어서 열반을 체득하는 것. ‘입과 성기가 달린 비극적인 고기 몸’ 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짐승과 반대로 사는 길입니다.

윤리와 도덕에 대한 진화론의 풀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면 대개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라는 숙어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진화의 원리에 그렇게 냉혹한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을 포함해 생명체 중에는 다른 개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꿀벌에서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는 것은 여왕벌 한 마리와 몇몇 수벌들뿐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2세를 남기지 않는 암컷 일벌들입니다. 개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암개미 한 마리와 날개 달린 수개미 몇 마리를 제외한 다른 개미들은 생식에 참여하지 않는 일개미들입니다.

일벌이나 일개미의 자기희생은 자연선택이나 성선택의 적자생존 이론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기에, 다윈 역시 이들의 희생적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개체의 희생으로 인해 그 친족들이 보전되고 번성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함으로써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후대의 진화생물학자들은 이를 친족선택(Kin Selection)이라고 불렀으며, 유전자와 연관시켜서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집트계 영국인 해밀턴(1936~2000)이었습니다.

친족의 경우 유전자를 공유하는 정도가 높습니다. ‘친족 간 친밀성의 정도’ 는 ‘유전적 유사성’ 에 비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개체(Individual)의 희생으로 인해 동족이 번성한다고 해도, 자기희생을 하는 개체의 수가 너무 많으면 그 집단은 멸종합니다. 모두 앞장서서 자기희생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 아무도 자기희생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집단 역시 멸종할 것입니다. 외부의 위협을 피해서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동족군이 와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동족 집단이 번성하려면 희생을 통한 개체의 손실보다 동족의 이득이 커야하며 동족 내에서 각 개체들의 유전적 유사성이 높아야 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행동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개체인 나를 위한 이기적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남을 위한 이타적 자기희생으로 궁극적으로는 동족의 유전자를 보전해줍니다. 인간 사회의 악은 거의 모두 전자에서 비롯되고 선은 대부분 후자에 속합니다. 탐욕, 분노, 교만과 같은 번뇌들은 모두 개체인 나만을 보전하기 위한 감성들입니다. 반면에 많이 베풀고, 해치지 않고, 빼앗지 않으며, 속이지 않는 등의 선행은 남을 배려하는 행동들입니다. 선이나 악은 진화 과정에서 친족선택의 원리에 의해 수만 년간 솎아지면서 인간의 유전자에 각인된 가치들입니다. 진화생물학적으로 풀어본 윤리와 도덕, 그리고 양심의 기원입니다.

나에게 보인 나, 남에게 비친 나

‘나’ 는 단일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두 가지 모습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하나는 ‘나에게 보이는 나’ 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남에게 보이는 나’ 의 모습입니다. 내가 직접 나의 몸을 바라볼 때에는 내 손이 보이고, 내 다리가 보이고, 내 몸통이 보이지만, 내 얼굴은 보이지 않고 내 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깥에서 본 자동차의 모습,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본 모습이다. 전자의 관점을 객관이라 부르고 후자의 관점을 주관이라 부릅니다. 객관의 자동차는 무수하지만 주관의 자동차는 오직 하나입니다. 겉모습만 보이는 무수한 자동차 중에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며, 화려한 것도 있고 초라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것은 단 한 대뿐이기에 그 우열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겉모습과 행동은 각양각색이어서 서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몸이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으며, 행동이 느린 놈이 있고 빠른 놈이 있으며, 힘이 센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습니다. 기는 놈을 제치고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습니다. 객관의 세계에서는 비교가 가능하기에 우열이 있고, 강약이 있고, 미추(美醜)가 있고, 대소(大小)가 있습니다. 객관세계의 모든 것은 이렇게 연기합니다. 진화 생물학에서 규명해 온 갖가지 형태들입니다. 마치 밖에서 본 자동차와 같이 무수히 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있고 그 모습과 행동역시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주관은 하나입니다. 나에게 보이는 자동차의 외형은 여럿이지만 그 내부가 보이는 것은 내가 탄 자동차 하나뿐이듯 주관은 오직 하나입니다.

불교에서는 일체를 오온으로 구분합니다. 오온은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인데 단순하게 번역하면 순서대로 ‘형상, 느낌, 생각, 의지, 마음’ 입니다. 이는 자동차 내부에서 자동차를 보듯이 내가 나의 심신을 살펴봐서 발견한 구성요소들입니다.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와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의 12처(處) 분류도 그렇고 이에 6식(識)을 추가한 18계(界)의 분류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바라본 세상의 모습입니다.

객관에서는 비교가 가능하기에 우열이 있습니다. 남이 생각하는 나, 남에게 비친 나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주관은 오직 하나입니다. 객관화된 허구의 나를 지우고 주관에 충실할 때 열등감도 있을 수 없고 우월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감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비교가 불가능한 절대우위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강자와 약자, 화려함과 초라함, 우월과 열등이라는 상대성을 초월해 누구나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보셨던 방식이고 부처님께서 살아가셨던 방식입니다. 진화를 초월한 삶입니다. 우리모두 따라야할 절대적 삶입니다.

‘빛나는 지도자’
제54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한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한 강습회가 열립니다.

불기 2558년 제54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는 빛나는 지도자라는 주제로 부처님 법향을 함께 나누는 빛나는 법회 지도자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재미와 유익함이 함께하는 강습회!
인생의 지침이 될 좋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법구경”을 재미있고 쉽게 지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1년간의 계획을 알차게 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법과 체험활동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 제 : 법구경을 가슴에 새겨 빛나는 지도자가 되자
■ 프로그램
○ 2015년 법회 프로젝트 (법구경 활용 법회 계획 및 지도자 네트워크) : 교육연구위원회
○ 놀면서 배우자!! (팀워크를 활용한 레크리에이션) : 전남희(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전문위원)
○ 캘리로 전하는 法좁 (캘리와 석고 방향제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 이수진(신나는세상 공예전문강사)
○ 노래로 배우는 부처님 법 (찬불가를 활용한 법회 지도법) : 민선희 (봉은사*선불남성합창단 지휘자)
■ 일 시 : 불기 2558(2014)년 11월 15일 (토) 오전 9시 ~ 오후 5시
■ 장 소 : 국제선센터 지하 1층 교육문화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67)
■ 대 상 : 각 사찰 계층법회 지도자, 포교사, 템플스테이 실무담당자 등 100명(선착순 접수)
■ 참 가 비 : 4만원 (사전 접수 시 / 당일접수 5만원)
※ 참가비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 참가비 입금 미확인 시 당일접수 참가비 적용
■ 신청방법 : 다음카페 (http://cafe.daum.burec) 참가신청서 인터넷 접수, 팩스접수 후 참가비 입금
E-mail(burec@hanmail.net), Fax(02-738-7863)
■ 입금계좌번호 : 국민 610301-04-132532 / 농협 053-01-267940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신청기한 : 11월 12일 (수) 오후 6시까지
■ 문 의 처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무국 (☎02-738-7860 / ☎02-739-4967)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 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 ~ 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종교가 국가주의 도구가 되선 안된다"

동국대-日도요대와 '20세기 이후 한일 불교의 변천' 세미나서

"불교학계는 근대 한일불교사를 고찰하며 반성해야 합니다. 성찰의 자세가 있어야 미래의 지구사회를 열어 나가는 새로운 불교를 구축할 것입니다."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대표 불교대학인 동국대와 동양대가 근대 양국 불교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미래 공동의 발전을 다짐해 눈길을 끈다.

동국대 불교대학(학장 정승석)은 11월 6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일본 동양대와 함께 '20세기 이후 한일 불교의 변천' 을 주제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본 근대불교를 있게 한 엔료 스님의 국가주의에 대한 일본학자들의 비판과, 한일불교교류로 한국불교가 발전했다는 한국학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다케무라 마키오 동양대 총장은 "20세기 이후 동아시아사에는 미묘한 문제가 많다"며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냉정히 관찰해 미래를 향한 풍요로운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석 동국대 불교대학장도 "향후 2년에 걸쳐 양대학은 1년에 1회씩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동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골자로 협정을 맺은 이후 공동연구까지 진행하게 됐다"며 "불교학계의 교류가 양국 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불교 근대화 이면에 전쟁 긍정" 반성

이어진 세미나에서 다케무라 마키오 총장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불교 개혁에 앞장선 엔료 스님의 활동을 조명하며, 국가주의 경향을 비판했다.

양국불교 변천 공동연구 일환

日근대불교 효시 엔료 스님 비판

"반성할 것은 해야 발전 가능"

타케무라 총장은 "에도 시대 일본불교는 포교에 제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막부말기에는 폐불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며 "메이시 시대 기독교가 전도되는 상황에서 엔료 스님은 서책을 통해 기독교를 사상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승려교육에 나섰다. 또 일본 불교종파간 연합을 통해 새로운 불교운동을 펼쳐 근대 일본불교를 있게 했다"고 소개했다.

타케무라 총장은 "하지만 엔료 스님의 반기독교와 호국사상 이면에는 국가주의적 경향이 있었다"며 "현실 사회의 개혁에 참여한 그 사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케무라 마키오 동양대 총장


이날 세미나는 동양대 설립자인 엔료 스님에 대한 재조명과 근대 한일 불교교류의 과정과 영향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호성 동국대 교수는 "엔료 스님은 온 누리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명원하는 대신에 일본의 부국강병을 염원하며 전쟁을 긍정하기도 했다"며 "계몽을 골자로 한 근대주의에 대한 확신 속에 내포된 국가주의나 세속주의는 극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우라 쎄쓰오 교수는 "엔료 스님이 조선에서 순회강연을 한 일지를 보면 '오늘날 조선의 도로와 설비, 학교교육은 다 조선합병의 덕택', '조선인은 그 은혜에 보답해야' 등 조선을 식민지화한 일본을 찬미한 논리를 전개할 뿐"이라며 "현대 여러 학자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조선시대 유자들에게 억압됐던 불자들은 민족의 독립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 일본유학에 떠났다"며 "역설적으로 식민지 시대에 일본 유학을 통해 국제감각과 지식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귀국 후 정계와 교육계, 종교계 등에 몸담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들이 불교개혁에 동참했으며 불교교단에 능동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교단은 이들이 결혼과 환속, 전공변경 등의 문제를 우려해 관계 설정에 미온적이었으며 그로 인해 정화의 터널을 거치며 깊은 상처를 안게 됐다"며 "오늘날 우리가 한국불교의 대중화 방안을 모색할 때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지혜를 동원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남해 용문사 대웅전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남해 용문사 대웅전(南海 龍門寺 大雄殿)' 〈오른쪽 사진〉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남해 용문사 대웅전' 은 중창(重創) 기록과 건축 양식에 따라 조선 현종 7년(1666)에 일향(一香) 스님에 의해 건립되고, 영조 47년(1773)에 중수(重修)됐다.

남해 용문사 대웅전은 평면 구성과 공포의 표현기법, 상부 가구와 닫집 등에서 수려한 장엄 수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이는 18세기 이후 건립된 사찰 주불전의 특징적 건축양식이다.

특히 서남해안 지역의 건축 경향이 동쪽 지역으로 확장되어 발전하는 양식적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어 남해안 해안 지역의 사찰건축 중 흔치 않은 귀중한 불교문화유산으로서 평가받는다.

노덕현 기자

인도철학회, '인도철학 50년 회고와 전망'

50주년 기념세미나… 11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인도철학회(회장 정승석)는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인도철학 50년의 회고와 전망' 을 주제로 추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발표회에서는 정병조 금강대 총장이 기조발표를 진행하며 △정호영 충북대 교수의 '불연(不然) 이기영 선생에 대한 회상' △문을식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의 '원의 범 교수의 업적과 불교논리학' △정승석 동국대 교수의 '배우며 생각하며 수행하며 전념한 후학 양성: 향운(香雲) 정태혁 박사' △황용식 명상연구자의 '서경수 교수의 업적과 현대 인도철학에의 한 전망' △이태승 위덕대 교수의 '일본 인도철학의 성립과 하라탄잔의 역할' 등이 발표된다. (02)2260-3133

노덕현 기자

한국선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회장선거

한국선학회(회장 이덕진)는 11월 14일 오후 1시 서울 장충동 우리는선우 대법당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정운 스님의 '금강경의 선사상' △호정 스님의 '간화선에서 의(疑)의 의미와 기능에 관한 철학적 이해' △조영미 박사의 '공안의 구성요소 및 유형의 특징 - 선문염송설화(禪門拈頌說話) 공안을 중심으로' 등이 발표된다.

한편 한국선학회는 이날 오후 5시 제8대 회장선거를 실시하며, 후보로는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가 단독 입후보했다.

노덕현 기자

울진 불영사, '불영사 역사·문화' 학술대회

울진 불영사(주지 일운)는 11월 8일 오후 1시 울진엑스포공원 영상관에서 '불영사의 역사와 문화' 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여서 스님의 '불영사의 역사와 성보' △오세덕 학예연구사의 '불영사의 건축' △정명희 학예연구사의 '불영사의 회화' △송은석 박사의 '불영사의 조각' △최응천 동국대 교수의 '불영사의 공예' 등이 발표된다. (054)783-5004

노덕현 기자

대각사상연구원, '용성스님 전법' 재조명

양주 석굴암과 대각사상연구원은 10월 30일 동국대에서 '백용성스님 전법의 재발굴' 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용성 스님 제자, 동암 스님 탄신 110주년을 기해 이성수 불교신문 기자의 '동암선사의 생애와 사상' 주제발표로 시작된 학술대회는 동헌, 월주, 동광스님 등 용성스님 가르침을 이은 제자들을 통해 용성스님의 사상을 재조명 했다.

노덕현 기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비사상과 연관"

양동석 명예교수,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서 밝혀

기업의 영리활동과 사회적 책임활동은 함께 병행될 수 있을까. 그 접합점을 불교의 자비사상에서 모색한 논문이 눈길을 끈다.

양동석 조선대 명예교수는 11월 7일 한국불교학회가 개최한 추계학술 세미나에서 자비사상을 통한 기업윤리를 발표했다.

양 명예교수는 발표에서 "기업이 공동체 활동이나 사회공헌을 하는 이유는 정부나 사회로부터 큰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대기업의 영향력은 공익의 잠재력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 명예교수는 "칼빈의 금욕적 직업 윤리는 서구 자본주의 성장의 원동력이 됐지만 현대 자본주의는 계층갈등 등 다양한 문제 속에 종래의 금욕적 윤리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연기에 의해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새로운 윤리로 대체돼야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명예교수는 "단기적인 영리에 매몰된 탐욕에 의해 노사갈등, 빈부격차, 불공정 경쟁 등을 초래하고 있다"



며 "불교의 연기론에 의한 자비사상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기업의 병폐를 치유하고 인류를 풍요롭게 살게 할 수 있는 윤리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신비주의와 불교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문이 발표됐다. 김성철 동국대 교수는 '사띠 수행력 측정과 향상을 위한 기기와 방법' 논문에서 최근 개발한 '촉각자극분배기(觸覺刺戟分配機)' 를 통한 사띠 수행의 방안을 밝혔다.

촉각자극분배기는 휴대폰 진동기능 부품인 소형진동모터를 활용해 촉각 자극을 조절하는 기기다.

김 교수는 촉감은 "신체에서 동시에 발생하지만 결국 자신이 집중하는 촉감만 인지된다"며 "찰나를 인지하는 능력, 자신의 인지 능력을 촉각으로 향하게 해 시각과 청각에 매몰된 본연의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청담 스님 정화사상 조명, 갈길 멀다"

마가 스님, 청담사상연구소 학술세미나서 강조

"청담 스님의 정화 운동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비구종단을 구현하는 첫 번째 정화운동에 이어 승려정화, 신도정화의 두 번째 정화운동은 아직 우리 곁에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마가 스님은 청담사상연구소가 11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출범의 근본정신' 을 주제로 연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마가 스님은 "청담 스님의 종단정화는 통일종단 형성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일종단 형성 이전의 종단정화는 청정비구 종단을 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반면, 통일종단 이후 청담 대종사는 승려정화와 신도정화에 매진했다"고 분석했다.

청담 스님(1902~1971)은 근현대 대표적 선사로서 평생 참선수행을 통한 불교교단의 정화운동과 중생교화를 위해 힘쓴 선지식으로 '조계종' 의 토대를 형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스님은 1954년부터 1962년 통합종단이 출범하기까지 정화의 횃불을 세우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마가 스님은 이어 "청담 스님이 종단정화를 위해 펼친 구체적인 불사는 '역경(譯經)사업, 포교사업, 도제(徒弟)양성' 이라는 3대 사업으로 '종단정화, 승려정화, 신도정화' 라는 3대 목표와 '역경(譯經)사업, 포교사업, 도제(徒弟)양성' 이라는 3대 사업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을 맺고 길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가 스님은 "청담 스님의 정화운동을 이어가는 것은 종단정화에서는 교구분권화, 교구자치, 승져정화에서는 범계행위 척결, 신도정화에서는 청년 포교 등에 과제가 남아있다"며 "도제양성과 디지털 역경 사업, 신개념 포교 방안 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끝으로 "3대 사업이라는 숙원을 완성하기 위해 탈종이라는 결단도 서슴지 않았던 청담 대종사의 원력을 귀감삼아 미완의 3대 사업을 완성해가자"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광주 불교공동모금회 첫 발 디디다

11월 3일 빛고을나눔나무 창립대회

광주불교 활성화를 위한 불교지원단체가 설립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 증심사 주지)는 11월 3일 광주불교회관 2층 법당에서 부설단체인 '빛고을 나눔나무' 창립식을 봉행하고 불교단체 지원에 나섰다.

광주지역 불교공동모금회 성격을 띄는 빛고을 나눔나무는 광주지역 불교단체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로, 불교단체에서 진행하는 목적사업과 부처님오신날 봉축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단체이다.

특히 해마다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해 광주지역 불교단체 30여 곳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불교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립식에는 광주지역 사찰 50여 곳의 주지스님과 백양사 주지 진우스님을 비롯한 광주불교방송 이민수 사장 등 불교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봉행됐다.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된 연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해방 후 60여 년 동안 호남불교는 침체와 열악한 포교환경에 처했다. 또한 다른 종교의 교세확장에 비해 현격한 격차를 보이면서 제3의 종교로 전락될 위기에 처했다"며 "2000년대 들어 새롭게 만들어진 불교환경은 사찰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 · 포교의 환경과 불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참여 환경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사찰을 다시 규합하고, 불교단체의 활성화와 불교의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와 신도들의 전법구현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광 스님은 "오늘 창립하는 빛고을 나눔나무는 이러한 불교단체의 저변을 넓히고, 다양한 불교인프라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11월 3일 빛고을나눔나무 창립대회에 참여한 광주지역 불자들이 불법홍포를 서원하며 나눔나무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30여 불교단체 5000만원 지원
광주지역 50여 사찰 회원으로

재원 마련에 대해 빛고을 나눔나무 상임이사를 맡은 혜공 스님(성거사)은 "기업체에서 후원하는 지원금을 나눔활동에 사용할 것이며, 사찰 및 개인후원을 추가로 모집해 다양한 불교활동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빛고을나눔나무는 이미 2013년 12월 독거노인 겨울 난방지원사업을 불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2014년 봉축행사에 1500만원을 13개 불교단체 공모사업에 지원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정관과 이사회, 운영계획안이 통과됐다. 초대이사장에는 당연직으로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연광 스님이 선임됐으며, 20인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회에는 보응 스님(세심정사), 명신 스님(연화사), 혜공 스님(성거사), 시각 스님(만덕사), 도요 스님(원각사), 동초 스님(정안사), 혜월 스님(한마음선원)등이 선출됐다. 빛고을 나눔나무는 출가자 이사에 이어 11월중에 재가자 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이날 불교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활동보고서를 발행하여 한 해 동안 진행된 광주불교연합회의 현황 등을 공개했다.

활동보고서에는 1년 연혁, 봉축행사,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부설단체 현황, 발행잡지 현황, 대외협력사업, 신행단체 간담회, 2014년 제정결산, 2015년 예산안 등이 포함되었으며, 장기적 과제인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불교계 대책' 과 '전통등 만들기 특별위원회' 설립 등이 실렸다.

광주불교연합회는 빛고을나눔나무와 공동으로 12월 19일 오후 7시 사찰과 단체, 기관장, 후원자 등이 참여하는 '2014광주불교인의 밤' 행사를 신양파크 호텔에서 개최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찬불 가수 수안스님, 첫 콘서트 진행



노래하며 포교하는 수안 스님(백양사 포교국장)이 첫 개인 콘서트를 개최했다. 수안 스님은 지난 10월 31일 광주 동구 보혜미안 공연장에서 첫 콘서트 '길을 떠나며' 를 진행했다.

이날 공연에서 수안 스님은 그랬구나, 길을 떠나며, 비 내리는 산사, 언제나 어디에나, 식은 차를 마신다 등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10여곡을 선보였다.

수안 스님은 인사말에서 "대중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래를 시작했다. 노래를 하면서 다양한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을 만나 세상일을 이야기하게 되었다"며, "제가 이 노래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힘든 세상일을 겪으면서 잃어버려서는 안되는 자기 자신의 내면 가치를 잘 관찰하고 유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안 스님은 포교일선에서 활동하는 백양사 포교국장을 맡고 있으며, 광주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진행자로도 활동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아름다운가게서 열린의사회 무료진료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은 11월 2일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농어촌지역 저소득 어르신 200여 명을 모시고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열린의사회 무료진료' 를 진행했다.

아름다운가게의 후원으로 열린의사회가 진행한 이번 행사는 의료봉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유익한 건강정보와 진료를 제공했다.

진료과목은 내과, 한방, 치과, 약 처방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열린의사회 의사와 간호사 등 3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접수에서 진료, 처방까지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복지관장 대원 스님은 "올해 3번째 고창을 찾아주신 열린의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무료 진료를 통해 지역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도 신흥사 '제8회 장보고 청소년 백일장'



완도 신흥사(주지 법일)가 11월 5일 제8회 장보고청소년백일장대회(이하 장보고 백일장)를 개최했다.

신흥사가 운영하는 장보고아카데미가 주관한 이날 대회는 전남도내 초 · 중 · 고등학생 4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초등부(저학년, 고학년), 중등부, 고등부로 참가자를 구분하고 시와 산문, 그림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치러졌다.

특히 이번 대회는 3년째 제정된 전남도지사 · 전남도교육감상에 이어 올해 전남도의회 의장상이 신규로 제정돼 전남지역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예행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에는 최우수상 시 부문 정윤규 군(완도중 1, 전라남도교육감상), 산문 부문 박주선 양(완도여중 1, 전라남도의회 의장상), 그림 부문 추호림 군(완도수고 2, 전라남도지사상)의 작품이 각각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일 스님은 인사말에서 "전통문화가 숨쉬는 사찰에서 한국을 빛낸 장보고의 기상을 느낄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완도 신흥사 장보고 아카데미는 내년에는 교육부 장관상 제정과 대상도 전국 청소년으로 확대해 전국행사로 규모를 격상시킬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상주사, 관세음보살 점안법회 봉행



군산 상주사(주지 도연)는 11월 5일 관음전의 6관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상주사는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 흥천사 주지 법희 스님, 보천사 주지 의종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진희완 군산시의장 지역 기관장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전북 영산작법 보존회 스님들의 영산작법에 이어 현조 스님을 증명법사로 관음전 6관음보살에 대한 점안과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 선포식이 이어졌다.

성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관음신앙을 빼놓고 한국불교를 이야기 할 수 없으며 관음보살이 되려면 어려운 곳과 소외된 곳으로 다가갈 때 관세음보살처럼 살아갈 수 있다" 며 "오늘 성스러운 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계기로 내가 바로 부처로 살아가야 한다는 눈을 떠야한다." 고 강조했다.

도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상주사가 일상생활에 지친 모든 분들의 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 선포식이 이어졌으며 종정 진제스님이 직접 쓴 '붓다로 살자' 휘호가 전달됐으며 오후에는 생전예수재가 봉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기허당 영규 대사 추모재 및 산사음악회



공주 갑사(주지 화봉)는 11월 1일 기허당 영규 대사 순국 422주년을 기념하는 추모재를 봉행했다.

추모재에는 갑사 주지 화봉 스님, 봉곡사 주지 자암 스님, 동불사 주지 각성 스님을 비롯해 조명숙 포교사단장, 오시덕 공주시장, 윤석우 충남도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화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갑사에서 출가한 기허당 영규 스님은 수행자의 몸으로 왜란에 분연히 일어났지만 오늘날 그 업적과 정신이 잊혀지고 있다"며 "영규 스님과 700여 호국의 병들의 숭고한 정신과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는 자리를 봉행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추모재에 이어 홍서범, 유익종밴드, 이태원, 이유진 등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도 열렸다. 노덕현 기자

완주 화암사 괘불, 등록문화재 지정

전북 완주군은 11월 3일 완주 화암사 '괘불도' 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 제625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괘불은 근대기 불화에 수용된 서양화법을 수용해 입체감 있는 표현뿐 아니라 수채화 기법에 가까운 설채법 등을 받아들여 불교 회화적 가치가 크다.

화암사의 극락전과 우화루도 각각 국보와 보물로 등록돼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고을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성보문화재는 우리가 지킨다”

통도사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의 밤 개최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가 ‘제1회 통도사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의 밤’을 11월 1일 영축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청소년 신행단체 통도사 문화재지킴이단의 그간 활동을 선보이는 이 자리는 청소년들이 통도사에서 학습하고 익혀왔던 다양한 활동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축제에서는 난타, 영어로 하는 통도사 소개 등 지킴이단이 평소 통도사에서 익혀왔던 재능을 선보였다. 뿐만 아니라 바이올린 연주, 무용 등 각 개인이 지닌 특기를 선보이는 무대가 펼쳐져 축제의 흥을 더했다. 통도사 포교국장 선본 스님은 “어떠한 일이든 노력이 없으면 결실도 없다. 많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함께 즐기는 즐거운 한마당이 펼쳐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노래와 함께 선보인 수화공연에는 객석에 앉은 사부대중 모두 함께 노래와 율동에 동참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 영어로 통도사 소개에 나선 김경민(김해고 · 16)군은 “통도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 학습할 수 있어서 알차다. 또한,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아가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지킴이단 활동의 장점을 소개했다.

문화재지킴이단은 통도사 문화재를 외국인에게 알리고 인재불사를 위한 청소년 포교에 진력하고자 2008년에 창설됐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

청소년 포교 위해 2008년 창설

불교 · 영어 교리 교육 시작으로

난타 · 요가 · 수화 등 취미 활동도

려 3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불교 교육과 영어교리 등을 중심으로 통도사 경내에서 교육이 이뤄졌던 초창기와 달리 난타, 요가, 수화, 교리 및 영어 교육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입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강주수 춘해대학 교수를 포함한 국제 포교사 등 전문 강사들이 대거 참여해 강의의 질을 높인 것도 인기 비결이다. 또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1년 365일 언제나 자원봉사를 하자'는 뜻의



통도사 문화재 지킴이단의 밤에 참가한 학생들이 난타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1365 자원봉사통합포털(http://www.1365.go.kr)에도 등록해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자원봉사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학생들은 수업 외에도 통도사의 크고 작은 행사 질서 유지, 쓰레기 줍기 등 사중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신행단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매달 둘째 · 넷째 주 일요일에 영축문화회관에서 법회를 포함한 다양한 강의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듣는 아이들 뒤에는 부모와 후원자들의 든든한 지원이 있다. 33명으로 이루어진 문화재지킴이단 후원단체 및 부모들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킴이단 운영에 애정을 쏟고 있다. 특히, 자모들은 아이들을 기다리는 시간을 수화, 난타 등 수업에 동참함으로써 문화재지킴이단을 단순한 청소년 신행단체가 아닌 가족애를 되살리는 훈훈한 단체로 성장시키고 있다.

한편 통도사 문화재지킴이단에 입회하고자 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은 월 1만원의 회비와 함께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부산과 양산 영축문화회관간의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있어 부산에 거주하는 학생도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다. (051)382-1775

김나영 객원기자

“화랑정신, 청년들에게 귀감 되길”

청도운문사 화랑오계비 이전 제막법회

청도 운문사(회주 명성)와 법륜불자교수회(회장 김성규)가 주최한 ‘화랑오계비’ 이전 제막법회가 11월 2일 운문사 대웅전에서 개최됐다.

이날 법회에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주지 일진 스님, 운문사승가대학장 흥륜 스님을 비롯해 법륜불자교수회장 김성규 교수, 팔공총림 동화사 사회국장 지원 스님, 육군3사관학교장 금용백 소장, 청도군 이승율 군수, 육군3사관생도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1994년, 당시 운문사 주지였던 명성 스님이 발원하고, 일중 김충현 선생이 쓴 화랑오계비는 청도군의 건립 지원으로 운문사 입구에 세워졌다. 주지 일진 스님(원광화랑연구소장)은 “운문사가 화랑정신 운동의 중심에 서 있음을 증명하는 불사”라며 ”화랑정신이 청년정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이전 소감을 밝혔다.


청도 운문사는 화랑오계비를 경내로 이전하고 11월 2일 제막법회를 열었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화랑오계비에 새겨진 세속오계는 당시 청년리더였던 화랑들에게 던져진 책임의식을 의미한다. 화랑오계가 21세기 젊은이들의 정신을 반듯하게 세우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귀감이 되었으면 한다”며 바람을 전했다.

법륜불자교수회장 김성규 교수는 “불교 전파의 초기에 보면 인도 아쇼카왕이 전국에 석주를 세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항목을 석주에 새겨 놓았다”면서 “신라 화랑오계가 21세기의 청년들에게도 세상사는 바른 진리를 전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육군3사관학교장 금용백 소장은 “과거 삼국통일의 주역이였던 신라 화랑들이 평소 생활과 수행의 기본 가르침으로 삼았던 화랑오계는 군인정신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평소 마음과 행동을 밝히는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자리하고 있다” 면서 “운문사를 찾는 모든 이에게 원광법사의 크고 바른 가르침을 일깨우고, 화랑오계가 새천년 청년정신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진 제막식에서는 화랑오계비 제막과 21세기의 신화랑 헌화, 화랑오계 제창 등이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미타선원 가족 한마당 축제 개최

10월 31일 사부대중 200여명 참여



미타선원 가족 한마당 공연 장면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10월 31일 ‘제 1회 마음 편한 우리 절 미타선원 가족 한마당’을 개최했다. 행사는 보름참선 법회팀, 지장법회팀, 어린이 청소년 명상센터팀 등 총 13개의 신행팀이 참가했고 스님들의 특별무대 및 합창단의 공연도 마련됐다.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여한 한마음 가족 축제는 8년 간 정기적으로 개최했던 합창단 공연을 발전시켜 미타선원 소속의 각 신행 단체들이 장기자랑 및 공연을 경연방식으로 무대를 꾸몄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미타선원 신도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자발적인 무대로 꾸며진 자리라 의미를 더했다.

주지 하림 스님은 “미타선원이란 집에 한분 한분이 기둥이 되어 지금까지 잘 버티고 발전하고 있다”며 “누구 하나의 미타선원이 아니라 모두가 기둥이 되고 가족이 되는 선원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최우수상은 초하루에 법회를 운영하는 ‘초하루 팀’에게 돌아갔다. 부상으로는 ‘주지스님과 함께 하는 가을 여행’ 상품이 주어졌다.

하성미 기자

부산 대불련 모임 새로운 도약 다짐

부산대 · 동아대 등 7개대 매월 법회 봉행 계획

대불련 부산지부(회장 임종윤)가 10월 31일 미타선원에서 부산 불교 대학생들의 모임을 재계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대, 해양대, 동아대, 동부산대, 부경대, 동의대, 동의과학대 등 대불련 부산 지부 7개 대학 학생 4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부경대 교수불자 회장 박영병 교수, 동부산 대 권정민 교수도 참가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교수 불자회 회장 박영병 교수는 “과거 대불련의 영향력은 아주 커서 많은 불교 인재를 양성하는 좋은 모임이었는데 10년 전부터 각 대학에 불교 동아리도 사라지고 활동들이 미미해졌다”며 “앞으로 활동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종윤 대불련 부산지부 회장은 “각 지회 별로 학생들이 활동은 하고 있었는데 다 같이 모인 건 처음”이라며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포교에 힘쓰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대불련 부산지부가 다시 모이게 된 계기는 교수 불자회의 4년간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중앙회에서 지원받던 교수 불자회의 지원금들을 각 학교의 학생들에게 보시하고 학생들의 불교 동아리 활동 및 모임을 위해 지원 해왔던 것이다.

대불련 부산지부는 앞으로 매달 마지막 금요일 오후 6시 미타선원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불교 공부 및 친목을 다질 예정이다. 또한 방학 중에는 티베트, 라오스, 미얀마 등을 방문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힐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불교인권단체 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울산 붓다 금선선원서 지방투어 첫 기자회견


불교인권단체 울산 기자회견 장면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는 울산 붓다 금선선원 임시법당에서 10월 3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불교평화연대 도성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 스리랑카 사다나 스님 등 불교인권 단체스님들이 참석했다.

불교인권단체 관련 스님들이 금강산 관광재개를 촉구하는 지방투어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국불교선조계종 창종1주년 기념법회

사단법인 한국불교선조계종(종정 지선 · 총무원장 법성)은 10월 31일 대구 총무원 성불사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종정 지선 스님, 명예종정 혜원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법성 스님은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서 승가가 화합하고 단결해야 할것”이라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혜원정사 원허 스님 출판기념 법회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 출판 기념법회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의 신간 〈세상을 물들이는 멋진 아침〉 출판기념 법회가 11월 3일 국제신문 중강당에서 개최됐다.

〈세상을 물들이는 멋진 아침〉은 매일 새벽 SNS 소통의 공간 ‘원허스님의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밴드를 통해 전해졌던 글을 모아 엮은 책이다.

원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하루의 시작을 부처님 말씀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발심하게 되었다”며 “이슬에 옷 젖듯이 부처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물들이고 부처님을 닮아가고 세상을 부처님 말씀으로 물들여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회에는 이해동 시의회 의장, 주석수 구의회 의장 및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하성미 기자

저출산 고령화 사회, 국가경쟁력 위기의 시대에 국가적 인재를 길러내는 영재태교법

어떤 태교법보다 우수한 ‘관음태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이를 ‘관음태교’로 낳아 기르자!


▲관음태교로 출생한 아이를 소개하는 자재만현 큰스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 아이를 낳아 기르기가 힘든 한국사회

세계평균출산율 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19명(2012년 기준)인 우리나라의 가장 낮은 출산율은 한국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가 힘든 나라임을 말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육아(育兒)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 중 가장 큰 부분이 아이의 교육비입니다. OECD 국가중에서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교육비를 가정이 부담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또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고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현대사회에서 출산이 아이의 밝은 미래와 가족의 행복을 장담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 국가경쟁력이 저하되는 사회적 · 국가적 위기

이 저출산율이 사회적·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저출산은 당연히 고령화 사회를 만들어 생산활동인구를 급격히 감소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게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옥스포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 교수)이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제 아이의 출산문제에 대해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관음태교 – 저출산 사회에서 우수한 양질의 인재를 길러내는 태교법

이런 사회적 국가적 현실 속에서 관음태교는 산모의 행복한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와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며 국가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지금 이 시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태교법 입니다. 태아를 출산할 때 예비부모가 가장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 점이 사교육비 입니다. 그러나 관음태교는 지혜 총명한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에 부모가 부담해야 할 사교육비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관음태교는 자칫 말썽꾸러기나 비행청소년이 될 여지가 많은 현재의 사회·교육 환경 속에서도 심성이 착한 인재가 태어나기 때문에 아이로 인해 부모가 담당해야 할 교육적 정신적 부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음태교는 소수의 자녀지만 각박한 현대사회에서도 바른 심성과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성공한 삶을 영위하는 국가적 인재를 길러냅니다.

총명하고 심성이 바른 영재를 길러내는 전인적 태교법

태교(胎教)는 출산 후의 평생교육보다 더 중요합니다. 관음태교는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부모와 선연(善緣)의 태아를 점지받고 또 태아의 업장을 소멸시켜서 심성이 바르고 지혜 총명한 아이를 낳게 합니다. 또 태어난 후에도 관세음 보살님 염불을 계속함으로써 영유아교육 과정에서도 아이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보호 속에 자랄 수 있습니다. 관음태교는 아이의 밝은 미래와 가족의 행복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태교법입니다.

관음태교의 방법

첫째, 관세음보살님께 3배하고, 귀의·참회하면서 주소·생년·이름을 고합니다.

둘째, 〈관세음보살보문품〉을 1독하고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를 5, 15, 32회 독송합니다.

셋째, 간절한 마음으로 태교발원을 합니다. 결혼 전에는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잉태 전에는 훌륭한 아이 잉태를, 잉태 후에는 태아의 업장소멸과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기를 발원합니다.

넷째,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간절하게 소리내어 10~30분 정도 부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면 좋으며, 잉태 후에는 태담(胎談)태교를 병행합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아와의 대화를 통해 엄마·아빠의 사랑을 전해주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어머니의 거듭된 확신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함부로 낙태(落胎) 하지 말아야 하고 5계10선을 지켜야

관음태교를 하면서 가장 주의할 점은 살생, 도둑질, 거짓말, 사음, 음주(술 외에도 담배·마약 등)를 하지 말라는 재가불자의 5계(戒)를 반드시 지키고, 10선(善)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전에 임신 계획을 잘 세워서 낙태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낙태는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고 낙태아와 원결(怨結)을 맺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연분만을 하고 모유를 먹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도 염불을 계속하도록 합니다.

불자라면 모두 관음태교로 아이를낳아야

불자 여러분! 관음태교는 훌륭한 심성을 가진 총명 유능한 국가적 인재를 길러내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불교 고유의 염불태교 법입니다.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아이의 행복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관세음보살님께서 부촉하신 관음태교로 소중한 내 아이를 낳아 기르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관음태교 체험사례 발표


관음태교 교육생들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안내

•현지사 대전분원 정기법회(253회)
•11월 16일 (일), 오전 9시 30분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 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운행됩니다.

문의 춘천본사 033)243-1787,1795
대전분원 042)052-505325

영산불교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033-243-1787

단풍 옷 입은 秋甲寺서 일상 견딜 힘 얻다

단풍이 아름다운 사찰을 찾아서

② 공주 갑사



갑사는 '으뜸 甲' 자를 쓸만큼 삼국시대의 중요사찰중 하나였다. 추갑사라는 명성에 걸맞게 해마다 11월초 가을이면 주변이 오색단풍으로 곱게 물들며 장관을 연출한다.

1975년서 1983년까지 국어교과서에 실렸던 수필, 이상보님의 '갑사로 가는 길'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갑사의 11월 초순은 단풍이 절정이다. 추갑사(秋甲寺)란 말이 그냥 나온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홀하다.

충남 공주시 계룡면 연천봉 아래 위치한 갑사는 계룡산국립공원 내 아홉 개 계곡 중 경치가 가장 빼어난 곳으로 유명하다. 공주에서 19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동학사에서 도보로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다.

갑사는 '으뜸 甲(갑)' 자를 쓸 만큼 삼국시대의 중요 사찰 중 하나였다. 창건 시기는 4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시대 초기 백제 구이신왕 원년에 고구려서 온 아도화상이 창건했다. 통일신라 때는 의상대사가 중수하면서 신라 화엄십찰 중 하나로 꼽혔다. 그 명성은 '억불정책' 의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세종 때와 선조, 영조 때 중건돼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갑사에는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보물도 많다. 우리나라 현존 유일의 철당간과 지주는 중요문화재로 보물 제256호. 역사교과서에도 실리는 갑사부도는 고려시대 부도 중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갑사에는 옛 한글의 중요한 연구자료인 월인석보 판본이 보전되고 있다. 월인석보는 세종 때 지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과 세조 때 지은 '석보상절(釋譜詳節)' 을 합편한 것으로, 세조가 왕세자 도원군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책이다. 이 밖에도 대웅전과 대적전, 석조약사여래입상 등 대부분의 유물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계룡갑사(鷄龍甲寺)'라는 현판이 걸린 '갑사강당(甲寺講堂)'이 보인다. 현판 한 쪽에는 '정해중추절도사 홍재의서'라는 낙관이 찍혀 있다. 전체적으로 기교를 부리지 않은 조선시대 후기의 웅장한 건축물인 갑사강당은 해탈문과 대웅전 사이에 위치한다.

이곳은 승려들이 법문을 강론하던 건물로, 정유재란(1597)때 불타 없어진 것을 다시 지었다고 한다. 앞면 3칸, 옆면 3칸의 규모이며 지붕의 옆선이 사람인(人)자 모양인 단순한 맞배지붕집이다. 단청은 완전히 퇴색되어 무늬의 흔적만 남았고, 문짝은 많이 변형돼 원래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돌계단을

고구려서 온 아도화상이 창건한 삼국 사찰
삼신불괘불탱, 부도 등 국보 및 보물 다수
월인석보판본도 보존…한글 연구 중요 자료
매년 영규대사 및 호국의승 기리는 추모재

올라가니 왼편으로는 진해당이, 정면에는 본당인 대웅전이 나타났다. 대웅전에는 삼불 사보살이 모셔져 있고, 그 뒤로 돌아가니 삼성각이 있다.

신발을 벗고 삼신불괘불탱(국보 298호)을 보기위해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대웅전은 한창 불사중이었고 삼신불괘불탱은 아쉽게 사진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다.

이 괘불탱은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석가모니와 노사나불 등 삼신불이 진리를 설법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괘불이다. 괘불은 절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행하기 위해 법당 앞뜰에 걸어놓고 예배 드리던 대형 그림을 말한다. 이어 동종(보물 478호)과 대적전, 표충원 등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현재는 작은 규모로 축소 복원된 대적전은 원래 화엄고찰의 하나로 위용을 과시하던 중심전각이었다고 한다. 또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격퇴한 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표충원 사당에는 서산대사 휴정, 사명대사 유정, 기허당 영규대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었다.

그래서 갑사에서는 해마다 영규대사 및 호국의승의 넋을 기리는 추모재와 산사음악회를 가을에 연다. 올해는 11월 1일 열렸다.

공주 갑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국보 298호인 삼신불 괘불탱



어디나 갑사의 가을은 단풍때문에 울긋불긋 곱기 그지없다.



남녀의 애틋한 전설이 서린 '남매탑'

색을 이겨낸 도행의 기념탑… 참배객에게 '인기'

'색을 이겨낸 도행의 기념탑' 으로 상징되는 이 탑은 수도와 색욕의 간극에서 고뇌하다 도를 이룬 남녀의 애틋한 전설이 서려 있는 곳이다.

"눈은 그칠 줄 모르고, 탑에 얽힌 남매의 지순한 사랑도 끝이 없어, 탑신에 손을 얹으니 천 년 뒤에 오히려 뜨거운 열기가 스며드는구나."

한 스님이 위기에 처한 호랑이를 구해 주었더니, 그 호랑이가 보은의 뜻으로 속세의 한 처녀를 그 스님에게 물고 왔고, 이를 인연으로 스님과 처녀는 남매의 연을 맺어 불도(佛道)를 행하여 한평생을 마쳤다는 얘기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들 남매의 지순한 사랑을 기리기 위해 탑을 세웠다는 것. 7층 오라버니탑은 신라시대 탑 양식을 계승했고, 아담한 5층 누이탑은 지붕돌 끝이 살짝 들려진 백제 양식이다. 보물 1284~5호로 나란히 지정됐다.

남매 지순한 사랑 기리기 위해 탑조성
오빠탑은 신라, 누이탑은 백제의 양식

여행수첩

◆ 숙박&맛집

계룡산 주변엔 숙박시설이 넘쳐난다. 특히 동학사지구엔 계룡산장(042-825-4019), 금수산장(042-825-4358), 계룡산민박(042-825-7643), 동학민박(042-825-2991), 계룡산스타민박(042-825-4700) 등 여관과 민박집이 밀집해있어 숙박엔 큰 어려움이 없다.

갑사 입구엔 산채비빔밥, 해물파전, 도토리묵 등을 차리는 식당이 많다. 그중 서울식당과 수정식당이 대표적이다.

◆ 교통

경부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유성 나들목(좌회전)→500m→32번 국도(공주, 계룡산 방면)→7km→박정자 삼거리(좌회전)→3.5km→주차장〈수도권 기준 2시간30분 소요〉

◆ 참조

계룡산국립공원 사무소 042-825-3002~3, 갑사 분소 041-857-5178, 갑사 041-857-8981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아까(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의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및 인간방생에 많은일을 하신 성스런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푼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종 정 목탁혜은 부 종 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기획원장 법성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 원 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종회의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자명, 휴암, 종암, 금산, 여송,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송운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 011-229-6061

탑의 진화
㉒ 일본의 불탑(2)

'살생' 참회 위해 보협인다라니경 봉안

지난 호에는 일본의 다중탑, 다층탑, 보탑, 다보탑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는 보협인탑, 오륜탑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5) 보협인탑(寶ㅛ手印塔)

'보협인탑' 은 탑 안에 〈보협인다라니경〉을 봉안한 탑을 말하며, 중국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해졌다는 문헌상의 기록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1기만 전해지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전시대를 거쳐 가장 많이 조성된 불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사찰에서는 크고 작은 여러 형태의 보협인탑을 쉽게 친견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협인탑의 유래는 중국 오월국(吳越國)의 마지막 왕이었던 전홍숙(錢弘)에 의해서 조성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전홍숙은 오대시기 십국의 하나인 오월국의 마지막 왕으로, 자는 고명(高明)이고 시호(諡號)는 충의왕(忠懿王)이며 항주(杭州)사람이다. 동생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전홍숙은 오월국을 송나라에 바치고 회해국왕으로 임명받고 여생을 편히 살다가 송 태종 단공(端拱) 2년(989)에 세상을 떠난다.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관군을 통솔하는 대장으로서 황소의 난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전한다. 특히, 954년 반란군들과의 마지막 전투에서는 적들이 강물에 뛰어들어 도망가는데, 이들을 죽이거나 생포한자가 너무 많아 강물이 멈출 지경이었다. 이 공덕으로 오월왕에 봉(封)해 졌지만, 전홍숙은 많은 사람을 죽인것 때문에 밤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으며, 마침내 병을 얻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이때, 한 스님이 전홍숙에게 "불탑을 만들고, 탑 안에 보협인다라니를 봉안하고 정성이 담긴 향과 꽃으로 공양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일러주었다. 이에 전홍숙은 인도 아쇼카왕의 8만4천탑 조성 불사를 생각하며, 전국에 8만4천탑을 조성하여 〈보협인다라니경〉을 탑 안에 봉안하였다.

원래 〈보협인다라니경〉은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다라니경〉으로 밀교계통의 경전이다. 보협이란 '보배를 담은 좁은 상자라는 의미' 인데 그 상자에 모든 부처님의 전신사리를 의미하는 다라니를 모셔서 탑을 조성한 것이다. 이것은 무구정광대다라니와 더불어 전형적인 불탑신앙의 근거가 되는 경전이기도하다. 이 경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무구묘광' 이라는 브라만이 있었는데, 그의 집에 초청을 받아 길을 걷던 부처님께서 가시덤불과 잡초로 덮인 오래된 탑 앞을 지나시게 되었다. 걸음을 멈추신 부처님께서는 허물어진 탑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도셨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는 가사를 벗어 그 탑을 덮으셨고 그리고는 매우 슬피 우셨다가 다시 웃으셨다. 그 행동이 의아해서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이 큰 전신사리는 여래보탑을 모은 것으로, 깨알처럼 많은 백천겁의 여래전신사리의 모둠이며, 또한 팔만사천법문이 이 탑 안에 있느니라. 이런 신묘한 까닭에 이 탑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신령스런 영험과 뛰어난 위덕이 있고, 일체 세간에 경사가 가득 차게 할 수 있느니라....(중략)....후세에 나의 제자들이 이 경을 쓰고 베끼면 99백천만겁의 여래께서 설하신 일체경전을 쓰고 베낀 것과 같아서 99백천만겁의 부처님 전에 선근을 심은 것이며, 그 모든 일체의 여래께서 마치 눈을 보호하는 것과 자비로운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보호하는 것과 같으니라. 어떤 이가 이 경을 한 번 읽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을 읽은 것과 같으며....(중략)....

내가 열반하고 후세 말법시대가 되면, 중생들이 악한 짓을 하여 지옥에 떨어지고, 삼보를 비방하며, 불법은 숨게 된다. 이 까닭에 내가 오늘 눈물을 흘리는 것이며, 저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모두 눈물을 흘리느니라. 그러나 이 탑은 오히려 더욱 견고하여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된다. 어떤 중생이 이 탑에 향 하나, 꽃 한 송이로 예배 공양한다면, 80억겁의 생사중죄가 일시 소멸될 것이며 살아서는 재앙을 면하고 죽어서는 극락에 태어난다. 아비지옥에 마땅히 떨어질지라도 이 탑에 한번이라도 예배하고 한번이라도 돌면 지옥문이 닫히며 보리도가 열리리라....(하략)

〈대정신수대장경 19권 710쪽 상단〉

이처럼 〈보협인다라니경〉을 봉안한 탑을 한 번만 예경하면 수십억겁의 중죄가 소멸되어 극락에 태어난다는데 어느 누가 이를 마다하겠는가? 전홍숙은 왕위에 올라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찰을 창건하고 보협인탑 등을 조성하는 등 불사를 통해 불법의 위신력을 얻어 살생을 많이 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나아가 국가를 보호하는 한편 스스로를 아쇼카왕과 같은 전륜성왕으로 자처하고자 8만4천의 보협인탑을 조성한 것이다.

이러한 보협인탑은 재료에 있어서는 금속과 석재로 나누어지며, 구조를 보면 기단부에 4분의 여래상이 있으며, 탑신에는 모두 본생도(本生圖)를 표현하였다. 네 개의 모서리 장식은 일반적으로 2단으로 구분되어 불전도(佛傳圖)를 나타내고 있으며, 상륜(相輪)이라는 탑상부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일한 보협인탑〈사진1〉이 현재 국보 제 209호로 지정되어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원래는 충남 천안시 북면 대평리 탑골 계곡에 '구룡사(九龍寺)' 라고 부르는 절터에서 무너져 있던 것을 옮겨온 것이다. 복원된 탑의 현재 모습은 5개의 돌만 남아 있어 완전한 형태는 아니다. 이 탑에 대한 구체적인 사연은 후일을 기약하고자 한다. 일본에서의 석조보협인탑은 화강암이나 안산암 등의 석재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형식은 중국의 전탑과 우리나라 석탑의 건축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조성 년대가 확실한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259년에 조성된 높이 205cm의 여산왕생원(輿山往生院)〈사진2〉의 보협인탑을 위시하여, 1260년의 액안사(額安寺)〈사진3〉, 1263년의 관음원(1音院)〈사진4〉, 1279년의 약사사(藥師寺)〈사진5〉 등은 모두 나라현에 있는 같은 시대의 보협인석탑이다.

일본의 역사에서 약 150년간 지속 된 무사정권시기인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에 조성 된 보협인석탑은 현재 까지 수 백기 이상이 일본 전역에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불탑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막부의 명을 받아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는 살생 등 악업은 계속 행하게 되며, 이를 참회하고 극복하기에는 현세이익적인 '보협인다라니경' 의 신앙은 그 어느 경전보다도 위안이 되었으며, 보협인탑의 조성이 유행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탑을 조성하는데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적인 측면도 크게 작용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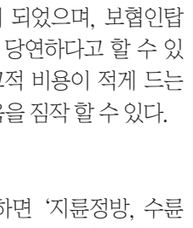
(6) 오륜탑(五輪塔)

〈대일경소(大日經疏)〉에 의하면 '지륜정방, 수륜원, 화륜삼각, 풍륜반월형, 최상허공작일점(地輪正方 水輪圓 火輪三角 風輪半月形 最上虛空作一點)이란 내용이 있다. 즉, 지륜은 사각형, 수륜은 동그라미, 화륜은 삼각형, 풍륜은 반달형, 제일 위의 허공륜은 한 점을 찍음이라!' 이것은 불교의 우주관을 상징적으로 표현 한 오륜탑의 구조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우주의 구성요소인 오대를 상징하는 오륜탑은 하부에 땅을 의미하는 사각형의 지륜, 그 위에 물을 상징하는 원형의 수륜, 불을 상징하는 삼각형의 화륜, 바람을 상징하는 반월형의 풍륜, 제일 위에는 공을 상징하는 여의주 형태의 공륜이 있는 5층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부위에는 범어로, 땅, 물, 불, 바람, 공(空)이라고 음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의 오륜탑은 헤이안시대(794~1185) 부터 조성되어 오늘에 이르기 까지 꾸준히 조성되고 있으며, 보협인탑과 비교하여도 수량으로는 우열을 가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다.

절대 편년을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오래된 오륜탑은 1169년에 조성된 암수현(岩手県) 석존원(尊院) 오륜탑〈사진6〉을 비롯하여 1170년의 대분현(大分県)의 중미(中尾) 오륜탑〈사진7〉과 나라현의 당마묵묘(麻北墓)〈사진8〉, 교토의 법계사(法界寺)〈사진9〉오륜탑 등은 모두 헤이안시대에 조성된 오륜탑이다. 특히 나라현에 있는 액안사 오륜탑군(五輪塔群)〈사진10〉은 가마쿠라시대에 화강암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높이는 111~281cm로 다양하여 마치 중국의 탑림과 우리나라의 승탑군을 연상하게 한다. 실제로 일본에서의 오륜탑은 승탑의 용도뿐만 아니라 재가불자의 분묘의 용도로도 조성되고 있다.



글 · 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사진1〉

우리나라의 유일한 보협인탑(동국대 박물관)

〈사진2〉

여산왕생원보협인탑

〈사진3〉

액안사보협인탑

〈사진4〉

관음원보협인탑

〈사진5〉

약사사보협인탑

〈사진6〉

석존원오륜탑 높이 158cm

〈사진7〉

중미오륜탑 높이 151cm

〈사진8〉

당마북묘오륜탑.높이 245cm

〈사진9〉

법계사 오륜탑

〈사진10〉

액안사 오륜탑군

보협인탑…〈보협인다라니경〉 봉안한 탑

〈무구정광~〉과 같은 불탑신앙 경전

中 오월국 왕 전홍숙이 시작해 韓·日로

관군 때 행한 살생 참회 위해 조성 시작

日 무사정권(가마쿠라시대)때 많이 조성

중국의 전탑과 한국 석탑에서 영향 받아

오륜탑… 우주의 구성요소 '5대' 상징

헤이안 시대(794~1185)부터 조성


보타락가사에 봉안된 지장보살상.

기도성지 보타락가사로 생전예수재 올리러 오세요

보타락가사는 용왕재나 방생에 적합한 최고의 도량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보타락가사가 접해 있는 바다 전면에는 금실 좋은 부부 두꺼비 바위가 있어 자손번성을 상징하며, 그 옆으로는 복(福) 두꺼비 바위가 선생님처럼 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 대학 입시생들의 합격발원 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대웅전 위로 관세음보살님의 원만상이 매일 정오에 10분간 출현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에 오시는 분마다 환희심에 가득 차 법열을 안고 돌아갑니다.

지금까지는 용왕재를 지내려 해도 넓은 기도터가 있는 사찰이 없어서 크게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관음성지 보타락가사가 완공돼 불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6일 (윤 9월 24일)에는
보타락가사에서 생전 예수재를 봉행합니다.
예수재에 동참하실 사찰은 연락 주십시오.

◉ 주 소 : 충남 태안군 원북면 청산리 253-4 보타락가사
전화 041)672-1550, 010-3723-0695 (원주보살)
◉ 문 의 : 회주 법진스님 010-8947-6142


보타락가사 앞 바다의 '선생님 복(福) 두꺼비 바위'.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는듯한 형상이다.


와불님이 모셔져 있는 적멸보궁.

화엄의 꽃 절집 천정

〈17〉 태백산 부석사 무량수전

서까래 드러낸 간결한 아름다움



부석사 무량수전 내부. 아미타부처께서 열주 너머의 깊이에 독존으로 계시고, 천정은 가구부재가 노출된 연등천정이다.

지형과 교리체계 수용한 건축

부석사 가람은 하나의 완결된 통일성의 유기체에 가깝다. 지형과 건축, 불교교리, 신화적 서사의 맥락들이 긴밀하게 이어지고 통합되어 있다. 마치 극중 플롯의 상황에 맞게 잘 짜여진 무대장치 같다. 부석사 가람경영에서 무엇보다 탁월한 요소는 입지선정이다. 수준 높은 안목으로 지형해석을 풀어내고, 그 위에 화엄의 교리와 극락정토 구품세계를 대담하게 구현했다. 국토의 등뼈 백두대간이 태백산에서 몸을 비틀어 서남으로 아스라이 내달리는 소백산의 연봉들, 비로봉, 연화봉, 도솔봉 등 첩첩산산 봉우리들을 무한히 확장된 마당의 뜨락으로 담대히 경영한 기막힌 점지다. 그것은 화엄학의 교리가 수준 높은 건축적 안목과 결합하여 적극적으로 지형해석되고 교리적 건축체계로 재해석된 결과이다.

부석사 가람경영에 구현된 불교교리는 〈60화엄경〉의 7처 8회 34품에 따른 '십지론(十地論)', 혹은 〈관무량수경〉에 바탕을 둔 구품화생 극락정토사상으로 해석한다. 화엄경의 세계는 비로자나불의 연화장세계이고, 무량수경 등 정토신앙은 아미타여래, 곧 무량수불의 극락정토세계다. 연화장세계는 범종루 축선이 아스라이 이어져 소백산맥의 비로봉, 연화봉으로 향하고, 아미타여래 극락정토는 안양루 축선이 광대무변으로 뻗어나가 도솔봉에 상응해서 지형체계와 교리체계가 거시적으로 통일을 이루고 있다. 통찰지의 안목에 의해 소백산맥 산봉우리들의 중첩과 연속, 광대한 서사적 파노라마가 장대한 스케일로 무량수전의 텅빈 마당이 되었다. 참으로 놀랍고도 대담한 발상이다.

석단과 계단의 중첩, 반복

경사진 산지지형을 기승전결로 경영해 나간 건축장치들의 조영과 배치들도 대단히 창조적이며 탁월하다. 석단과 계단의 중첩, 반복, 굴절 등을 통해 수직, 수평, 사선 이동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긴장과 호흡을 조이고 푸는 율동이 아주 리드미컬하고, 시의적절하다. 계단을 오르게 하고 평지에서 숨을 돌리게 한다. 사람의 호흡과 걸음의 다리쉼을 고려한 휴머니즘의 맥락이 읽혀진다. 게다가 틈틈이 건축 프레임의 다양한 변주를 통해 부지불식간에 공간을 열고 좁혀둔다. 프레임 너머 공간에 대한 심리적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해서 자연스러운 동선으로 유도하는 대목은 극적인 연출에 가깝다. 사람의 감정과 심리를 고양시키며 맺고 푸는 방식이 가야금 산조가락처럼 리듬을 갖추고 있어 탄복이 거듭된다. 그러다 문득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길은 온데 간데 없고 첩첩이 이어진 소백산맥의 능선들이 광대하게 펼쳐져 환희지를 연출한다. 무량수전으로 오르는 길이 한껏 고양되고 종교적 신심은 한껏 부풀러진다. 예배자의 걸음을 가파른 경사길을 끌어 올리고, 추동하는 지형해석 및 응용능력이 감탄할만 하다. 자연, 종교, 건축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전지적 가람경영능력은 무량수전에서 폭발한다. 자연과 교리를 일체화한 거시적 안목에서 건축가구의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미학적 완결성을 두루 구현하고 있다. 무량수전의 뜨락은 모든 공간해석의 귀납적 귀결점으로 운영된다.

가람경영에 화엄경 십지론 반영
자연과 교리 일체화한 거시적 안목
이중섭의 황소, 추사체 힘 느껴져
천정부재에 산조 고저장단 운률

간결한 벽체에 비례의 조화로움

무량수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고려 중기 건물이다. 묵직하고 두터운 중후함에서 깊은 신뢰를 갖게 한다. 일찍이 최순우 선생은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서서 사무치는 고마움으로 이 아름다움을 자문자답하면서 "기둥 높이와 굵기, 사뿐히 고개를 든 지붕 추녀의 곡선과 그 기둥이 주는 조화, 간결하면서도 역학적인 기능에 충실한 주심포의 아름다움, 이것은 꼭 갖출 것만을 갖춘 필요미이며 문창살 하나 문지방 하나에도 나타나 있는 비례의 상쾌함이 이를 데가 없다. 멀찍이서 바라봐도 가까이 쓰다듬어 봐도 무량수전은 의젓하고 너그러운 자태이며 근시안적인 신경질이나 거드름이 없다."는 아름다운 문장을 헌사했다. 무량수전은 뼈대의 건축이다. 가구식 결구의 역학적 구성을 그대로 노출해서 목조건축의 구조적 아름다움이 진솔하게 드러난다. 고전주의적 가식없는 직선의 뼈대에서 윤리적인 아름다움이 빛난다. 나무의 결에는 시간의 펄이 두터이 퇴적되어 있다. 빛 바랜 황톳빛 벽체 색감은 더없이 소박하고 정겹다. 36.5도의 따스한 체온과 살아 있는 유기체의 생명이 느껴진다. 뼈대의 선에는 힘과 에너지가 흐르고, 간결한 평면의 벽체에선 비례의 조화로움이 녹아들며 고향 흙담장의 온유한 서정이 고요히 흐른다.

배흘림, 귀솟음, 안쏠림, 안허리곡

화엄학파들은 부석사 무량수전에 화엄십찰의 종찰다운 위상으로 당대의 전통 목조건축 조영법식을 집대성하다시피 하였다. 벽체의 기둥에는 엔타르시스 기법의 배흘림 기둥이 유려하고, 네 모서리 기둥을 조금씩 높여나간 귀솟음이 날렵하며, 안쪽으로 기둥을 기울인 안쏠림 기법으로 하중에 의해 기둥이 바깥으로 퍼지는 듯한 시선의 왜곡을 교정했다. 또한 벽체평면을 안으로 약간 휘게 하는 안허리곡으로 우아한 곡선의 율동미를 살렸다. 그같은 기술들은 힘을 안전하게 다루는 경험론적 통찰지이며, 구조의 안정성과 미학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한 고급장치들이 아닐 수 없다.

무량수전은 관계의 짜임이 결집된 전통 목조건축이다. 전통 목조건축의 짜임은 대동의 역학적 구조다. 내부공간은 목조건축의 물리적 구조체계와 유기적인 시스템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천정의 양식도 목재들이 그대로 노출된 연등천정이다. 기둥과 대들보, 도리, 서까래, 대공 등 내부는 다듬어진 나무들의 숲이자 연대이다. 수직과 수평, 사선이 중첩하는 중중무진의 세계다. 직선의 뼈대들이 간결하고 정연한 집합을 이루며 전기적 회로장치처럼 힘을 분산시키고 하중을 실어 나른다. 특히 내부에 일렬로 이어지는 고주(高柱)의 행렬은 고딕성당의 내부처럼 열주의 수직행렬이 공간의 엄숙함과 깊이를 자아낸다. 단지 고딕의 열주들이 이차곡선이라면 무량수전의 내부기둥은 일차직선이다. 그 기둥은 본질적으로 신성이 흐르는 생명의 나무이면서 보배나무이고 우주목이다. 왜냐하면 내부공간은 아미타여래를 친견하는 극락정토인 까닭이다. 열주들은 동시에 아미타부처께서 계신 곳으로 강한 방향성을 암시한다. 열주의 긴 흐름이 이어지는 동서방향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세로 기둥의 프레임 속에 강한 집중성과 거룩함의 깊이, 그리고 장엄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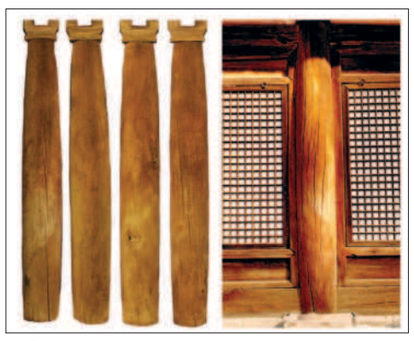
종보, 서까래 노출된 연등천정

천정구조는 지붕의 보와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된 수평과 수직, 사선의 중첩구조다. 칸딘스키는 〈점, 선, 면〉에서 수평선은 차고 무한한 움직임의 가능성 중에서 가장 간결한 형태이고, 수직선은 따뜻하고 무한한 움직임의 가능성 중에서, 사선의 대각선은 차고 따뜻하며 무한한 움직임의 가능성 중에서 가장 간결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가장 간결한 선 형태가 결집되어 건축의 역학적 기능은 물론이고, 단순함의 미감과 윤리적인 검박함을 두루 선사하니 물리지 않는 눈길이 가고 또 간다. 천정부재의 길이, 굵기, 무게감에 다채로운 변화와 강약의 엑센트를 준 것이 인상적이다. 길고 짧고 굵고 가는 것이 엮이고 결구되는 모양에서 산조가락처럼 고저장단의 운률이 느껴지고, 악보에서 피아니시모에서 포르티시모에 이르는 강약의 흐름도 읽혀진다. 뼈대 그 자체가 하나의 콤포지션을 이루어 거대한 설치예술을 대하는 것 같은 기막힌 선들의 향연이다. 어찌보면 고구려 고분벽화 〈무용총〉의 사냥그림에서 몇 개의 율동적인 선으로 산천의 명산을 표현한 조형원리도 연상되고, 이중섭의 1953~1954년 사이의 일련의 황소 그림에서 나타나는 골격의 힘도 떠오르는가 하면, 김정희선생의 말년 득의작 추사체 글씨체도 겹쳐진다. 우물천정이 채색화의 평면회화라면, 연등천정은 절제된 선의 획에 운용의 묘법을 풀어낸 서예에 비유될 것이다. 질서정연하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학의 선들이 일반적인 천정의 평면을 훌륭히 대신하고 있는데, 그 역시 빙켈만이 말한 고전주의적 '고귀한 단순' 일 것이다. 그것은 마치 에펠탑이나 철골 구조물에서 평면이 사라진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그 단순한 뼈대의 흐름에 다포를 치밀하게 짜올린 중중무진의 꾐자형 닫집을 경영했다. 고주의 열(列)과 닫집에 의해 공간의 모듈은 보다 분명히 구획되었고, 거룩함의 위계는 보다 강화 되었다. 우리의 시선은 아미타부처님께 머문다. 아미타부처께선 협시보살 없이 독존으로 계신다. 〈원융국사비문〉에 이르기를 아미타불은 일승불로서 열반에 드는 일이 없고, 생멸의 윤회도 없기 때문에 협시불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거룩한 상호와 찬란한 광배에 넘치는 대체될 수 없는 숭고한 아우라가 참배객을 압도한다. 에너르기 0인 적멸의 공간에 고요한 빛이 계신다. 하루만이라도 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극락의 연꽃에 태어날 것이다. 일본 지온인 소장 〈관경16관변상도〉에서 말한다. '수행이 적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고 말하지 말라. 만 개의 횃불도 지푸라기 불에서 나오는 법이니.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배흘림기둥과 창호.



소조 아미타여래좌상(국보 제45호).



무량수전 전경

마하연 투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MAI ★ 미얀마 항공 취항 특가 ★

▶ 만달레이 / 바간/헤호 / 양곤 11월18일 / 11월25일 출발 179만원
특급호텔 사용 – 모든경비 포함
▶ 만달레이 / 바간/양곤 5일 99만원
▶ 만달레이 / 양곤 5일 89만원

– 국적기 직항 KOREAN AIR ASIANA AIRLINES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
▶ 인도 & 네팔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 네팔 7대성지 11일 요금문의
뉴델리 – 바라나시 – 사르나트 – 보드가야 – 나란다 – 라즈기르 – 바이샬리 – 쿠쉬나가르 – 룸비니 – 스라바스티 – 럭나우 – 상카시아 – 아그라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 전통불교 완전일주 8일 요금문의
갈레 – 누와라엘리아 – 담블라 – 벤토타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캔디 – 콜롬보 – 뉴델리 – 폴론나루와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수속대행)

중국 4대불산
▶ 구화산&보타산 (지장도량&관음도량) 6일 요금문의
▶ 보현도량(아미산) 5일 요금문의
▶ 문수도량 6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순례 5일 요금문의
태국 방콕 / 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 씨엠립 5일 요금문의
라오스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요금문의
서유럽 4개국 8일 요금문의
미서부 7일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깨달음은 변하지 않는 '쇠꽃'과 같다

마음씨 타령 ②

경우에 따라서 이 글자 쓸 때가 있고 이 글자 쓸 때가 있고 이 글자를 쓸 때가 있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 성품을 알면은 법을 알아 버려. 마음을 알면은 성품을 알아버려. 법도 알아 버려. 부처를 알면은 마음도 알아버려. 성품도 알아버려, 한문으론 글자 네 개지만 실에 있어서는 한가집니다.

그러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 어즈버야 온 누리는 불가사의라. 사실로 뻔히 육안, 살눈으로 봐서 한계가 많습니다만, 참말로 불가사의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제일 첫째 우리 몸뚱이부터 불가사의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懺습니다만 몸뚱이부터 불가사의입니다. 내 몸이다 해서 그렇지 사실 이거 내 소유물도 아니고 내 관리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만, 조직된 이 이치를 보면 팔다리가 있어. 두 손이 있어. 눈이 있어. 코가 있어. 이거 참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불가사의한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놈이 말이죠 맘대로 이걸 굴려. 손을 들려면 손을 들어. 손 자체가 드는 거 아니거든요. 어디 걸어가고 싶으면 이 발 자체가 걸어가고 싶어서 걸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자리 마음자리 법자리 불자리, 이 자리가 이렇게 걸어가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하니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가사의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머리가 아파서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만. 지금 괜찮아요. 어제 좀 몸이 불편했었는데 병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이놈을 빌어서 무정물을 빌어서 얘기하는데, 이 자리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이 법 자리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마음자리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부처자리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습니다. 아 이거 굉장한 겁니다. 흉악한 겁니다. 이 자리가. 아닌 게 아니라 여기 따라서 우리가 성품은 이렇고 이렇다 법은 이렇고 이렇다 마음은 이렇고 이렇다 부처는 이렇고 이렇다. 이건 깨달은 각자를 뜻하는 건데, 부처라 해도 좋고 깨달은 이, 이래도 좋습니다. 그러하니 이 불가사의한 것을 무엇에 비유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불가사의 한 것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데 별도리 없습니다. 이걸 표현하려면 별도리가 없어요. 천 가지 만 가지 말은 가져와도 이 불가사의한 이 자리를 표현 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의 심성으로 봐서는 지화자 좋을씨고 쇠꽃이랄까. 이걸 갖다 쇠꽃, 꽃은 꽃이라. 쇠는 오래 오래 변하지 않는다 이 의미거든요. 참 좋다 말이죠. 그러하니 이걸 갖다 쇠꽃이라고 할까 이 말입니다. 성품이니 법이니 마음이니 부처니 이런 거 치워 두고, 잠깐 옆에 밀어놓고 이것을 쇠꽃이라고 이름을 지을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름들 하나씩 지어 보세요. 이거 마음씨타령이거든요. 이거 하나씩 지어보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하니 여러분도 지으려면 얼마라도 있습니다. 이 쇠 철자를 놓은 것은 변치 않는다는 것. 보통 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

> **깨달음을 '쇠꽃'에 비유 해볼까요?**
> **쇠 철자는 변하지 않으니 말이죠**
> **여러분 마음마다 이름을 지어보세요**
>
> **없어질 것도 없고 속한 것도 아니고**
> **산하대지 나투고 명암 나투지만**
> **그 자리 공한 자리임을 아세요.**

녁에 떨어지거든요. 하니까 좀 섭섭해, 그러나 떨어지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피어도 피는 것이 아니겠지마는 참말로 말로 표현할 것 같으면은 쇠꽃이랄까. 이 마음은. 그렇다면 성품은 법이고 마음은 부천데, 그럼 성품이니 법이니 마음이니 부처니 이런 말 싹 치워놓고, 그럼 말을 한 번 해 보자 하는데 있어서는 쇠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침에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스님이 마조대사에게 물었어요. 스님, 열반이 무엇입니까? 열반이란 건 원명하여서 고요적적한 자리거든요. 원적한 자리거든요. 그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유위법도 아니고 무위법도 아니거든요. 열반 그 자리가. 그대로 텅 틔어서 산하대지를 나투었다 하더라도 역시 모습으로 나투긴 나퉜지만은 텅 트인 성품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성품자리에서 산하대지를 나툰 것이거든요. 그러하니 그 열반자리를 구하려면 꼭 허공만 걷어잡을 것이 아니라 나무나 돌을 걷어잡아도 나무나 돌 그 자리가 텅 빈 자립니다. 텅 빈 자리에서 그런 형체를 이룬 것인데 그런데 어떤 것이 열반입니까? 이래 물었단 말이지. 급함이니라 이랬어요. 아니, 어떤 것이 열반입니까 물었는데 급한 것이니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택도 없는 말이라 말이에요. 어떤 것이 성품입니까 어떤 것이 법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쇠꽃이니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법성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그야말로 없어질래야 없어질 것도 없고, 있는 데 속한 것도 아니고 없는 데 속한 것도 아니다. 그러하면서 산하대지를 나투고 명암을 나투어. 밝고 어두운 걸 나투어. 선악을 나투어. 범성을 나투어.

그러나 그 자리는 공한 자리다. 이건 대강 아는데. 쇠꽃이라 해도 되거든요. 그 전에 설명을 한 번 했었기 때문에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열반이 무엇입니까. 급함이니라 이러니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 어떤 중이 물었는데 이름도 없어요.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보라. 기가 막히죠? 이거 볼 관(觀)잡니다. 볼 견(見)자가 아니고 이 볼 관자는 지나가면서 쓱 한 번 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관자가. 그러니까 본단 말도 볼 관자 볼 시자 살필 찰(察)자, 많습니다. 볼 관자. 이삼십 가지 될 겁니다. 보는 것이. 그러니 우리말이 좀 모자라요. 볼 관자도 본다. 볼 견자도 본다. 볼 시(示)자도 본다. 똘똘 뭉쳐서 넘어가지만 이 글자 다 다릅니다. 좌우간 어쨌든지 슬쩍 보고 지나가는 걸 갖다가 많이 씁니다. 이전 어른들이. 우리도 역시 그렇게 봐야 되겠죠? 물을 한 번 슬쩍 보라. 열반이 무엇입니까. 급한 겁니다. 택도 아닌 것이거든요. 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보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이전 성현들의 말을 이렇고 이렇다 이런 법이 아닙니다. 또 그리 할 수도 없습니다. 이 급할 급자를 갖다가 내가 설명을 해 놨죠? 하지만 마조대사의 뜻과 내 뜻과 틀려도 괜찮아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세상 자유롭게 보는 눈 '출세간안'

16-1. 사홍서원(四弘誓願)

철학자나 불교인 중에는 엉뚱한 관념론자(觀念論者)가 있어 현실을 부인하고 이를 경시하는 이가 있는데 이런 것은 큰 잘못이다. 우리가 남에게 빚을 얻어 썼으면 그 빚을, 물건을 빌렸으면 그 물건을 돌려주어야 한다. 우리의 경제생활 현실 국가에 있어서의 법률적 행동, 이런 것이 모두 육안의 세계다. 물상학적인 자연 현상이 모두 육안이 관여하는 경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물질의 세계와 원인과 결과가 있는 모든 현상은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윤리 사회에서 저지른 그릇된 일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악의 결과에 대해 형의 양을 매겨 벌을 준다. 나쁜 일 한 사람은 징역을 산다. 국가에서 이런 일, 아니 하면 이를 응징할 도리가 없다. 국가가 정치적으로나 또는 법률적으로나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개인의 행동을 논평하는 것은 육안의 경계에 의거해 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바로 보고 현실문제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으로 따지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

둘째는 천안(天眼)이다. 혹은 심안이라고도 하는데 미(美)와 추(醜)를 가려 볼 줄 아는 눈이다. 정신적인 감각 이를테면 미와 예술을 감상하고 또 이를 만들어 내는 높고 오묘한 안목(眼目)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상상(想像)을 통해 예술을 감상한다. 음악을 듣고 음정의 변화에 따라 기쁨, 슬픔, 울분, 통쾌한 것, 성스러운 것, 소박, 경쾌미 같은 것을 느끼지만 이런 것은 음 자체만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상상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인 것이다.

미술도 마찬가지다. 구상화든지 추상화든지 간에 화면을 통해 질서와 변화와 센세이션을 감득하고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로 날아다니게 한다. 이렇듯 천안으로서 예술을 감상한다.

앞의 육안의 세계는 어디까지나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정량인과적(定量因果的)인 것이지만 천안이 관여하는 예술의 세계, 다시 말하여 그림이나 음악에서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운 상상은 부정량인과적(不定量因果的)인 것이다. 원인과 결과가 꼭 같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철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흰 종이에 묵화를 칠 때 선을 긋고 점을 찍어 줄기와 꽃이 되고 매화가 그려진다. 붓으로 점을 자꾸만 찍거나 채색을 한다고 해서 무한량 해 놓고 보면 그림도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것은 부정량인과적이며, 어떤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이 한계라는 것은 미묘한 예술 감각, 그러니까 천안이 작용하는 것이지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는 혜안(慧眼)이다. 앞의 육안과 천안은 우리가 보통 세간에서 보는 바로서 이러한 관찰을 세간안(世間眼)이라고 한다. 우리의 의식은 세간으로서 사물을 판별한다. 그런데 혜안과 법안(法眼)은 이를 출세간안(出世間眼)이라고 한다. 유한한 상식의 사회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벗어난 진리의 세계에서 해행(解行)하는 것이다.

> **육안과 천안의 관찰은 '세간안'**
> **우리 의식은 세간으로 사물 판별**
> **혜안과 법안은 '출세간안'으로**
> **진리의 세계 해행하는 것이다.**
>
> **현실의 차별 꿰뚫어 보고**
> **참된 것 찾아 바른생활하려면**
> **혜안이 열려 있어야 한다**
>
> **이렇게 되면 아집 부셔버리고**
> **자유로운 생각 하게 되어**
> **참된 평등관을 갖게 된다**

바른 인식으로써 하나와 다른 것을 식별하고, 판별하고 선택하는 행위의 주체적인 안목이다. 그러므로 세간안이 현실의 차별을 꿰뚫어 보고, 참된 것을 찾아내어, 바른 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이 혜안이 열려야 한다.

혜안이 한번 열린다고 하면 나라 하는 것이나 내 것이라고 하는 아집(我執)에 옹색하게 붙들린 지경에서 활짝 티어 곡견(曲見)을 부셔 버리고 평등한 처지에서 자유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 대사회(大社會)의 같은 한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다.

누구나 다 같이 원인을 구성하는 한 인자(因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나 남이나 다 이와 같이 왔구나 하는 참된 인식을 얻어 평등관(平等觀)을 갖게 된다.

넷째는 법안(法眼)이다. 참된 인식이라든지 진리에서 볼 때 평등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결코 술에 술탄 듯, 물에 물 탄 듯 똑같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평등의 개별적인 공용성(功用性)을 갖고 있다. 벽이나 기둥이나 대들보나, 서까래나, 기와나, 종이나, 문종이나 구두장이나 부엌이나 이와 같은 제가끔 작용하는 그것을 하나하나 다 알아보는 관찰력이 법안이다.

대통령은 제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란 우리의 국가사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한 기관의 자리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으로서 볼 때는 대통령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다. 일하는 것으로 보아도 아무런 다른 것이라곤 없다. 그분은 그런 자리에서 특수한 사무가 있고 우리에게는 각자의 처지에 따라 일반 국민으로서, 제가끔 종사하는 생업의 사명과 독특한 공용성이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불안(佛眼)이다. 이것은 매우 넓고 깊어 부처의 눈이라는 것이다. 불안은 궁극의 막다른 인식이기에 깊은 것이며 또 넓다는 것은 이것이 육안, 천안, 혜안, 법안의 넷을 통틀어 갖추었으며 이들을 자재로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실과 예술 세계와 학문과 또 철학을 연구하는 각자에 딸 벽창호가 되어 담을 쌓고 고립되기 일쑨데 현실을 떠난 예술이나, 철학이 없는 학문이나, 현실을 떠난 철학이란 것이 편벽되고 천박해지고 환상에 병들기 쉬운 것이다. 현대문화의 병은 이렇듯 각자가 전문 의식에 사로잡혀 벽창호가 되어 서로 담을 쌓고 전체의 연관을 상실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불교의 학문은 철학보다도 깊은, 어떠한 사회과학 보다도 범위가 넓은 것이어야 하며, 또 항상 육안의 현실에 뿌리를 박고 있으므로 튼튼한 것이다. 육안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불안, 법안, 혜안, 천안의 일관된 깊이를 지닌 것이기에 통찰력과 정밀한 관찰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불교달마조계종 미륵달마 경신 도통회 총본산 이전법회

귀의삼보 하옵고 그동안 본 종단을 아껴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사부대중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반 오는 11월 16일 음 윤 9월 24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인천 부평시장입구 3층 본종단 용천사에서 이전법회를 영산범패 대제를 봉행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가정 사업 출세 성공 통솔 진급등 모든 악연을 풀어 하시고자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옵고 특히 금년 9월 윤달 든 해는 각종 장애를 일으키는 조상천도 구병시식 대운 맞이를 봉행하오니 소원성취하소서.

거부장지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31)505-5529/010-9292-3110

금년 윤달 든 해는 효성으로 부모조상 산소이장 상석 화장 사초 등을 모시는 해이므로 구랑신 제도법을 상담하시어 집안불화 사업실패 건강질병 사암사찰 창건 중수 하실분은 구랑신에 철퇴방지법과 팔자에 맞는 좋은 이름이 내 운명을 좌우하는 작명개명 상호 아호 불명 신생아 작명으로 우환질병을 소멸하소서.

본 종단에서는 누구나 성불득도. 비구니 보살들도 사갈려 용녀와 같이 성불할 수 있는 달마선법 마음수련으로 잠자고 있는 두뇌와 오장 육부 질병을 예방 수재 천재 고시합격 평생 직업에 자격증 받아 구애받지 않는 인류 스승법. 성불득도 하시옵고 풍수지리 및 동양철학 특별강의 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전철 1호선부평역과 7호선 부평구청역 하차 2번출구**
부평시장 정류장 약 5분 ~ 8분 소요 3층 용천사 법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 **봉불식 동참자선물** ▶ 원담 큰스님 친필,본약사정법1점,금강다라니, 삼재다라니,넥타이1점,만사형통거부장자되는 부적을 함께 드립니다.

2014. 11월. 16일. 일요일 10시 30분

전화 032)505-5529. 502-6625. 010-9292-3110.

천지공사 미륵달마 경신도통회총본산.사) 세계불교 달마종 태양의 집.
사) 대한불교 달마조계종 총본산 전국신도회. 신도일동.

종정 환성 천룡진인 태일대종사 합장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

“한국의 魂 알리기·자비나눔

‘금강경 독송회’ 회원들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금강경 독송회 회원들이 합장하며 가행정진을 다짐하고 있다. 독송회 회원들은 매 행사 마다 한복입고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금강경독송회는 1973년 발족해 김재웅 지도법사의 지도 아래 수행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2곳의 수행도량과 한국, 미국, 독일, 영국 등에 14개 법당을 두고 있다. 자급자족을 실천하며 금강경 50만권 보급. 한국문화알리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놀라웠고 숙연해 졌습니다. 참 대단한 문명입니다. 꼭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영국 런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문화 영상회에 참여한 외국인들이 내비치는 반응이다. 영국의 중심지인 트라팔가 광장에서 열리는 영상회에는 옥스퍼드대를 비롯해 영국 전역의 교육기관과 여성단체, 로터리 클럽, 라이온스클럽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한국문화를 접한다. 약 1시간 남짓의 영상회가 끝나면 이들은 모두 엄지손가락을 들며 “코리아, 원더풀. 어메이징”을 연발한다.

영국뿐만 아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각지와 미국의 여러 주와 도시에서도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영상회가 열리고, 불고기, 잡채, 비빔밥, 떡과 식혜 등 한식 시식회가 진행된다. 놀랍게도 이 행사는 불교계 민간단체가 주최한 것이다.

영상회 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한국불자들이 유창한 영어로 한국을 소개하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바로 불교수행단체 ‘금강경독송회’ 회원들이다. 마음을 닦는 수행단체로 1973년 설립된 금강경독송회는 현재 문화관광부에 ‘(사)청우불교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본부인 포항 금강정사를 비롯해 미국、독일、영국에 포교당을 포함해 15개 지부를 두고 있다.

‘금강경독송회’는 2005년부터 10년 째 한국 알리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또는 한국을 미개하고 뒤떨어진 나라쯤으로 알았던 미국인들이 ‘존경스럽고 배우고 싶은 나라, 가보고 싶은 나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금강경독송회 송혜경 씨는 “한국문화는 전 세계 어디에 부끄럽지 않은 최고임에도 한국인은 중국에 가면 자금성과 만리장성에 위축되고, 유럽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나 파르테논 신전과 콜로세움에 주눅이 든다”며 “한국이 가진 5000년의 역사와 그 속의 정신을 널리 세계에 알리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금강경독송회가 마련하는 영상회는 한국어와 함께 영어, 독어, 불어 등 7개국 언어로 열린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총 6000여 회의 영상회가 국내외에서 열렸다.

> **호국불교 보국안민 표방하며 활동**
> **한국문화 소개 73만권 제작·배포**
> **미국 고교 교재 채택, G20 선물로**
> **오바마 대통령 등 감사편지 보내와**
>
> **메주 등 자급자족 체계 재원 마련**
> **매일 오전 3시 금강경7독으로 시작**
> **“나라는 생각 모두 비우고**
> **부처님 공경심으로 살아갑니다.”**

‘호국불교, 보국안민’ 정신, 한국정신 담긴 책 발간

금강경독송회가 한국 알리기에 나서게 된 동기는 교포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였다.

독송회 지도법사인 김재웅 법사는 미국법회 당시 재미교포들이 인종차별과 폭력 등에 주눅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뛰어난 문화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책자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20여년을 활동하다 최근 귀국한 금강경독송회 임영희 씨는 “이민사회에서 한국인들이 받는 차별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한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생긴 많은 교포들이 더욱 당당하게 미국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영상뿐 아니라 출판활동도 활발하다.

처음 나온 ‘이순신 장군’은 한국어,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6개 언어로 제작됐으며, 이후 ‘세종대왕’, ‘충、효、예’ ‘원효 대사’ ‘홍익인간의 실천’ ‘한국의 맛’ ‘50대 문화유산 I, II’ 등은 한국어, 영어, 불어, 독어, 이탈리아어 5개 언어로 제작됐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8종의 책자 73만권이 배포됐다. 책들은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80개의 각국 대사관 및 주요대학의 외국인 교수진과 학생들, 미군 부대에 전달됐으며 국제행사와 학술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인사들에게도 전해졌다.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국빈을 위한 공식 선물로도 채택돼 3000권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때 4100권으로 전달됐으며, 이에 앞서 2010년 10월 G20 재무장관회의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귀빈과 외신기자에게도 전달됐다.

금강경독송회 회원들은 이를 위해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장이면 빠지지 않고 나가 책을 배포했다. 이런 모습은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 구글에 ‘창덕궁’을 검색하면 금강경독송회가 창덕궁에서 매주 주말마다 배포하는 활동 내역이 부연설명으로 있을 정도다.

책이 나올 때마다 미국 500개 대학과 3300개 고등학교에 책자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다른 3000개 고등학교에는 안내문만 발송하는데, 이 중 미국 공군사관학교, MIT공대, 캘리포니아대 등 미국 내 36개 대학과 54개 고교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수업에 이들 책자를 교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 지금까지 8회의 독후감 대회를 열었는데, 미국 전역에서 3000명의 청소년들이 참가기도 했다. 이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부시 前미국 대통령, 사르코지 프랑스 前대통령, 힐러리 前미국 국무장관, 슈미트 독일 前 총리 등 총 120명이 넘는 국제 유명 인사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책자와 함께 석굴암, 고려대장경, 성덕대왕신종, 한글 등을 주제로 직접 제작한 영상물들을 상영하고 있으며, 미국 도서관과 문화원, 로터리 클럽 등에서 미국인들을 상대로 무료 요리강습을 하고 제사, 혼례 등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금강경독송회 회원 김용희씨는 “책을 읽고 감동받은 외국인이 자국 언어로 번역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며 “이란에서도 한국 최초로 번역 출간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강경〉 보급에도 앞장서왔다. 1968년 독송용 금강경을 처음 출간한 이래 현재까지 약 50만 부의 〈금강경〉을 법보시해 금강경 독송 수행의 기반을 제공했다. 금강경독송회는 2010년부터 자발적으로 6、25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보은행사를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육군훈련소를 비롯한 군부대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자급자족하며 보살도 실천하기 위해 노력

금강경독송회의 특징은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꾸준히 활동을 전개해 간다는 것이다.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책을 쓰고 번역하고 배포하는 모든 일은 금강경독송회 회원들의 자원봉사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도현)
(사)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원로위원 석무염
원로위원 석보행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관오
의전부장 석명오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부산 제2 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 6
부산지부 제2 총무원 혜광사

대원불교조계종 종립교육원
교 육 원 051)893-3346
학장(직) 010-3564-6604 현우 법오
부산시 진구 당감 1동 232-3 현우정사
(백양대로 50-1호)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 실천입니다”



2011년 8월 6일 미국 얼바인 문화원 200명 지역주민에게 잡채, 비빔밥 등 한식 공양



2012년 5월 21일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 모습. 독송회는 2010년부터 자발적으로 6 • 25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보은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금강경독송회가 제작한 책들. 2005년부터 제작된 책은 한국을 찾은 각국 정상과 국빈과 함께 유학생 등에게 제공된다.



금강경독송회는 11월 6일 좋은벗들과 아름다운 동행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금강경독송회는 19년째 보시행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 가운데는 지도법사 김재웅 법사.

로 이뤄지고 있다. 책의 영문 번역은 영국 옥스퍼드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현재 국제변호사로 활동 중인 장항진 씨를 비롯해 금강경독송회 도반인 한윤상 씨와 마트 잭슨 씨가 돕는다. 영상 또한 독송회 회원이자 현직 의사인 강주현 씨를 중심으로 직접 제작하고 있다.

국가도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단체, 그것도 수행단체가 해내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하는 이들이 많지만 독송회 회원들은 금강경 수행의 힘이라고 입을 모은다. 금강경에 설해진 매 순간 올라오는 경계를 모두 부처님 전에 바치는 공부로 힘을 얻는 것이다.

19년째 매년 이웃돕기 자비행

금강경독송회는 수행하는 수자(修者)와 일반인 신자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수자들은 매일 오전 3시에 기상해 하루 금강경 7독을 하며 ‘미륵존여래불’ 염불정진을 수행의 원칙으로 삼는다.

낮에는 농사를 짓거나 메주와 참기름, 조청 등 친환경 전통식품을 생산하면서 정진하고 있다. 농사는 물론, 옷가게 운영 등을 통해 재원 마련한다. 회원들이 직접 콩을 키워 삶아 황토방에서 띄운 메주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해외에서는 김치와 만두 등을 만들어 판매해 그 수익금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절약을 생활화해 모은 돈으로 19년째 1000만 원 이상을 이웃돕기에 기부하고 있다.

이런 금강경독송회의 모습은 지도법사인 김재웅 법사의 ‘마음살림살이’ 가르침에 잘 나타나있다. ‘마음살림살이’란 남의허물을 내 허물처럼 덮어주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심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부처님과 같이 여기는 수행지침이다. 특히 철저히 ‘나’라는 생각을 비우고 ‘바치는 법’을 실천한다.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내 생각’이 옳지 않은 줄 알고 그 생각 분별들을 모두 부처님전에 바치는 것이다.

김용숙 씨는 “본부인 금강정사 수자님들은 신도들이 낸 보시금에 의존하지 않고 친환경 전통식품 판매 등으로 얻는 수익금으로 자급자족 하면서 모든 지역 법당은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재산으로 등록해 관리한다. 국내에 있는 8개 법당이 해산된 뒤에는 국가에 헌납하도록 정관에 못박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숙 씨는 “책을 편찬하고, 영상회를 여는 등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활동은 독경이나 염불, 참선에만 머물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부단히 실천하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국이념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것이고, 또 불교의 이념이 ‘보국안민(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편안히 한다) 호법호국(법을 수호하고 나라를 수호한다)’이다. 우리 선조들은 이 이념을 어떻게 실천했고, 현재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고민하는 노력에서 꾸준히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강경독송회는 인터넷(www.diamondstura.co.kr)을 통해서도 이러한 수행법과 활동을 알리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잘살기를 원하나 잘 살 원인을 지어야 한다. 부단히 복 짓기를 원 세우고 실행이 이어지면 자기의 복그릇이 커진다. 또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복이 된다. 돈을 헤프게 쓰면 돈의 신(神)이 나간다. 음식도, 전기도 무엇이든 중하게 여겨 절약하는 마음에 복이 온다. 복은 누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어야 하고, 지은 만큼 받을 뿐이다.”

1998년부터 군부대에 법보시 된 김재웅 법사의 〈마음닦는 법〉에 나온 문구다.

금강경 독송회 회원들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나를 비우는 것(通達無我法者)을 직접 실천하는 이들이었다. 하심으로 상대방을 부처처럼 보니 삶은 긍정으로 가득 찬다. 그래서일까. 금강경독송회 사람들의 모습에는 활기가 넘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법석이 살아야 불교가 산다

지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혜민 스님이 이곳을 다녀갔다. 시골의 작은 암자 마당이 비좁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법회의 성공요인을 꼽자면 유명한 스님의 인기도 한 몫을 했겠지만 그 동안 크고 작은 법회를 꾸준하게 개최해온 나름의 교육과 홍보 때문이기도 하다. 몇 년에 걸쳐 창건기념일마다 명사를 초청하여 법석을 마련했던 덕분에 이번의 특별법회에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기대와 관심이 더 집중된 이유다. 이제는 법회에도 뚜렷한 주제와 이벤트가 있어야 청중들이 몰리는 시대다. 달리 말하자면 진부한 법회보다는 이 시대에 맞는 형식과 내용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 절에서는 법문과 기도를 포함해서 불공의식은 1시간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체의 법회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집중력도 떨어지지만 자칫 지루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공양시간과 차담을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신행은 기분이 가벼워야 하며 신나고 즐거워야한다는 게 내 지론이다. 그래서 때때로 추억에 남는 이벤트를 만들어 준다면 다시 방문하더라도 편안하고 친근한 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특별법회를 준비하면서 이벤트를 무엇으로 할지 고민하다가 겨울철의 별미 ‘붕어빵’을 떠올리고 기계를 구입하여 구워 주였는데 쌀쌀한 날씨 탓인지 그야말로 대박이 났었다. 가을 밤, 절에서 맛보는 붕어빵은 유별났다는 후기를 읽고 손님에게 새로운 인상을 심어준 것 같아서 무척 흐뭇했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돌리면 절을 찾는 신도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을 것 같다.

가을의 야단법석이 끝난 뒤 돌아온 초하루 법회에서 “유명한 스님은 청중들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똑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말할 수 있지만, 여기는 청중들이 매번 동일하기 때문에 법회 때마다 다른 주제를 정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더 힘들다”라고 말해서 한바탕 웃기도 했다. 가수는 어느 곳을 가든 히트곡을 여러 번 부르면 박수를 받지만 법사는 그 자리에서 반복되는 내용을 거듭 말하면 환영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찰의 법회를 주관하는 주지 소임은 늘 강연 내용을 연구하고 그 주제를 고민해야하는 고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외진 시골에 살면서도 이토록 법회에 신경 쓰는 것은 ‘법석이 살아야 불교가 산다’는 소신 때문이다. 흔히 불교가 살아 있다고 말할 때 절이 많고, 신도가 많아서가 아닐 것이다. 불교가 역사 속에 박제되지 않고 생동감 있다고 말할 때는 법석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일찍이 서울 잠실에 도심포교를 실천하여 불광사를 창건했던 광덕 큰스님은 “천막법당이라도 법회가 열리면 불교가 살아 있는 것이고, 단청으로 장엄한 법당일지라도 법회가 열리지 않으면 죽은 불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림 · 박구원

이것은 신도들이 구름처럼 모였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전하는 법문의 시간이 없다면 살아 숨 쉬는 불교가 아니라는 뜻이다. 불교의 본래 모습은 불공과 기도가 아니라 법석이 우선이라는 가르침이기도하다. 그래서 나는 절에 다니는 첫 번째 목적은 청법(請法)이 되어야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만약, 크고 작은 사찰에서 법문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불교는 불공이나 49재 등 종교의 식에만 치중하여 불교의 정체성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석이 사라지고 기복적인 방편만 행해진다면 불교는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죽은 불교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법의 역할이 되는 법석이 자주 열려야 한다는 것이 출가 이후 줄곧 지녀온 내 신념이다.



현진 스님 (청원 마야사 주지)

고흥 해수관음상

영운사 모연문

귀의삼보하옵고,

동북아 ‘우주항공허부’ 전남 고흥군 대서면에 자리한 해련산 신선대 **영운사 해수관음상**은 서방정토. 서해바다에 ‘용궁 .용왕. 방생’ 기도도량으로, 불자들이 경건하 예배하고, 소원을 빌면 **32응신**을 나투시어 모든 일이 잘 성취되는 영험기도 도량입니다.

금번 영운사에서 **대웅전 법당 건립**의 어려움으로 **기와불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금도 아픔과 고통속에 헤매는 중생들에게,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불자님들께서 정성껏 공양을 올려, 정법 실현을 위한 서원을 세우시고,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의 삶을 이루는 공덕을 쌓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영운사 주지 혜양 합장 –







불사 동참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농협 351-0311-0956-53 (영운사)

(동참하신 분은 **010-2614-8730**으로 전화부탁 드립니다)

● 주 소 : 전남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752-1
(영운사 주지 혜양 010-2614-8730)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7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11월 중
◆ 개강일시 : 2014년 11월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11월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美서 불교 접목한 '어린이학교' 호응

학부모들 '방생' '대화' '자선' 프로그램에 주목

과연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대답을 하겠는가?

단언컨대 '특정 종교만을 강조해 아이들의 심성에 종교적 편견을 심어주는 게 종교교육' 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질문의 대답은 무엇일까.

〈Buddhist News〉 지는 "그 대답은 미국 오레곤의 중소도시 유진(eugene)의 한 사립학교에서 찾을 수 있다"며 "사라어린이학교(Saraha Children's School)가 불교와 접목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학부모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월 문을 연 사라닝마 불교연구소(Saraha Nyingma Buddhist Institute) 부설 '사라어린이학교' 의 교육과정에서 학부모들은 자녀들 교육 과정에 녹아든 '지혜' '자비' '평화' 라는 주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부모들은 사라어린이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생' '대화' '자선' 등의 과외 활동 프로그램에 호감을 보이며, 자녀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하고 있다는 것이다.

알란 콴(Alan Kwan) 씨는 "이들 프로그램은 자녀들이 나와 주변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데 긍정적인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비록 불교계에서 설립한 학교이지만, 종교적 문제로 고민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알란 콴 씨의 두 자녀는 지난 9월부터 사라어린이학교를 다니고 있다.


사라어린이학교 학생들은 수업에서 '지혜' '자비' '평화'를 주제로 한 교육을 받는다.


학교 설립자인 소남 린포체(가운데)와 사라어린이학교 학생들.

오레곤 유진 '사라어린이학교'
특성 종교 배제한 심성학교
소남 린포체가 지난 4월 설립

루이사 쿡(Luisa Cook) 씨는 "수업을 교실에서만 한정하지 않고 대자연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아이들 심성 개발에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다"며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사회적 문화적 편견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루이사 쿡 씨는 사라어린이학교가 처음 문을 연 4월부터 자녀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사라어린이학교를 세운 사라닝마불교연구소는 지난 2011년 소남(sonam) 린포체에 의해 설립된 이래, 티베트불교 연구와 문화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오고 있다"고 전제한 사라어린이학교 존 캐논(John Cannon) 운영위원은 "사라닝마불교연구소가 사라어린이학교를 세울 당시 불교를 드러내기 보다는 불교적 심성을 키우는 데 주력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방생' 등의 프로그램으로 실천해 왔던 게 학부모들의 관심을 환기시킨 것 같다." 고 설명했다.

이는 소남 린포체의 교육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지난 4월 사라어린이학교 개교 기념식에서 소남 린포체의 "불교를 포함한 특정 종교 의식 등은 교육 과정에서 배제하고, 다종교 다문화 사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말에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2.5에이커의 숲과 캠퍼스 부지에 들어선 사라어린이학교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는 주목한 〈Buddhist News〉 지는 "불교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편견을 내세우지 않고, 우수한 교사를 적극 영입하고 있는 것도 학부모들의 호응을 이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uddhist News〉 지는 "사라어린이학교에서는 언어, 명상, 예술, 철학 등에 조예가 깊은 교사들이 교과목을 맡고 있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하고, 수잔 나카바(Suzan Nakaba) 교사의 말을 인용해 "학생들이 현명하고 자비로운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양분을 공급하는 데 사라어린이학교는 적잖게 노력하고 있다"며 "아이들 종교 교육이야 말로 다문화 다종교 다인종에 대해 편견을 버리고 자비 지혜를 가르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달라이 라마, 종교의 자유를 달라"

미국 뉴욕서 달라이라마 반대하는 시위 벌어져



달라이라마를 환영하는 인파와 반대하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대치하는 상황이 뉴욕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달라이라마를 환영하는 인파와 반대하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대치하는 상황이 뉴욕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1월 3일(현지시간) "종교세미나 참석 차 뉴욕을 방문한 달라이 라마를 환영하는 인파가 뉴욕 거리에 모인 가운데 달라이 라마가 그들의 불교 종파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도르제 슉덴 교인 등 달라이라마를 반대하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뉴욕으로 몰려들었다"고 보도했다.

호법신장인 도르제 슉덴을 모시는 시위대는 맨해튼 중심지인 34번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달라(Give Religious Freedom)' 는 팻말을 들고 북을 치며 시위를 벌였다. 반대편에서는 달라이라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제14대 달라이라마의 방문을 환영합니다(Welcome his Holiness, the great 14th Dalai Lama)' 라는 팻말을 들고 달라이라마를 환영했다.

망명정부 "中 지원하는 슉덴 반대"
시위대 "지원한적 없어, 탄압 그만"

지난주 뉴저지 프린스턴과 보스턴에서 유사 시위를 벌인 국제 도르제 슉덴 대표 니콜라스 피츠는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망명정부 지역과 티베트 불교 사회에 슉덴 불교에 대한 편견을 심었다"고 말했다.

도르제 슉덴 신장은 중세 티베트 불교계에서 강력한 세력을 누리던 달라이라마 6세와 불법토론에서 승리한 한 수행자가 무자비하게 암살당한 뒤, 문수사리의 화신인 강력한 호법신장으로 예경돼 왔다.

특히 '억울한 누명을 쓴 수행자를 보호하는 신장' 으로 알려진 도르제 슉덴에 대해 티베트 망명정부는 2007년 "도르제 슉덴 예경은 중국측이 정치 ·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 후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다람살라 지역에서 불교공부를 하기 위해 티베트에서 인도로 온 16명의 청소년 불자들이 호법신장 도르제 슉덴을 모신다는 이유로 추방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달라이라마 망명정부 내각은 "호법신장 도르제 슉덴을 예경하는 불자들에게는 추천서를 써주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는 지난 1996년 달라이라마가 티베트인들에게 "도르제 슉덴 예경을 중단하며, 도르제 슉덴 예경자들은 내 법문도 듣지 말라"고 언질한 것에서 비롯된다.

국제 슉덴 커뮤니티 회원들은 "400년의 역사를 지닌 도르제 슉덴을 예경했다는 이유로 티베트 망명정부 내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며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로 알려진 달라이라마는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우리의 종교적 신행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티베트 망명정부는 "개인이든 조직이든 도르제 슉덴을 예경하는 행위는 티베트 학교에서 행해질 수 없다"고 선언했다. 도르제 슉덴파가 중국에 재정적 후원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제 슉덴 커뮤니티는 "우리가 중국에 재정적으로 후원한다는 사실은 거짓이며, 우리 회원들은 전세계적으로 티베트 망명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방문 중인 달라이 라마는 10월 26일 앨라배마주 버밍햄의 앨라배마 극장과 리전스 필드에서 '신앙을 넘어서' 란 제목의 다종교 간 토론회에 참석 · 연설을 했다. 또한 뉴욕 방문에 앞서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의 프린스턴대와 매사추세츠주 MIT공대를 방문해 정신의 중요성에 대해 연설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영국 불자들 안거 마친 스님께 가사공양

300여 불자, 까티나 행사에 참여

영국에서 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가사를 보시하는 까티나(kathina)행사가 거행됐다.

shieldsgazette는 11월 4일(현지시간) "영국 헵번 강변에서 태국과 스코틀랜드 및 영국 등 전역에서 온 300여 명이 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가사를 보시하는 의식이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까티나 행사는 세인트 앤드류 교회를 개조해 설립된 명상센터에서 열렸다. 이 명상센터는 영국 북동부와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명상및 불교를 배우는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까티나 행사는 테라와다불교전통에서 우기 3개월간 안거가 끝나는 시점부터 벌어지는 행사다. 이때 재가불자들은 비구 스님들에게 가사등 필수품을 보시한다. 까티나 행사는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등 테라와다불교국가에서 음력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열리는 행사로, 부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웨삭(Vesak)' 과 함께 불교최대축제로 꼽힌다.


영국 헵번 강변에서 태국과 스코틀랜드 및 영국 등 전역에서 온 300여 명이 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가사를 보시하는 의식이 거행됐다.

이나은 기자


10명의 스님들이 런웨이 모델이 됐다. 11월 1일 나라현 나라마치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패션쇼에서였다. 스님이 등장하자 3백명 관객들 사이에서 환호와 갈채가 이어졌다.전업주부인 나오 오주(35)씨는 "모든 스님들이 다 잘 생겨서 깜짝 놀랐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패션쇼는 '아름다운 스님들' 이란 주제로 열린 행사. 2015년 고야산 개창(開創) 1200년을 앞두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1천5백명의 스님들 중 특별히 선정된 10명의 스님들은 음악에 맞춰 포즈를 취하고 당당히 워킹을 선보였다. 의상은 평소 대중들이 접하기 어려운 화려한 색깔 위주로 선택됐다. 슈이치 마츠비(40) 스님은 "조금 부끄러웠던 게 사실"이라며 "그래도 즐기면서 모델 역할에 충실했다"고 말했다.

일본 스님들, 런웨이 모델 워킹 선보여

배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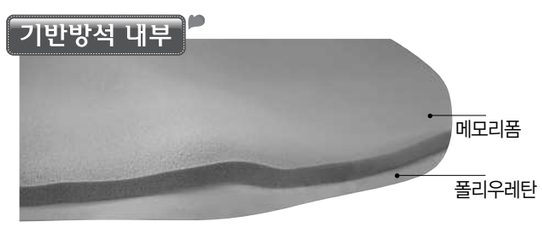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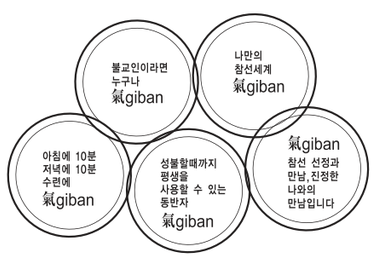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원 각 경 요 해

圓 覺 經 了 解

화제의 신간

깨달음, 구경성불 과정의 깨달음 지혜를 모두 밝혔다.

여래결정경계 원각삼종자성 수행의 실상, 심오한 각성세계를 밝히며, 대승, 일승, 불승보살 각성차별과 깨달음 각성과정을 모두 밝혔다.

- 깨달음 각성과정 지혜세계를 모두 밝힌 지혜점검 책이다.
- 구경성불 수행과정 깨달음 경계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 본기청정 인지법행 삼종자성 각성지혜를 두루 밝혔다.
- 깨달음 상승과정 세밀한 각성체험 세계를 두루 밝혔다.
-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의 수행실체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 생주멸념 분제두수 심오한 원융각성의 비밀을 밝혔다.
- 대승(大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일승(一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불승(佛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반야 법화 화엄경과 보살 3승과 사법계의 각성관계를 밝혔다.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세웅스님 역저 / 관음출판사 / 신국판 / 644쪽 / 정가 33,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신비한 '만사대길부' 친견하세요

특허출원번호 30-2014-0051973호

"하는 일 마다 무언가 가로막는 느낌이고, 풀릴 듯 안 풀리는 일들을 만사대길부가 해결해주는 신비함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수능 기원 | 회사 경영 | 취직 문제 | 결혼 문제 | 가정 문제 | 질병 문제



용도

- 학생책상에(머리가 맑아진다)
- 자동차운전석에
- 화장대에(가정에 액운을 막아준다)
- 회사 사무실 및 생산공장 안전에

※ 주문에 의해 18K도금으로도 제작 가능함
※ 선물용 고급케이스 증정(선착순 공급)
※ 특별 보급가
· 대 : 50,000만원
크기 – 가로 14cm × 세로 14cm
· 소 : 40,000만원
크기 – 가로 11cm × 세로 11cm

사찰 주지스님의 신도에게 선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만사대길부

계좌번호 : (우체국 010017-02-614770 김필성) | 상담전화 : 010-2962-0115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칠성상회

02-879-2007

무료배송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교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복사,프린트 모두가능
금액: 950,000원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와
손발의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혈 패치(30매)
금액 : 33,000원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습기엑기스
한달분(80ml/60팩)
금액 : 115,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하며
마음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3단 근조 화환
(지정 날짜,시간에 배송가능)
금액 : 100,000원



5차 재입고,매년 인기 상품
올 겨울 따듯하게 준비하세요.
거성 온수피아 카페트 매트
금액 : 330,000원



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장태상선생님의 현공풍수학
연구의 절정 (무료배송)
금액 : 35,000원

www.hyunbulshop.com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명분

구 입 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깊은 방’에서 만난 내면의 세계

옻칠화가 정채희 개인전 11월 19일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막힐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쉬었다 와요. 그곳이 곧 깊은 방이죠. 외부에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의식의 공간, 제 내면을 지탱해주는 그 방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옻칠화가 정채희의 개인전 ‘깊은 방’이 11월 19일까지 대학로 샘터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옻칠에 흰색 달걀껍질이나 자개로 표현한 이색적인 작업을 비롯해, 색상을 보다 풍부하게 사

명상으로 만난 내면 예술로 승화
‘동자승’ 등 불교 소재 작품도

용한 그림, 한지와 여러 종류의 종이를 베이스로 건칠기법을 응용한 불상 입체작품 등 40여점을 선보인다.

정 작가는 중국에서 다양한 벽화 기법을 공부한 뒤 귀국해, 한국의 전통 옻칠 기법을 회화에 접목한 작업을 꾸준히 시도해왔다.

불자인 그는 작업실에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명상을 하는데 이 과정을 내면의 깊은 방에서 행하는 휴식이라고 전한다.

“예전에는 절에 가서 삼천배, 만배 수행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삶 속에서 수행을 해요. 늘 명상을 하고 작업하며 삶을 수행 삼아 살고 있죠. 또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니 불교는 저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죠.”

옻나무 등 천연 재료와 이미지들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이루듯, 작가는 삶의 과정을 통해 길도 생기고 인연도 생기는 인간사 즉 연기법의 세계를 보여주고자 했다.

또한 불교와의 인연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한 동자, 기원과 꿀잠, 부처부부 등의 입체작품도 눈길을 끈다.

특히, 지상의 윈도갤러리에서 시작해 지하로 이어지는 갤러리 공간을 외부로부터 내면으로 이어지는 작가의 의식을 담아내는 ‘깊은 방’으로 해석해내 주목된다.

한편, 정채희 작가는 서울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중국 베이징 중앙미술학원 대학원에서 벽화를 전공해 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갤러리 아트사이드, 학고재, 베이징 중앙미술학원 미술관 등 옻칠화로 10여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 해인사의 〈해인지〉에도 작품과 글을 연재 중에 있다. (02)3675-3737

정혜숙 기자



‘깊은 방’. 정채희 작가는 외부에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동자승, 돌부처 등으로 표현했다.

응공조계종 영남범음범패 시연

10월 30일 광화문광장서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이 10월 30일 광화문 광장에서 영남범음범패를 시연했다.

(사)한국잡지협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행사에는 응공조계종 스님들과 신도 30여명이 공연해 대중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시연 후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은 한국잡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응공조계종의 영남범음범패 시연 장면.

한편, 범패는 불교의 49재 의식 가운데 하나인 영산재의 꽃이라 불리며 주요 의식에 행해진다. 범패와 함께 하는 춤은 작법무라 하는데 바라춤, 착복춤, 법고춤 등으로 구성된다.

정혜숙 기자

‘蓮花의 향’ 음성공양에 가득 실어

〈연화〉

동국대 한국음악과 개교 108주년·창설 20주년 기념음악회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경주캠퍼스)가 개교 108주년 · 학과창설 20주년을 기념하는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11월 14일 오후 7시 30분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연화의 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공연은 한국음악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동국예술단과 재학생들이 범패, 실내악곡, 관현악곡 등을 선보인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 20년동안 불교음악의 생활화와 음성포교를 위해 노력해온 한국음악과의 역량을 보여주는 무대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국음악과학과장 한상일 교수는 “불교음악은 고려시대 때 전성기를 누렸지만 조선시대 때 퇴색되어 찬란함이 희석되었다. 한국음악과는 그동안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찬불가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음악회 역시 대중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찬불공연이 되도록 노력했다”며 공연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연은 원효대사의 화엄사상과 불국정토 정신을 계승하고 불교의 생활화 및 세계화의 염원을 담은 무대로 구성된다. 첫 무대는 불교음악과 불교무용을 공부한 졸업생 20여 명과 지도교수 법현 스님이 함께 하는 ‘영산회상-깨달음의 향연’이 펼쳐진다.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의식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를 모티브로 범패,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등을 보여준다.

또한 동국대 한국음악과의 박상진 · 한상일 교수 등이 작곡하고 김새아, 손지혜가 노래하는 찬불가 공연도 주목된다. 연꽃으로 피는 당신, 도천수관음가, 정진의 노를

11월 14일 국립극장 하늘극장서
영산회상, 관음송 등 10여 곡 연주
김회경 씨 새 교성곡 선봬
‘원효’ 칸타타형식으로 구성

저어, 관음송 등은 경기민요토리 선법과 일반 국악가요풍으로 작곡해 대중들이 쉽게 따라부를 수 있도록 했다.

김회경 씨가 새롭게 작곡한 교성곡 ‘아! 원효’의 일부도 첫선을 보인다. 원효 스님의 ‘이 세상의 온갖 현상은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며, 모든 법은 오직 인식일 뿐이다. 마음 밖에 법이 없는데, 어찌 따로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三界唯心 萬法唯識 心外無法 胡用別求)’라는 깨달음의 의미를 교성곡(칸타타) 형식으로 꾸민다. 108 번뇌를 녹이고 불국 정토를 실현하려는 염원이 담겼다.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경주캠퍼스)가 개교 108주년과 학과창설 20주년을 기념하는 정기연주회 ‘연화의 향을 11월 14일 오후 7시 30분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연다.

이밖에도 가야금산조합주(윤소희 교수 外 18명), 향불(소리 김새아), 관현악 ‘아리랑’(편곡 이인원), 방아타령을 주제로 한 해금협주곡(해금 김승택), 모듬북 협주곡(박성용 외 5명), 풍물난장이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동국대불교음악과는 “음성공양도 하나의 훌륭한 포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학과에 음악법사 제도 등을 도입해 각 사찰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실내음악으로 포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며 계획을 전했다.

한편, 동국대 한국음악과는 1995 년 개설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과 현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불교음악, 컴퓨터음악, 전통음악, 창작음악 등을 교육해왔다. 또한, 인접 학문과의 학제 간 교육을 중심으로 전통음악과 어산 · 작법무의 전문가 양성, 교직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불교음악 예술가 전문교육 학과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마음의 학 화폭으로 날아들다

정행 스님 개인전 11월 19일~25일

정행 스님(부산 구해정사 주지)이 학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심학-마음으로 보는 선서화전’이 11월 19일~25일 인사동 갤러리 이즈에서 열린다. 전시에서는 좌선삼매, 동행, 무, 가족 등 학을 주제로 한 선화 30여 점을 선보인다.

15년전 설악산 토굴에서 안거하던 중 떠오른 학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었다고 스님은 설명한다. “수행 도중 보게 된 학을 그림으로 옮겼습니다. 학의 모습에 심취해 1년 동안 그림만 그린 적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밥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을 정도로 심취해 방 안이 그림으로 가득했죠. 이 학들을 심학(心鶴)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해보았습니다.”

스님은 그동안 자신이 그린 그림을 선물로 나눠 주기는 했지만 전시를 열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인들의 권유로 이번에 첫 개인전을 갖게 된 것이다. 전시 작품으로 좌선 삼매에 든 학, 무리를 지어 수행문답을 하는 학, 마음을 나누는 학 등 다양한 모습의 학을 통해 행복한 수행의 여정을 보여준다.

한편, 정행 스님은 1989년 일본 고려사 태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설악산, 합천, 부산 등의 토굴에서 수행정진했으며 현재는 부산 구해정사 주지를 역임하고 있다. (02)736-6669

정혜숙 기자



‘동행’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는 뜻이 담겨 있다.

기독교재단 갤러리에 불화 전시 ‘눈길’

불화가 김명희 영등포 여성미래센터서 전시

불화가 김명희 작가가 기독교재단인 영등포 여성미래센터 1층 바오밥나무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11월 14일까지 열리는 전시에서 작가는 아미타불삼존도, 자아, 관음보살 등 불화 20여 점을 선보인다.

“2년전, 우연히 갤러리에 작품을 감상하러 갔다가 관장님께 제가 불화작가라 소개를 하게 됐어요. 그 인연으로 섭외 요청이 들어왔지만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장소라 망설였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기독교인에게 불화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전시를 열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전통 불화는 물론 현대적 분위기가 가미된 작품으로 대중들에게 불화를 알리고자 노력했다.

“대표작은 아미타불삼존도지만 제주도 관통사에서 작업하며 떠오른 영감으로 작업한 ‘자아’ 등은 불화를 새롭게 해석한 작품이죠. 불자 비불자 모두에게 불화가 대중적으로 알려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의지를 전했다.



김명희 작가의 ‘아미타불삼존도’

현재 조계사 청년회 불화반을 지도하고 있기도 한 그는 “앞으로 청년들에게 불화의 정신을 심어주는데 주력하고 싶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02)2676-2100

정혜숙 기자





붓다를 소재로 10여년 째 작품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조재익 작가. 그는 불교 수행을 통해 작품의 방향성을 새롭게 찾았다고 말한다.

수행 여정서 피어난 '붓다의 미소'

문화人 15회 개인전 연 조재익 작가

30대 중반 작가는 길을 잃었다. 30여년 그려온 그림이었지만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지 도무지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 방황 끝에 불교 수행을 만났다. 위로가 되었다. 그림의 방향도 바뀌기 시작해 불교의 형상들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다. 그렇게 수행과 그림을 병행하던 작가는 2007년 수행만 하기로 결심하고 미얀마행을 선택했다. 가족들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 통보까지 했다. 비장한 마음이었다.

작가는 슈웨우민 선원에서 비구계를 받고 스님으로 살며 수행에 전념했다.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우기가 시작되었다. 폭풍이 오니 사원 주변이 부서졌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내리는 비를 바라보거나 책을 읽는 게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새벽 비가 멎었다. 문을 열고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모든 것들이 선명했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 환하게 비쳐오는 햇살이 온몸의 감각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온 몸과 마음으로 느껴졌다. 저기도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여기'.

붓다를 소재로 10여년 째 작품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조재익 작가(52)가 10월 29일~11월 5일 '붓다-꽃이피다2014'로 개인전을 열었다. 전시가 열리고 있는 가회동 60 갤러리에서 작가를 만났다. 삭발을 한 머리에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작가는 스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만큼 범상치 않은 인상이었다.

그는 미얀마 출가 당시의 이야기를 하며 매우 조심스러워했다. 이 순간을 '일별'이라고만 해달라고 당부한다. '한번 힐끔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일별'. 하지만 겸손의 말인듯했다. 그간 수행의 여정이 그

작품의 방향성 고민하던 시절
미얀마 출가 등 불교수행 매진
붓다 이미지와 불교성지 작품에

대로 담긴 작품 속 붓다의 얼굴에서는 평화가 느껴졌다. 또 세상을 잔잔하게 수놓은 꽃들은 소박한듯 반짝이며 존재를 발하고 있었다.

"당시의 경험을 너무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말이라는 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당시의 경험으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고 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와 저기가 다르지 않음을 알았죠. 이후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고 다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은 제가 늘 해왔던 일이고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후 그의 그림에는 욕심이 빠졌다. "젊은 시절에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많았어요. 피 끓는 청춘에 이것저것 이루고 싶은 것들도 많았죠. 이제는 알아요. 삶이 깊어지면 그림도 깊어지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번 전시에서 그는 경주 남산의 붓다, 간다라 붓다, 크메르 붓다 등 각처의 다양한 붓다의 이미지를 담아냈다. 자신이 여행지에서 보았거나 아니면 사진에서 보았던 불상들 중 선정에 든 듯한 부처의 모습을 선별한 것이다. 여기에 국내의 폐사지는 물론 티베트 인도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등 불교의 흔적을 찾아 다녔던 여행지의 느낌을 배경으로 담아냈다.

"불교수행을 하다보니 주변분들의 권유로 자연스럽게 불교 유적지를 여행할 기회가 생겼죠. 사실 작품 때문에 따로 여행을 가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본 풍경들을 그림에 담아내기 시작했어요. 불상들은 제가 직접 본 작품도 있지만 불교 유적지 곳곳의 이미지 사진을 보면서 명상적인 느낌, 고요함, 평화로운 이미지들을 찾아냈어요."

지금 여기의 소중함을 알고 끊임없이 붓다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그려내는 조재익 작가. 삶 속에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 그 알아차림을 통해 삶도 작품도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다. "파도가 일지만 다시 본래의 그 자리로 돌아오니 어떤 것도 문제 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저도 경계에 부딪히면 화도 내고 짜증도 내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저는 다만 알아차릴 뿐입니다. 다만 그럴 뿐이죠."

그렇게 작가는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과정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다. 또한, 저기도 거기도 아닌 오직 '여기'에서 묵묵히 작업에 임하며 수행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다.



옛길-두 개의 탑. 작가가 여행한 감은사지도 화폭에 담아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요즘 들어 인간 속세 좁게만 느껴지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㊹ 강화 보문사 ㊦





신라 선덕왕 4년에 지어진 것으로 전해지는 보문사 석굴법당

김창협과 흡연 스님의 인연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학문적 성취가 높았던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은 강화 보문사와 아주 기이한 인연을 맺었다. 그의 문집 〈농암집(農巖集)〉 제6권에는 '보문암'이라는 제목의 시 3수가 전한다. 그 중 한 수의 제목 자리에는 긴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는데 흡연(翕然) 스님과 보문사에 얽힌 인연이야기다.

"지난 기미년(1679, 숙종5)에 나는 영평(永平) 백운산(白雲山) 기슭에 있었다. 하루는 백씨(伯氏)와 함께 소를 타고 보문암을 찾았는데, 마침 흡연(翕然)이라는 이름의 승이 승도 10여 명과 함께 정진회(精進會)를 열고 있었다. 나는 그때 밤새도록 들리던 선송(禪誦) 소리가 마음에 들어 오래도록 잊지 못하였다. 지금 백씨를 따라 강도(江都)에 왔다가 우연히 해상(海上)의 보문암이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래서 백씨와 함께 배를 타고 찾아와 보니 흡연 대사도 마침 이곳에 있었다. 20년 만에 예기치 못한 곳에서 그를 다시 만난 데다 암자의 이름도 보문암이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대사는 보관하였던 〈전등록(傳燈錄)〉을 꺼내어 표지에 쓴 글자를 가리키며 "공의 필적입니다" 하였다. 당시에 우리는 이것을 훗날 다시 만나게 될 증표로 삼았는데, 이제 과연 증험이 된 것이다. 나는 처음에 그것을 보고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다가, 한참 생각한 끝에 번쩍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스스로 생각건대, 나는 본디 세상에 나갈 뜻이 없고 대사는 매인 곳이 없이 인연 닿는 대로 떠도는 형편이니, 훗날 또 어디에서 해후하게 될지 모르겠다. 오늘처럼 다시 해후할 수 있을까? 감탄하던 끝에 시 한 수를 지어 간직하고 가라고 승에게 주는 바이니, 훗날 또 증험이 될지 보아야겠다."

스님과 선비의 만남이 이렇게 이어지다니, 읽는 이에게 신선한 맛을 준다. 이 글에 나오는 영평은 지금의 포천이다. 김창협이 청풍(지금의 제천) 부사로 있을 때 기사환국으로 아버지가 진도에서 사사되었다. 그 충격에 벼슬을 내려놓고 포천에서 은거 생활을 했다. 포천은 안동 김씨 가문의 세거지였다. 그 때 형님과 백운산 보문암에서 정진회를 주도하는 흡연 스님을 만났고 그 수행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교유를 했던 것이다.

그런 인연이 20년이 지나서 강화도 보문사에서 우연히 다시 이어졌으니, 시 한 수를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시의 제목 자리에 그 놀라운 인연 이야기를 다 적어 두지 않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 놀라운 인연을 체험하고 쓴 김창협의 시를 보자.

매억기우과흡공(每憶騎牛過翕公)
야문선송백운중(夜聞禪誦白雲中)
홀경절해상봉재(忽驚絕海相逢再)
갱괴정려구호동(更怪精廬舊號同)
패섭제첨여작일(貝葉題籤如昨日)
양지재수기춘풍(楊枝在手幾春風)
잔생미복중내차(殘生未卜重來此)
병석타시당복동(甁錫他時 復東)

소를 타고 흡공 찾아 보문암에 갔던 기억
백운산에 독경 소리 한밤중에 울렸지.
놀라워라 먼 바다서 다시 그를 만난 지금
괴이할사 정사 또한 옛 암자와 이름 같네.
불경의 표지 글씨 예전 모습 그대론데
손에 든 버들가지 춘풍 몇 번 거쳤는가.
죽기 전에 내 다시 여기 올 수 있을까.
흡공이 이 다음에 동쪽 행여 찾아올까?

시를 쓰게 된 배경의 인연 이야기를 그대로 시로 그려냈다. 앞의 이야기를 읽고 시를 읽으면 그 감동이 언어의 절제를 통해 더욱 애틋하게 다가온다. 경련의 '손에 든 버들가지 춘풍 몇 번 거쳤는가'라는 표현은 두보(杜甫)의 '별찬상인((別贊上人)' 이라는 시에 나오는 이야기를 빌려 온 것이다. 두보의 시에 "버들가지 새벽에 손에 있더니, 가을비에 콩알이 하마 익었네(楊柳晨在手 豆子雨已熟)"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찬이라는 상인(스님)과 헤어진 뒤 여러 해가 지났음을 표현한 것이다. 김창협도 흡연 스님과 여러 해 동안 만나지 못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동쪽 행여 찾아올까'라는 구절은 보문사가 서쪽 바다 섬에 있으므로 육지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초탈의 세계를 그리는 마음

김창협은 흡연 스님과의 기이한 인연 이야기를 담은 시 외에 두 수의 시를 〈농암집〉 제6권에 남기고 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시를 보자.

고도중명절사린(孤島重溟絕四)
갱련암굴정무진(更憐巖窟淨無塵)
공명미허서편복(空明未許棲蝙)
개착혼의유귀신(開鑿渾疑有鬼神)
낭리간산시오배(浪裏看山是鼇背)
야심청범지교인(夜深聽梵只鮫人)
이내전각환구애(爾來轉覺 區隘)
원차승상노차신(願借繩牀老此身)

사방 이웃 하나 없는 먼 바다 외딴섬에
티끌 없이 깨끗한 바위굴이 더욱 좋네.
텅 비고 환하여서 박쥐조차 살 수 없고
바위를 파낸 솜씨 귀신의 조화로세.
바다에서 산을 보면 자라 등 모습이요
깊은 밤 범종소리 물고기만 듣는다네.
요즘 들어 인간 속세 좁게만 느껴지니
노년 보낼 허름한 침상 하나 빌렸으면.

부친이 정치적인 이유로 사사를 당한 후, 김창협은 벼슬을 내려놓았는데 후에 아버지가 신원 되어 여러 벼슬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관직은 사양하고 학문에만 전념하는 곧은 자세를 유지했다.

김창협이 보문사를 찾았을 때는 지금의 마애관음좌상이 없었다. 그러나 석굴법당은 오랜 역사를 지닌 채 전해 와 '바위를 파낸 솜씨 귀신의 조화로세'라고 감탄 한 것이다. 신기한 인연을 경험한 보문사에서 기묘한 석굴법당에 대한 감동까지 그의 마음은 몹시 넓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초탈의 세계를 동경하며, 속 좁은 세상일 떨치고 보문사에 침상이나 하나 빌어 살고 싶은 심경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9 ~ 11/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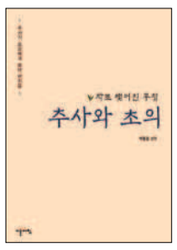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3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4	죽창수필	운서주굉	불광출판사
5	흔적 없이 나는 새(전심법요)	수불	김영사
6	리셋	월호	마음의숲
7	땅콩 스님과 애벌레 선	보현	민족사
8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9	임제록	종광	모과나무
10	11일간의 특별한 수업	아신 빤딧짜	법승담마야나



조선의 두 지성이 편지로 나눈 인간애

차로 맺어진 우정 추사와 초의

박동춘 편역 | 이른아침 펴냄 | 1만8천원



조선 후기의 서화가이자, 문신, 문인, 금석학자이기까지 했던 추사 김정희(1786~1866)와 13 대종사 중 마지막 대종사로 선과 계율에 밝았고 조선 후기 차(茶)의 중흥조인 초의선사(1786~1866), 두 사람의 만남은 호계삼소에 비유되기도 할 만큼 들여다 볼 것이 많은 '만남'으로 회자된다. 책은 추사가 평생의 지기였던 초의선사에게 보낸 편지들을 소개하고 해설한 것으로, 2012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본지에 연재되었던 것을 묶은 것이다.

두 사람이 신분을 초월해 나눈 교유는 학문적인 이상을 공감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 또 이들 두 사람은 어렵고 지난한 현실을 함께 위로하고 아파했던 지기(知己)였다. 초의 스님은 추사와의 우정을 '진취적인 탁마를 서로 채근했던 사람들'이라 평했고, 또 '서로 사모하고 아끼는 도리를 잊지 못했던 사이'라고 추억했다. 이런 자평은 이들의 우정이 얼마나 서로에게 진지하고 도움이 컸는지를 나타낸 말이었으리라. 실제로 이들이 한 시대의 문예를 이끌었던 일이나 이들의 우정은 후인의 귀감이 되기에 족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추사가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초의 스님이 보내준 '초의차'의 덕이 컸다. 추사는 '초의차'로 탁마의 여진을 씻고 풍토병을 달래기도 했다. 그랬기에 초의에게 보낸 그의 걸명(乞茗)은 간절했으니 추사에게 차는 유일한 은신처이며, 즐거움이었다. 그가 〈오백나한도〉를 구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인물도 초의 스님이었다. 아울러 불교에 밝았던 초의 스님과 함께 검증해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따라서 추사가 초의 스님에게 보낸 편지는 그의 고된 삶이나 번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정보들을 담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차로써 자신을 정화했던 그의 인간적 회한이 오롯이 담긴 편지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크다. 더구나 조선 후기 차 문화에서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할 때 자료적 가치의 중요성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추사와 초의 스님의 만남은 각별했으며, 그 교유의 과정은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들 편지에는 추사의 학문관이나 일상사는 물론, 그의 불교관도 드러난다.

한 사람의 글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기회이자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살필 수 있는 기회이다. 오늘 우리가 추사의 편지를 읽어보는 것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살피고, 추사를 알고, 초의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시대적 사안이나 한 사람의 생애를 직간접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해주는 편지의 특성은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데에도 요긴하다. 더구나 편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눈 상세한 속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들 간에 오고간 대화에는 꾸밈이 없어 진솔한 언어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있다. 아울러 옛사람을 이해하고 시대를 살펴보기에 충분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특히 추사가 초의 스님에게 보낸 편지에는 조선 후기 지성인의 진솔한 언어가 담겨 있다. 그의 삶에 대한 회한과 연민, 우정을 나눈 벗에게 보낸 소박한 온기는 추사의 편지에 이어진 정서이며 신분을 초월한 이들의 교유는 유불의 교유사에 오래 남을 일이다.



초의선사



추사 김정희



〈주상운타첩〉에 실린 추사의 친필 편지

추사가 초의선사에게 보낸 편지 · 해설
두 지성이 편지 통해 나눈 우정 담겨
현대인들이 들여다볼 것 많은 '교유'
인간애 부족한 시대에 필요한 교훈 많아
추사의 편지 단순한 서간문 아닌
수필 · 평론 기능 갖춘 '문학' 평가

추사의 문집은 대부분이 편지글이라고 할 만큼 평생 동안 편지를 많이 썼다. 추사의 글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편지 형식을 빌린 문학으로서 수필과 평론의 기능을 갖는다고 평가받고 있다. 문학적 감수성과 내면 생활을 묘사한 추사의 편지들 가운데 유독 초의선사에게 보낸 편지가 많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 이들이 서로에게서 느낀 공감대가 그만큼 깊고 넓었기 때문일 것이다.

책에 소개된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는 추사의 문집에 수록된 것 이외에도 몇 편의 개인 소장본 간찰을 수집한 것으로 대략 70여 편이 조금 넘는다. 안타깝게도 초의 스님이 추사에게 보낸 답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추사의 편지글만으로도 이 두 지성이 나눈 우정을 추측해 보기엔 부족함이 없다.

사람과 사람의 소통과 교감은 인간애와 더불어 두터운 신뢰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가치를 인식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고차원의 배려가 바로 인간애이며, 이를 위해서도 서로의 향상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추사와 초의 스님이 나눈 따뜻한 배려와 두터운 신뢰,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정을 실천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추사의 편지에는 요즘 글에서 느낄 수 없는 큰 울림이 있다. 하지만 현대의 우리는 이런 언어가 왠지 낯설다. 저자는 어휘의 단절이 불러온 결과라고 말한다. 즉, 소통의 도구로서의 문장 기능이 상실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추사의 편지는 실로 이상적인 삶을 고민한 사람의 자취이기에 이 시대의 우리에게 물질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다.

책에 소개된 추사가 초의 스님에게 보낸 편지들을 통해 우리는 추사와 초의 스님이 나눈 배려와 인간애, 차를 통해 다져진 두 사람의 아름다운 우정을 느낄 수 있다. 인간애가 넘쳐나는 시대가 아닌 것만은 분명한 시대다. 소통과 배려가 모자란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두 지성이 편지 속에 남긴 문장들은 그저 '오래된 글자'가 아닌 것이다. 그 오래된 문장들은 고사 직전의 인간애를 되살릴 수 있는 작은 물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추사의 편지를 들여다 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며, 출간이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그 옛날의 지성이 남긴 문장마저 소용없는 시절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부처님의 원음인 초기불교는 불교의 뿌리"

초기불교입문

각묵 스님 지음 | 이솔 펴냄 | 1만3천원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인 각묵 스님이 초기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명쾌하게 풀이한 불교 입문서이다. 초기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불교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5온, 12처, 18계, 4성제, 12연기, 37보리법문, 사마타와 위빠사나, 계정혜 삼학 등의 주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데에 유용한 길잡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 2600년사의 흐름은 석가모니부처님, 즉 고따마 싯닷타로부터 출발한다. 후대의 모든 불교는 석가모니부처님이 깨닫고 45년간 설법했던 그 가르침을 뿌리로 해서 전개된다. 2600년 불교의 흐름을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초기불교-아비담마(아비달마)-반야중관-유식(유가행)-여래장-정토-밀교-선불교의 여덟 가지 큰 흐름으로 나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초기불교는 불교의 뿌리인 것이다. 초기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존재할 수 없듯이 부처님의 원음인 초기불교의 정확한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불교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불교란 무엇인가. 초기불교는 부처님과 그의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후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율은 우바리 존자가 읊어서 율장으로 결집되었고, 법은 아난다 존자가 외워서 경장으로 결집되었다. 현존하는 이 빠알리 삼장, 즉 다섯 권의 율장과 5부 니까야로 구성된 경장과 일곱 권의 논장에 전승되어 오는 모든 가르침이 초기불교이다. 역사적으로 남방 상좌부에 전승되어 오는 니까야와 북방에서 한역되어 전승되어 아함이 초기불교의 분명한 전거(典據)가 된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초기불교의 중요성은 재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책은 초기불교의 중요성을 여덟 가지로 말한다.

저자인 각묵 스님은 2010년에 니까야에 토대를 둔 초기불교 교학과 수행에 대한 해설서인 〈초기불교이해〉를 출간한 바 있다. 하지만 〈초기불교이해〉는 본격적인 해설서이고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처음 불교를 접하는 독자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 이번에 출간된 〈초기불교입문〉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문서다.

박재완 기자

달마 이전으로 돌아가 禪을 보다

달마 이전의 중국선

형운(이상옥) 지음 | 정우서적 펴냄 | 1만8천원



책은 양나라 혜교의 〈고승전〉에 담긴 선 용어를 분석하여 달마 이전의 중국 선사상을 밝혀내고 있다. 책은 '선종'이라는 종파적 의식이 가미되지 않은 선 수행법, 순수 체험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선적인 용어와 문구들을 〈고승전〉에서 찾아서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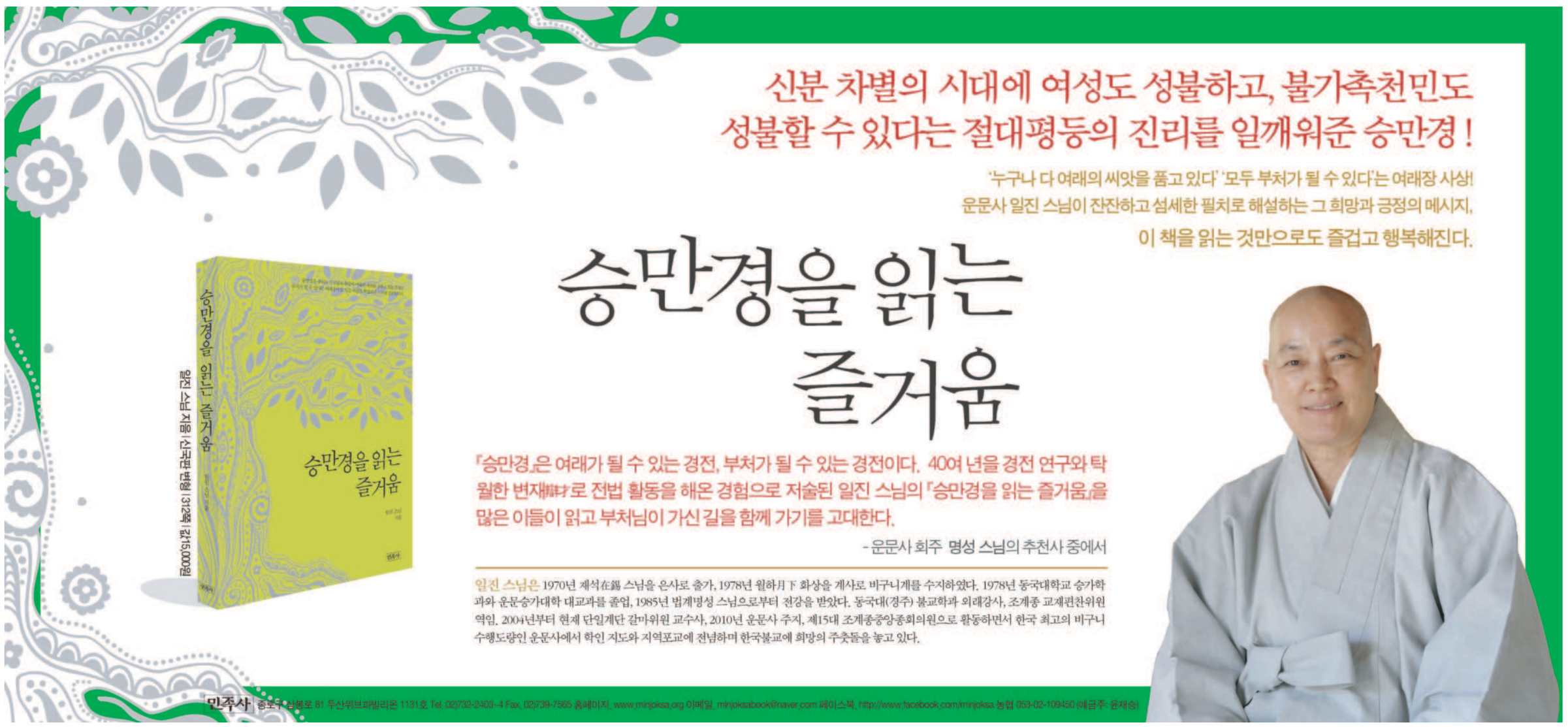
저자는 선종 성립 이전에 선이 중국에 어떻게 도입되고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 과정에서 선종 이전에 출간된 불전들 속에서 선과 관련된 언어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추이를 살펴보면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자는 한국불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선의 연원과 선 혹은 염불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참회법에 대한 연구 결과가 현대 한국불교가 당면한 시대에 맞는 불법홍포 문제에 온고지신의 새 방법론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었다.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에 발표했던 논문을 바탕으로 했다.

〈고승전〉은 〈양고승전〉 혹은 〈양승전〉, 〈양전〉이라고도 하며, 편찬자인 혜교가 당시까지 수집한 고승들의 전기를 기록한 것이다. '역경' 편, '의해' 편 등 모두 10과로 구분하여 고승들의 덕업과 행업에 따라 그들의 행장을 수록하고 있다.

〈고승전〉에는 선종이라는 종파적 의식이 가미되어 있지 않은 선, 수행법에 관한 순수 체험과 함께 다양한 선적인 문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도에서 들어온 선의 가르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수행 방법들이 풍부하며 오늘날 알려진 선 수행법들의 연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승전〉에 나타난 선 용어에 대한 선학적 고찰이 선 연구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본 연구의 동기다.

책은 우리가 사용하는 선어 분석을 통해 간화선으로 대표되는 선종, 달마 이전의 중국선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번 연구는 선불교 연구의 외연을 확장시켰으며, 달마로부터 전개된 조사선과 묵조 · 간화선에 대한 이해와 현대사회에 유행되고 있는 남방선의 연구 및 수행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완 기자



"누구나 모두 여래의 씨앗을 품고 있다"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일진 스님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5천원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차별은 심각하다. 카스트제도가 있는 인도는 더더욱 그렇다.

불가촉천민 출신으로 인도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암베드카르는 60여 년 전 50여 만 명의 불가촉천민과 함께 불교로 개종해 인도 사회의 변혁에 앞장섰다. 하지만 여전히 인도 여성의 인권 문제는 심각하며, 한 예로 불과 10여 년 전 인도에서는 불가촉천민 출신 여성으로 노벨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랐던 풀란 데비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남편이 사주한 괴한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어느때보다 〈승만경〉의 '누구나 다 여래의 씨앗을 품고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는 여래장 사상이 주목받고 있다. 〈승만경〉은 이처럼 여래사상을 설파하는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이다. 모든 존재는 여래의 씨앗이라는 이 사상은 새로운 인식 전환을 불러왔고,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사상은 선불교의 사상적 근거이기도 하다.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은 비구니 스님 최초의 승만경 해설서로 운문사서 후학양성에 진력하고 있는 일진 스님이 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집필한 40여 년 동안 체험과 사유가 들어있다. 수행과 다양한 강의를 토대로 이루어진 결실이기에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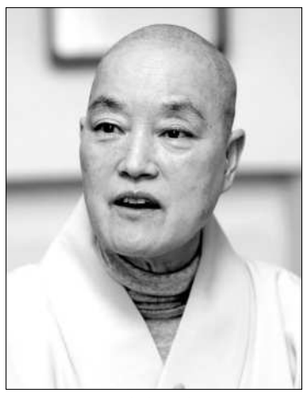
이 책의 저자인 일진 스님은 2천 년 전 여성도 성불하고 불가촉천민도 성불할 수 있다는 여래장 사상을 일깨워준 승만경의 탄생만으로도 대단히 혁신적인 일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한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평등하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는 승만경의 가르침은 인도인들뿐만 아니라 역사상 인류에게 준 가장 큰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라 할 수 있다.

또한 행간 행간마다 '승만경을 읽는 공덕으로 여성이 행복한 사회가 되어지이다' 라고 기원하는 스님의 애정 어린 메시지는 뭉클한 감동을 준다.

세상 사람의 절반은 여성이다. 아니 세상사람 모두 여성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대부분 여성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다.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에서 나아가 나라에 행복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이 지구 전체가 평화로워지는 주춧돌인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21세기인 지금도 차별받는 여성이 많습니다. 인도의 경우는 더더욱 심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여성이 성불하여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대신 사자후를 설하고 부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혁신적인 일입니다. 이 점만으로도 승만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라고 말한다.

〈승만경〉은 여성 불자인 승만 부인이 설법하고, 옆에서 부처님이 승만 부인의 설법이 옳다고 지지해 주고, 승만 부인이 성불해 보광(普光)여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 경전이다. '일체중생 실유불성' 을 강조하는 불교는 만 생명의 절대평등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사회적 관습에 따라 불교 또한 초기경전에는 성차별적 요소가 존재했다.



일진 스님

비구니 스님 최초 〈승만경〉 해설서

여성에 대한 문제의식서 출발

승만부인 10대 서원 구체적 설명

법화경에는 용녀가 남자의 몸으로 변하여 성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승만경에서는 여성의 몸 그대로 성불하는, '여성즉신성불설(女性卽身成佛說)' 을 설파한다. 또한 부처님에게만 사용하는 '사자후' 는 승만 부인 설법에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승만경〉이 페미니즘 경전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서두에서 일진 스님은 40여 년 동안 승만경에 천착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밝혔다.

"한 비구스님이 여자가 백 년을 해 봐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자가 100년을 기도 수행해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 다음 생에 비구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신다는 노스님의 말씀이 새삼스레 떠올랐습니다. 그때 여성은 '불가에서 열등한가?' 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부터 여성이 설한 경전인 승만경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승가에도 여전히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일진 스님은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기 삶을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만경의 가르침을 체득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왜냐하면 승만경은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여래장사상, 일승 사상을 확실하게 드러낸 경전이기 때문이다.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승만부인의 10대 서원을 통해 부처로 살아갈 수 있는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전이기에 일진 스님은 기회만 있으면 불자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승만경을 읽고 참뜻을 참구해 가고 있다.

일진 스님은 왜 사람들이 여래로 살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다. 흰옷이 여래장이요, 때가 번뇌요, 빨래가 수행이라는 것이다. 한편 승만 부인은 열 가지 서원을 통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로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나를 괴롭히는 적을 바르게 인식하는 비법은?

분노를 다스리는 붓다의 가르침

글 샤론 샐즈버그, 로버트 서먼 | 윤서인 옮김
담앤북스 펴냄 | 1만 5천원



홧김에 사람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세상이다.

경찰청과 형사정책연구원이 2011년 공동으로 분석한 범죄 통계에 따르면 살인과 폭력 등 강력 범죄 상당수가 우발적으로 벌어진다고 한다. 이런 범행은 순간 욱하는 감정, 즉 분노조절 장애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것은 비단 범죄자뿐 아니다. 주변에 많은 이들이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내며 스스로와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다. 분노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자책과 후회가 남는다. 때로는 되돌리기 힘든 물리적 상처나 어마어마한 손해가 뒤따른다. 습관적 분노로 인해 인간관계를 망친 후에는 결심한다. "다시는 화내지 말아야지" "아무리 화나도 막말해서 상처주지는 말아야지" 하고 말이다. 하지만 작심삼일에 그치기 일쑤다. 미치광이처럼 날뛰며 나와 다른 사람 인생까지 망치는 분노는 정말 사회문제로 부각될 만큼 심각하다.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다스릴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 책은 붓다의 가르침과 명상법을 바탕으로 분노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을 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미국서 30년 넘게 불교와 명상 수행을 전파한 샤론 샐즈버그와 서양인 최초로 14대 달라이 라마에게 비구계를 받은 불교학 교수 로버트 서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저술했다. 저자들은 고대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을 토대로 우리를 괴롭히는 적을 네 가지로 분류한다. 바로 외부의 적, 내부의 적, 은밀한 적, 가장 은밀한 적이다. 외부의 적은 우리를 괴롭히고 절망케 하는 개인과 일들이다. 내부의 적은 편집증적 욕망 · 분노 · 질투 · 자만 등이다. 은밀한 적은 우리 마음 더 깊은 곳에 숨은 '자기 집착' 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은밀한 적은 뿌리 깊은 '자기혐오' 다.

분노 보는 새로운 프레임, 무상과 연기

지금까지 분노와 증오, 자기 집착, 자기혐오 같은 부정적 감정을 바라보는 프레임은 심리학이나 뇌 과학에 기초한 것이 많았다. 이 책은 다르다. 붓다의 가르침인 무상과 연기의 진리, 다양한 영적 전통 그리고 현대 심리학을 통해 부정적 감정의 본질을 파헤친다.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 하는 격언에 담긴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면 분노의 함정에 쉽게 빠져들지 않는다. 또한 고정불변하는 자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기 집착서 벗어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이해심도 커진다. 연기의 지혜는 '세상만사가 다양한 원인으로 조건이 무르익을 때 저절로 일어나 결과를 낳는다' 는 사실을 뜻한다. 이 같은 진리를 이해하면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을 바르게 인식하는 동시에 마음챙김 수행과 자애명상, 주고받기 명상 들을 생활화하면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분노와 집착, 자기혐오에 효과적 대응법

이 책은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 1장. 첫 번째 승리: 외부의 적에서는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이나 사건, 상황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저자들은 '적의 공격은 미리 막거나 피하는 것이 최선' 이며, '피하지 못한 경우

분노의 실체, 명상으로 들여다 봐야

'자기연민' 명상… 자기혐오서 탈출

라도 분노로 맞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 강조한다. 분노는 적의 털끝도 다치게 하지 못하는 반면 우리의 상처를 더욱 쓰라리게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제 4장. 마지막 승리에서는 우리를 슬픔과 절망에 빠뜨리는 자기혐오와 자기 비하에 대응하는 법을 전한다. 많은 사람이 '나는 아직 부족하며, 결함이 많다.' 는 생각에 시달린다.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니 행복은 아득히 멀다. 저자들은 '자기 연민' 명상을 통해 자기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자기 연민은 '우리 모두 불완전한 존재' 임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과 판단을 멈추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명상법 수록

부록으로 실린 〈일상에서 하는 명상〉에는 기초 명상을 비롯해 자애명상 · 주고받기 명상 등 총 여덟 가지 명상법이 소개돼 있다. 이 명상법들은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적을 분노가 아닌 연민과 이해로 대함으로써 참된 행복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된다. 외부의 적 때문에 고달플 때는 '그 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명상' 을 해본다. 마음속이 분노와 질투로 가득하다면 나와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자애명상' 이 도움이 된다.

김주일 기자

인생서 가장 소중한 순간…사랑, 용서, 그리워할 시간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김재진 지음 | 수오서재 펴냄 | 1만4천원



저자는 이력이 화려하다. 조선일보와 영남일보 신춘문예, 작가세계 신인상에 소설과 시, 중편소설이 당선되며 오랜 시간 글을 써온 천생 글쟁이다. 젊은 시절 방송사 피디로 일하며 한국방송대상 작품상을 받는 등 세상의 중심에 서서 활동 하던 중 돌연 직장을 떠나 바람처럼 떠돌며 인생의 신산(辛酸)을 겪은 저자의 삶은 어찌 보면 평화롭고 어찌 보면 파란만장의 곡절 속에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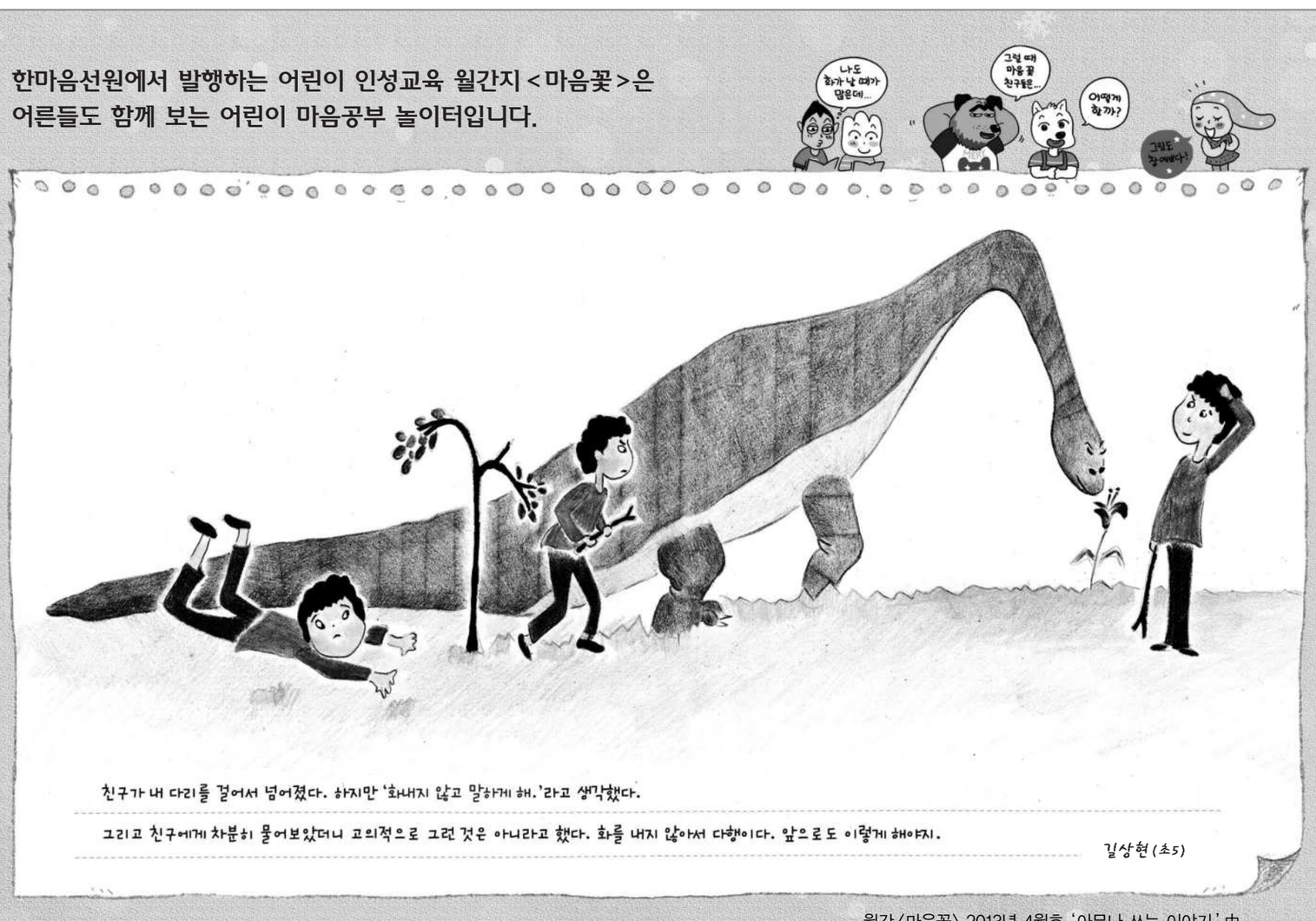
'세상에, 사람에, 관계에, 우리는 그 모두에 여전히 미숙하다. 그러나 탓하지 말자. 이 별에 우리는 배우러 왔으니까. 아직도 우리는 배우는 과정에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저자는 인생이란 배움터서 겸손히 학생 역할을 자처한다. 김재진 시인이 이번에 새로 펴낸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는 그가 품은 시와 잠언에서 확장된 에세이집으로서, 운문과 산문을 함께 읽어가는 아름다운 경험을 선물한다. 이 책은 인생의 파란곡절을 겪을 대로 겪은 저자가 세상에 대한 깊은 성찰과 명상 속에 길어 올린 샘물과 같은 글로 가득하다. 아프고 가파른 인생의 언덕길을 함께 올라가는 수레바퀴처럼 이 책에 담긴 명징하고 따뜻한 글은 읽는 이의 어깨 위에 다정한 손 하나를 얹어놓는다.

책 제목은 저자가 20여 년 전에 썼던 시 제목에서 빌렸다. 이 제목을 보고 혹자는 영혼 바쳐 사랑한 누군가를 떠올리고, 혹자는 죽어도 용서 못할 그 사람을 떠올리고, 혹자는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로 재해석에 얼마 남았을지 가늠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했다. 이번 책은 이처럼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시간,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얼룩진 마음속에서 용서를 꺼내는 시간, 누구보다 소중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듬으며 자존감을 찾는 시간을 제공한다. 살기에 바빠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시간들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하루는 길지만 일주일은 짧고, 한 달이나 일 년은 그보다 더 짧게 느껴진다. 어느새 일 년이 가고, 어느새 인생의 시계가 황혼을 향해 움직일 때 정말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질 때가 있다. 정말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를 토닥거리며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마음 졸이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날이 내겐 정말 얼마나 남았을까?"라고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저자는 또한 책에서 '마음속에 사랑이 샘솟지 않는 이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서서히 죽어갈 뿐이다.' 라는 영화감독 안드레이 타이콥스키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에게 누군가를 가슴 깊이 사랑할 날이, 소중한 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날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해보기를 권하고 있다. 한 편의 글마다 시와 잠언을 녹여내 완성시킨 160여 편의 글들은 자신을 되돌아 보게 만들어 준다.

김주일 기자

한마음선원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월간지 <마음꽃> 은
어른들도 함께 보는 어린이 마음공부 놀이터입니다.



월간 〈마음꽃〉 2013년 4월호 '아무나 쓰는 이야기' 中

마음꽃 펴어라, 마음꽃

"가기 싫은 학원을 즐겁게 갈 수는 없을까?"
"보기 싫은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음꽃〉에서 만나보세요.



* 사찰이나 학교 · 도서관에 기증되는 마음꽃은 구독료를 받지 않습니다. *

정기구독 안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1)470-3180 / 010-5650-3180

정기 구독료 :
30,000원 (1년 / 12권)

입금 계좌 :
농협 356-0822-8773-23
(예금주 : 권나래)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사단법인 대한불교원효종 탈종공고

아래에 기재된 사찰들과 인들은 2014년 10월 31일 자로 탈종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법명	성 명	사찰명	주 소
해언	노창성	천신사	경북 경주시 봉황로 95
진덕	이동준	대덕사	경북 경주시 산내면 장사길 2
해운	안보문	주왕사	울산시 북구 연암동 69
지호	최병택	낙원사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고등골 1길 34
운영	안영자	약불암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척과로 321
정운	김귀희	보광암	울산시 북구 호계로 235
지상	박정명	천탑사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삼동로 1639-1

상기 기재된 7개 사찰들과 7인은 사단법인 대한불교원효종에서 탈종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사단법인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약천길 8-31 은해사
총무원장 신찬호(운오) 합장
종 정 이동림(원봉) 합장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불교종합쇼핑몰

붓다북.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불교서적 · 명상음반 · 신행용품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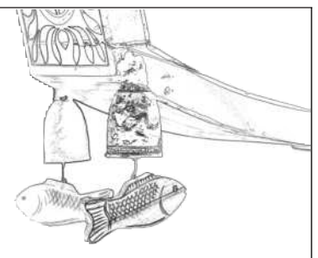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마음은 마치 파도치는 물결과 같아서 물결이 출렁일 때는 일렁이고 왜곡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맑으면 모든 것은 제 모습을 나타낸다.

- 화엄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 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구 인 광 고

미국령(사이버) 미국.대학교
이사장,총장,영입운영
가능하신 분. 양도 및 투자 원함.
2007년 등록
현재영업 (라이센스)
010-8774-2040



거지달마와 인연을

소승은 시각장애자 71세
무소유 초대종정 대종사입니다
남은 여생 암자 있을 자리를
마련해 주실분을 찾습니다
010-9003-7783

최 면 공 부

주1~ 2회, 3시간씩,
총 5회, 55만원
단체환영, 시간,
돈이 없는 분 상담환영
프로최면 강태현 합장
010-9609-1919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범음범패 학인모집

범음,범패,바라,나비춤,
천도재,49재,점안식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방편술 : 단기완성, 무공역학,
최면, 성명학
무상합장 : 010-4611-3738
정봉합장 : 010-3283-3658

천도재 보조하실 보살님 모십니다

(급여 180만원.
상담 후 결정)
011-202-3911

기적의 자연전인치유

묘심기공(妙心氣功) 수련생 모집
의료 치료 기공사 과정. 손빛 氣 치료
기공 수련을 수년간 했어도
체계적인 정리가 안된분 환영
네이버까페: 묘심기공.
다음까페 : 일묘심 약사선원
전화: 02-766-1296 / 010-4611-1296
일묘심 약사선원
1호선 신설동역11번출구직진100m kt 맞은편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010-3770-5313

부전스님 모십니다

(울진 영명사)
010-2078-959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이상, 양산)
055-366-2040

부전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50대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제의식 능통하고 내절처럼 잘 살아주실 수 있는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여주)
010-8819-8988

철학관, 작명소 영업할분

(명리학) 신살육신법,격국용신법,
횡사예방법,영가길흉법
- 점사:육임,육호,기문,귀장,
당사주활용법
(성명학) 작명,개명,상호,신생아
- 한글,한문,영어작명법,싸인
감정법(특강:관상학,수상학)
*고승,명사 쪽집게 통변개인전수함
010-5564-2488

비법 실전 사주

- 격국,용신을뛰어넘는쉬운 통변법
- 장애 및 조상음덕을 찾아
(빙의, 산소탈 등등) 천도재 등
각종재로이끄는비법 및방편법
* 3개월 후 새로운 비법에
눈뜨게 됩니다.
032-515-5922 (출장강의가능)
(별도 : 빙의 퇴마법 강의)

천 등 · 번 개 · 벼 락

- 모든 귀신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특수한 비술을 스님께 전수
- 면접 후에 결정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명상 기초부터 지도자과정 안내

1 무료 명상 체험하기 (서울,광주,파주)
2 붓다의 가피명상 기본과정 & 지도자과정
3 태교명상 & 좋은 부모 되는 예술
4 가족세우기, 강력한 삶의 변화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천 기 누 설

누구나,
사주를 바꾸는
기도법을 특별 전수합니다
약천암 회주 현오 합장 010-9229-3801

진본 태을신수 기문둔갑

번역본 최초 출간
천문지리 통달의 신기술수!
추길피흉의 역학도 필독서!
문의 : 부산 010-2507-1042
편저자 스님 직강 : 명리, 기문둔갑, 태을신수
•기초반 : 왕초보자, 수강 즉시 상담 가능
•실전반 : 사찰, 철학관, 상담운영하실 분
(조상영가 찾는 천도재비법전수)
사업,취업,진학,전공,결혼,건강,빙의 등

여자 상좌를 구합니다

보연암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79번지)
* 사찰에 거주 (주 · 야간)
하실 분
010-8920-5663
031-848-0663
011-888-2727

천비록 天秘錄 (하늘·땅·사람의 비밀)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등)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053)474-8228, 010-9562-8228

천상을 여는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단 한번으로 해결해드리며 제사 묘지 백중 필요없음.
신병의 원인은 수백여년 긴 세월 동안내려온 조상업으로 지금
그 환자까지 줄사탕 같이 연결되어 있음.
가까운 조상 천도 빙의퇴마 기치료 최면술은 완치되지 않는다.
가정 우환 해결해 드리며 상담요망
금 강 사 010-5152-1222

불교문화교육원

범음, 범패(어산), 사물
강목 : 점안식,수륙재,
영산재,예수재,천도재
강주 : 세불 합장
010-3927-1299
경남 양산시 북정중앙로 64

이름과 운명 주역!

*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바꾸고 싶다면 이름을 함부로 짓지마라
숫자 속의 운명? 꼭 한글 한문 주역과 해석이 필요하다
- 개인지도 : 주역 성명학 운세
- 성명 감정해 드립니다 (무료)
효도 010-4007-9057
(2호선 신천역 4번출구)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봉 은 불 교 미 술 원

불화 (탱화) 제작 전문
괘불, 후불 (영산 회상도), 칠성, 신중, 산신,
나한 (오백나한), 감로탱화
종합 (무속탱화),종류별 불화...
홈페이지 주소 / 봉은 불교 미술원 (불화 자료 보실수 있읍니다)
불모 오 재 택 (가암)
(온양) 010- 8237- 3545

조용한 산사에서 남은 여생 초연한 삶을 살아가실 보살님을 모십니다

010-3753-7844

명 리 학 강 의

(주 1회 3시간 2개월 완성)
사주. 작명. 개명
(전화 상담)
일지암 (서울)
010-3695-1626 법정

현대불교신문 구 독 문 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사주.기문학

과목: 사주, 기문둔갑, 자미두수, 풍수지리, 타로카드
◆2014년 최대 이변 이정현 국회의원 적중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3개월 전에 분석 적중
◆2014년 국운 분석 현재까지 적중 (세월호사건등)
◆2014년 박지성 선수 은퇴 月까지 적중
◆2013년 국운 분석 90% 적중
◆2012년 박근혜 대통령 6개월 전에 분석 적중
◆2012년 국회의원 김을동 의원 외9명 모두 적중
◆2009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월 까지 적중
◆2009년 노무현 대통령 4~5월 事故數(예언)
◆2007년 이명박 대통령 적중
◆학생들 공부 잘할 지 못할지 여부 등 집중적 분석.
※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실전문제 풀이반에서 공부를 하면 된다.
위 내용 홈페이지에 있음 060 상담하실분 환영.
공개강좌 : 11월15(토), 16(일) ,17(월) 14~16시 (1회만 오세요)
※특전 : 공부 하는 분께 인당사주프로그램(130만원) 무료 드림.
● 홈페이지: 네이버, 다음 "인당명리" 로 검색하면 된다.
사주. 기문. 실전 USB로 쉽게 공부(홈페이지 참조)
지방에 있는 분,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USB를 제작했으며 USB는 수업 시간을 그대로 촬영을 했다. 현재 많은 분들이 USB로 공부하고 있다.
◆사주 초급, 중급 + 기문 초급 ,중급 = 150만원(사주프로그램 130만원 무료 드림)
■인당학원 : 2호선 상왕십리역 2번출구 양지사거리 신한은행 옆 건물 2층
인당역학연구소 (사주감정 받을 분 전화주세요) 02) 929-6310

영남범패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4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진주교육원〉
* 입교일시 : 2014년 12월 1일〈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 수 강 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상용의식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문의전화 : 055) 747 - 8419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

이제부터 기도는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동안 살아 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7일마다 한번씩 20분 정도 쉽고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집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 넣고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는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 있을 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서, 이 기도로서 업장과 전생의 빚이 모두 소멸되어 자신의 운명과 운세가 좋게 바뀌는 것을 경험 하실 것입니다.

전화 주시면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 지 관 음 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잘 참고 노력하는 사람은 재물을 얻는다.
성실을 쌓아서 명성을 얻으며 남에게 베풂으로써
벗들과 우정을 맺는다"

- 잡아함경 -

사 찰 안 내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강원도 영월(시내 3분거리)
- 총부지 : 1300평, 건물 5동(요사채, 산신각)
- 법당 : 20평 (목조기와지붕, 연등 250등)
- 대문앞 : 계곡(갈수기 관계없이 물 철철)
- 가액 : 3억 2천만원 (융자 1억 가능)

아름다운 토굴(자급자족가능)
- 위치 : 경남 고성
- 총부지 : 970평, 건물 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 • 가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동 302번지 다산타워 505호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 863-6622

사 찰 안 내

- 경북 포항시
- 법당.삼성각목조 스님실.공양간
- 방사20개총건물5동 토지4,600㎡
- 대구시와 근접된 아주좋은 산속
- 양도금액 : 8억8천만원(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선원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전철역2분거리
- 4층 건물 중 2층, 약 50평, 큰 선방1, 방3개, 거실 및 주방
- 정남향, 조용함, 명상센터로 최적지, 주차장 있음
- 깔끔, 최신인테리어, 냉방, 바닦 필름 난방
- 가액 : 전세 1,500만, 월6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0-9317-9199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함안면
- 대지 167평(깨끗하고 예쁜절)
- 법당 1동, 요사채 1동, 창고1동
- 방 4, 입식 부엌, 공양간 따로
- 비구니스님 적합
-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
- 가액 : 1억 5천

010-4439-4499

포교원안내

- 위치: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양평 사찰 ◎ 위치 : 경기
◎ 부지 : 180평 ◎ 부지 : 2400평
◎ 법당 : 35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요사 : 30평
◎ 양도 : 4억 8천 ◎ 양도 : 6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경기 양평 (급) 사찰 양도
* 법당42㎡. 요사채 60㎡. 토지 약 150㎡
* 주변이 산과전원주택.추천사찰
* (급)양도금액 : 3억(실인수가 2억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신축 토굴 안내

- 위치 : 경주. 목조주택, 인법당
- 대지 100평, 건평 25평
- 실평수 35평정도
- 동남향 마을끝집 옆길 있음
- 개인토굴 장만하실 스님 적합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2억 1천만원(절충가능) 대출 6,000만원 정도됨

017-808-254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망미 2동 팔도시장 인근
- 평수 : 45평, 2층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4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 가능

010-3868-74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백마산 줄기의 계곡이 흐르는 아늑한 사찰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9평, 공양간 45평 총평수 1,000평
- 가액 : 6억 9천만원
- 주지스님 법인 임명관계로 10억이상되는 절 불사금보다 낮게 양도합니다

010-2772-7210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진주시내에서 10㎞ 거리
- 건물 : 법당(목조 토기와) 20평, 시멘트벽돌 슬래브 40평 38평 외 2동(30평)
- 토지 : 종교용지 (850평)
- 임야 : 4,000여 평(수련원, 복지시설, 태양열 발전, 납골 수목장, 등 적지)
- 가액: 6억(현지답사 후 조절가능)

010-3822-4565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000만원(조절불가)

010-7376-1727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 평수 183평, 인법당 18평, 요사채 60평
- 큰방 4개, 큰거실 2개, 화장실 2개
- 건강상 부득이 급양도
- 가액 : 2억 6천만원

011-9330-5860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구)부산진역 맞은편 부산일보옆 수정시장입구
- 상가건물 5층 40평
- 법당시설 일체(삼존불, 지장전 등)
- 공양간, 방3개 등 생활시설 일체
- 몸만오시면 언제든지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약간

010-6413-046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거제
- 평수 270평, 법당25평 2층 건물
- 삼존불 인등 700등
- 1층 13자 방 2칸, 샤워장 별도
- 요사채:공양간, 창고10평, 방2칸 화장실 2칸 별도, 주인직거래
- 가액 : 4억 7천 (저금리 대출 2억 5천 가능)

010-7169-9878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9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소재(대전에서 10분 거리)
- 부지 : 약 400평(종교 용지)
- 법당 : 30평 • 요사채 : 40평
- 산신각 : 15평(닷집, 목재, 단청)
- 가액 : 1억 5천만원
- 특징 : 도심인근에 위치하여 기도, 포교도량으로 좋습니다
- 위치 : 충북 청주시 소재
- 부지 : 850평(국유지 700평 포함)
- 법당 : 35평(2층)
- 요사채 : 35평 (1층, 방 3개)
- 가액 : 2억 9천만원
- 특징 : 청주 IC에서 5분거리이며, 조용한산사에 위치한 기도정진할 도량으로 좋습니다

※ 전국소재 사찰 및 절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대구)010-5848-0455 / 서울)010-5728-0455

동진사찰 공인중개사 대구광역시 북구 공항로 78(복현동 1층)

동굴사찰안내

- 위치: 경산시 남천면 소재
- 총 10,500평
- 전국 최대의 천연맥반석 동굴법당 3구, 1 동굴 120평, 2 동굴 80평, 3 동굴 3평
- 대웅전, 산신각, 돌탑 108기, 식당, 종무소 등
- 사찰벽을 타고 사철 계곡물 흐름
- 가액 : 대출 2억 3천만 안고 6억 7천만원

010-3809-7434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
- 3층건물중 1층 45평
- 삼존불, 소불 140불정도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9988-7242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산시 와촌면 뒷 갓바위
- 평수 : 약 70평 2층
-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기타 집기 일부
- 좋은 장소 입니다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4876-5353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재래시장 앞 사거리 코너
- 약 30평, 2층
- 가액 : 2,000만원 / 월 70만원 시설비 2,800만원
- 불상 및 후불 신중탱화 저렴하게 주실 분

010-7139-5566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전시 서구 둔산동
- 4층 건물 2층(40평)
- 법당1 상담실1 큰방1 작은방1 거실겸 주방 화장실
- 삼존불, 상단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 108소불 (지장보살,관세음보살)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2000만원
- 몸만 오셔도 됩니다

010-8653-3216

사찰(급)안내

- 시내와 아주 가까우면서 삼면이 산으로 병풍처럼 감싸있고 사계절 용천수가 흐르고 양쪽계곡에는 가재가 살고 있는 청정수월 기도도량입니다
- 토지 : 2천 700평(법당, 요사, 임법당)
- 양도가 : 3억 8천만원(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8008-6781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음성 감곡면 영산리
- 총평수 약 200평, 건물 법당 요사채 방3
- 공양간 화장실 2개, 창고 1, 텃밭 있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시설비 없음
- 오랫동안 사용가능
- 주지스님 이주 관계로 급 안내 그리고 내부시설 협의 가능

010-3293-1705

사찰암자 기도터 부지 안내

- 위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곡2길 484-3
- 면적 2,000평, 법당, 요사채
- 산신각, 용왕전, 미륵전, 기도방 2동
- 뒷산 밤나무 100주(매년 수확)
- 소나무와 산 계곡물이 평생 마르지 않고 돌과 미륵 바위 자연석이 많이 있습니다
- 지상물 일체포함
- 천하에 명당자리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 가액 : 3억

011-278-9449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평원동
- 평수 35평, 3층 건물의 3층 외 방1개, 옥상 30평 이용가능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 칠성탱화, 영가단, 앰프 및 최신시설 완비
- 냉장고, TV, 컴퓨터, 에어컨 등, 주방집기 일체
- 몸만 오시면 됨
- 인수시 모든 주거시설 양도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6403-3700

별장 같은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의령(진주 15분 거리)
- 대지 300평
- 요사채: 그림같이 이쁜집(25평) 전원주택 형태
- 법당 33평, 삼존불, 원목가구(피나무) 원불전, 내부시설 여법히 조성
- 모든건물 냉난방, 몸만 오셔도 법회가능
- 마당 : 정원시설, 정원석등 아주 넓음
- 원목으로 조성된 루각(5m×5m)
- 야외음악회 다수 개최 할 수 있음
- 가액 : 3억 3천만(융자 5천 안고)
- 꼭 하실분만 연락요

010-6833-5118

명 당 터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신축
- 보은 IC에서 10분 속리산 20분거리
- 탁트인전망 뒤에는 산, 땅모양 좋음
- 귀농 귀촌 하실분, 사찰 암자, 휴양지 적지 아주좋은 명당터, 조경석, 잔듸마당
- 총면적 1025평, 대지285평
- 신축 건평30평 2층 10평 차고 창고 보일러 기름 화목 겸용
- CCTV설치 150미터 암반약수
- 속리산 물줄기가 건물 (주변) 앞,뒤로 물줄기 흐름
- 가액: 3억8천만원

010-5458-2258

포교원 안내

- 위치 : 포항시 해도동
- 평수 : 35평 5층(승강기운행)
- 삼존불 외 모든시설 완벽
- 보증금 3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는 1200만원 중 어려운 스님께 보시하는 마음으로 450만원만 받습니다
- 모든 주거 시설 완벽 몸만오시면 됨
- 금융기관 시장 밀착지역임

010-3999-3891

청평 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3,욕실2,거실,주방,패치카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작은방 2개중 1개는 구들방임
- 가액 : 2억 6천만원

010-9411-5302 (주인직)

사 찰 안 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2,103㎡
- 건평(법당, 요사) 329.4㎡
- 창고, 기타 약 15평 약 25평은 기초공사 완료
- 석등 외 조형물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가액 : 7억 8천만원

010-7582-009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두동면 부근 부근
- 대지 180평, 대웅전 25평, 지장전, 삼성각, 대중방 8개 예쁜 용왕당
- 연못 및 청정지하암반수 있음
- 가액 : 보증금 4,000만원에 월 30만원(절충가능) 시설비 500만원

010-4855-7205
010-3036-767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 전 1,000평, 대지120평
- 임법당 18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23평(친견실 및 방3칸)
- 공양간 및 아래 요사채(방3칸)
- 가액 : 비품대 500만원 월세 10만원(보증금 없음)

010-6707-604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층
- 삼존불, 모든 조건 완벽
- 중국 급 이민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70만원

010-5488-1080

사 찰 안 내

- 춘천 3,600평 3억 6천 주변시세 반값
- 요양원 사찰건축 가능
- 경북 영주 2,500평 18억 복지원 요양원
- 현재사찰 운영 중, 모든 조건 완비
- 서울 상계 30평 2층 포교원 8천만원
- 35년운영중
- 수락산역 200M

010-4880-7890

농 가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 양동 금왕리
- 땅-지상권만(문중땅)
- 건물 3동(1동은 황토방)
- 주차장 있음
- 가액 : 3천 5백만원

010-9849-7727

포교선원안내

- 위치 : 강원 속초 중앙시장 초입(최상급)
- 평수 : 80평(4층 건물 3층 전체) (조명단청완비)
- 아미타, 관세음, 대세지, 지장, 산신
- 법당, 친견실, 스님방, 별도방1, 보일러실 실내(비데)화장실, 목욕실 별도
- 스님사정상 급 안내, 즉시법회완료
- 가액: 전세금 2,50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2)826-6410
010-3750-5424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 평수 70평, 3층
- 삼존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 원불 400불, 방3개
- 최고시설 답사후 결정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65만원

011-794-2066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사찰
- 대지 694㎡(210평)
- 법당 132㎡(40평) 요사채132㎡(40평)
- 텃밭 165㎡(50평)
- 건물 2동 공부방 • 최고자리
- 가액: 9억 5천 급 양도

새한길부동산중개)연제구/고중지, 이세하

010-3808-4499
051)925-229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하단 1동
- 2층 35평, 방2개, 법당
- 몸만오시면 됨(완벽한 조건)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600만원

010-2654-482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소재
- 대지 600평, 법당 50평, 요사채30평
- 산신각, 용왕당, 주지실
- 가격 상관없이 하실 분 보고 결정

010-8957-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대구 팔공산 자락 노태우 전 태통령 생가 근방
- 평수 : 대지 100평, 건평 28평
- 1층 방3, 주방, 거실 / 2층 법당 20평 증축
- 삼존불, 미타 관음, 세지, 상단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범종, 소불 108위
-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3천, 월세 3천에 월 50만원

010-8611-7568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 안양 호계동 경수산업도로 대로변 호계시장 입구
- 평수 24평, 5층건물 3층
-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 칠성, 용왕, 산신탱화, LED영가단(540), 인등(170), LED 연등(300) / 방2, 주방, CCTV 4대 설치
- 시설완비 현재 법회중
- 냉장고 2대, 전자레인지, 정수기 세탁기 등, 주방집기 일체
- 가액 : 보증금 1,300만원 /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8369-3569
010-3136-8889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구미시
- 약사여래 기도 도량
- 주차편리한 대로변
- 포교에 최적지이고 완벽한 시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30만원

010-6303-234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임) 요사채 2동
- 시설 완비
- 가액 : 3억

010-3508-7710

(임야)나무삽니다

- 위치 :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 임야 3,000평 부터
- 도로개설 무료

010-3288-13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 총평수 750평, 대지300평, 전 45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35평
- 사찰에서(대진, 고래불해수욕장) 5분거리
- 가액 : 2억 8천만원(절충가능) (새마을금고 대출 5천 5백만원)

010-4747-316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충무동 시장통內
- 평수 : 83평(법당, 공양간, 요사체로 구분)
- 보유내용 : 삼존불, 인등 (지장불 108불, 관세음보살 108불, 약사여래불 108불, 옥지장불 197불)
- 상단, 신중단, 영단, 인버터에어콘(냉 · 온방 가능)
- 가액:전세금 2천만원, 월세가 66만원 보증금 2000만원 (절충가능)

010-3628-1156(바로 입주 가능)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수안동 지하철, 버스 5분거리
- 4층건물중 3층, 4층 각 60평
- 3층 : 법당, 공양간, 종무실, 접견실 4층 : 주택, 방 3칸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세130만원 (3, 4층 포함, 분리도 가능) 시설비 2,500만원

010-3664-1387

이타적 인간의 뇌

에릭 호프만 (뇌연구 박사)

〈3〉 의식의 확장

우뇌 감정은 표현하고 생각과 말 줄여라

뇌파의 종류

뇌와 수십억 개의 뇌세포는 전기적으로 작동한다. 뇌는 일생동안 밤이나 낮이나 전기적으로 활성화된다. 대규모 뉴런 다발들이 서로 협응하거나 응집할 때(동시에 활동할 때) 작은 전위 변동이 일어나 소위 뇌파를 생성한다.

전극을 두피에 붙이면 그 전기적 활동을 측정할 수 있다. 그렇게 포착한 전위 변동을 증폭시킨 후 컴퓨터로 전송해 모니터에 표시한다. 이런 식의 뇌파 측정 방법을 EEG라 한다.

뇌파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가장 느린 뇌파는 델타파(delta wave)로서 혼수상태나 깊은 수면중에 우세하다.

○ 두 번째로 느린 세타파(theta wave)는 충동, 감정, 무아지경, 꿈꾸기와 관계가 있다.

○ 중간 대역의 주파수를 가진 뇌파는 알파파(alpha wave)다. 알파파는 의식적인 집중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외부세계와 내부세계 사이에,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놓인 일종의 '출입구' 라고 할 수 있다.

○ 베타파(beta wave)는 빠른 뇌파로서 정신적으로 활발하고 흥분하고 집중된 상태를 나타낸다.

○ 가장 빠른 뇌파는 감마파(gamma wave)다. 이 뇌파는 고도의 집중과 각성을 반영한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일부 고차원 의식에서도 감마파가 등장한다.

델타파와 세타파는 무의식 상태를 나타내는 반면, 알파파와 베타파와 감마파는 의식 상태를 나타낸다.

뇌가 더욱 활성화되거나 흥분할수록 뇌파의 주파수가 높아진다. 반면에 졸음을 느끼거나 잠자고 있을 때는 주파수가 낮은 느린 뇌파가 우세하다. 이것이 뇌파의 기본 원칙이다. 뇌파의 주파수는 주의의 방향도 알려준다. 내면의 정신세계에 주의를 기울일 때는 저주파의 느린 세타파와 알파파가 우세하다. 그리고 바깥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는 고주파의 빠른 베타파와 감마파가 우세한 경향이 있다.

뇌파의 주파수는 의식의 차원을 반영한다. 그리고 의식의 차원은 서로 다른 뇌 구조물 및 뇌 기능과 관련이 있다. 오래 전에 진화해 뇌 깊숙한 곳에 자리한 구조물들은 서파(slow wave), 즉 델타파, 세타파와 관계가 있다. 반면에 더욱 최근에 진화해 뇌의 상부에 위치한 구조물(신피질)은 속파(fast wave), 즉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와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뇌파의 주파수는 뇌 구조의 성숙 수준을 나타낸다. 방출되는 뇌파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그 뇌는 더욱 성숙하고 활발하게 작동한다.

명상 고차원 의식을 향해

명상은 동양에서 수천 년 동안 전해온 수행법으로 특히 인도에서 매우 널리 퍼져 있다. 서양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유행했으며 일부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1957년에 박치(Bagchi)와 웽거(Wenger)가 명상 중에 알파파가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 수많은 연구가 그 사실을 거듭 확인해주었다. 또한 아주 깊은 명상에 들었을 때, 뇌는 느린 세타파를 생성하기 시작해 정서적이고 꿈결 같은 잠재의식 상태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려준다는 것도 드러났다.

박치와 웽거가 이 연구논문을 출간하기 2년 전에 프랑스의 연구자 다(Das)와 가스토(Gastaut)역시 명상과 뇌파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명상을 하는 동안 알파파가 증가하다가 그 두 연구자가 황홀한 희열(ecstasy)이라고 부르는 상태에서는 알파파가 사라지고 빠른 베타파와 주파수가 40Hz에 이르는 감마파가 등장했다. 이것은 명상 중에 40Hz의 감마파의 출현을 최초로 포착한 연구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감마파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2004년에 이르러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리처드 데이비슨 연구진이 명상을 하고 있는 티베트 수도승 집단을 연구했다. 달라이 라마의 제자들 중 가장 뛰어난 명상가 여덟 명이 연구를 위해 데이비슨의 실험실을 방문했다. QEEG를 사용한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명상 중인 수도승들의 전두엽에서 감마파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인도의 힌두교에서 실천하는 전통적인 명상은 눈을 감고 신체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기법을 적용한다. 호흡에 집중하거나 만트라를 읊조리는 것이 그 예다. 이것은 생각이 끊이지 않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기 위해 고안된 기법이다. 이런 유형의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알파파가, 특히 후두부에서 증가하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입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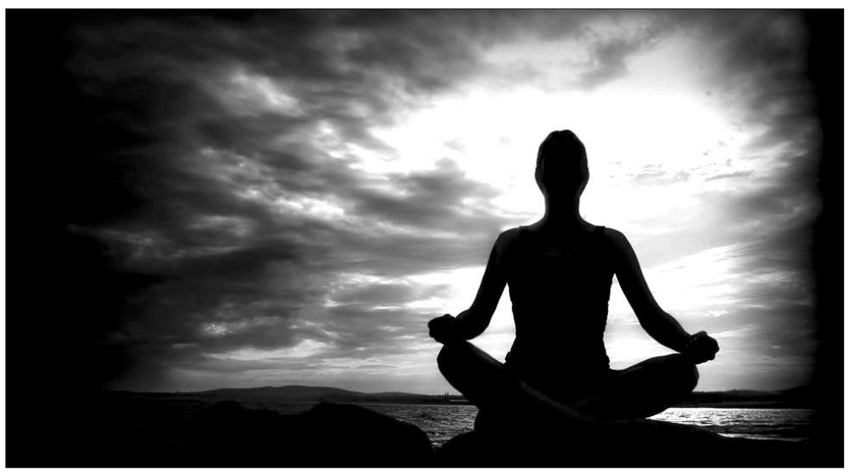
불교의 전통적인 참선에서는 주로 눈을 완전히 뜨거나 반쯤 뜨고 명상을 한다. 신체감각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대상 없는 명상(objectless meditation)'이라고도 부르는 기법을 실천한다. 사랑이나 자비, 감사에 집중하는 이 기법이 바로 리처드 데이비슨이 연구한 티베트 수도승들의 명상법이다. 이 연구에서 그는 감마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다.

좌반구와 우반구가 감정을 다루는 법

트라우마와 연관된 감정이든 일반적인 감정이든, 두뇌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감정은 변연계에서 생겨나고, 처음에는 주로 우반구에 영향을 준다. 일차의식의 거처인 좌반구는 감정을 다룰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사실 좌반구는 감정을 자주 적대시하고 피하려고 든다. 좌반구는 많은 방법으로 감정을 차단할 수 있다. 끝없이 생각하거나 끝없이 말하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다. 좌반구의 그런 지나친 활동은 뇌량을 통해 우반구 활동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반구는 좌반구 보다는 감정을 다룰 준비가 훨씬 더 잘되어 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전부 표현하면 그 감정은 대체로 금세 사라진다. 하지만 일어난 감정을 억압하거나 일부만 표현할 경우, 그 감정은 개인을 긴장시킨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감정을 일으킨 사건에 관해 곰곰이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사고는 한없이 이어지고 매우 파괴적인 감정들을 차곡차곡 쌓는다.



우반구는 심리반응 즉시 내려놓지만
좌반구는 분석하고 번뇌 감정으로 바꿔
언어 · 사고 발달로 좌반구 우세해지며
불안 · 분노 · 증오 등 '파괴적 감정' 발생
좌뇌 감정 벗어나려면 명상 해야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줄리언 제인스는 '양원적 정신(bicameral mind)' 이론을 제시했다. 그 이론에 따르면, 뇌의 절반은 '말을 하는' 반면, 다른 절반은 경청하고 복종한다. 제인스는 정동(affect)과 감정(feeling)을 구별하는 이중정서 이론도 제안했다. 정동이란 특정 자극에 대한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심리생리적 반응이자 그 자극과 연관된 주관적 경험이다. 한 예로, 두려움은 위협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그 자극이 사라지면 심리생리적 반응인 두려움도 곧장 소멸한다. 주관적 경험에 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것 역시 금방 사라진다.

만일 시간을 부여해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연장할 경우, 기억하고 예상하는 능력이 강화돼 그 정동을 오래 지속시킨다. 오직 좌반구만 이 시간에(기억과 예상에)골몰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좌반구만이 정동(예를 들어, 두려움)을 지속시키고 그것을 감정(예를 들어, 불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우반구는 이 즉각적인 심리생리적 반응을 즉시 내려놓을 수 있지만 좌반구는 그 정동을 감정처럼 오래, 이론상으로는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다. 한 예로, 과거에 두려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앞으로도 비슷한 일을 경험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만성불안에 시달릴 것이다. 불안은 언제나 결과를 예상할 때 일어난다.

고대인들은 주로 우반구를 사용했다고 줄리언 제인스는 주장한다. 그들은 감정이 없었고 잠깐 지속되는 정동 반응만 갖고 있었다. 언어와 사고의 발달로 좌반구가 우세해지면서 사람들이 정동반응만 갖고 있었다. 언어와 사고의 발달로 좌반구가 우세해지면서 사람들이 정동반응을 연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훨씬 더 나중의 일이었다. 그 일이 일어나자 두려움은 불안으로 바뀌고 공격성은 분노와 증오로, 짝짓기는 섹스로, 수치심은 죄책감으로, 고통은 괴로움으로 바뀌었다. 이 이론이 옳다면 불안과 분노, 증오(그리고 그것에 수반되는 선망과 질투와 앙심) 같은 파괴적인 감정은 좌반구의 영역에 속한다. 이 감정들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에고를 진정시키고 좌반구에서 우반구로 옮겨가야 한다.

화를 내도 될 만한 상황에서는 공격성 같은 반응을 잠깐 드러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기억과 사고와 예상을 통해 공격성을 지속시키고 그 반응을 분노와 증오로 바꾼다면 공격성은 매우 파괴적인 감정이 된다.

파괴적인 감정을 다루는 법을 정말로 알고 싶다면 우반구의 마음을 더욱 정확하게 알아차림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반구를 알아차림하는 확실한 방법에는 명상이나 그 밖의 알아차림 훈련이었다.

정서적 고통과 뇌

우반구와 변연계는 변화된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의 연구에 따르면, 명상과 감정방출치료 후 우반구의 뇌파활동이 가장 크게 변한다.

사람들은 좌우반구의 뇌파 활동이 서로 대칭적이어서 두 반구의 활성화 수준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정상인의 경우 좌반구보다 우반구에서 뇌파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하다는 것을 수많은 연구가 보여준다. 알파파의 평균 활성화 수준은 대뇌피질 활성화의 지표로 자주 사용된다. 알파파가 감소할수록 뇌의 활성화 수준은 증가한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경우 우반구의 알파파 활성화 수준이 좌반구보다 더 저조한 경향이 있었다. 나의 연구에서도 극심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지닌 사람들은 우반구의 알파파 수준이 더 낮다는 것이 관찰됐다. 하지만 이런 불균형은 역전될 수 있으며, 심리치료에 성공한 우에는 보통 정상으로 돌아간다.

좌우반구의 알파파 활성화 수준의 불균형은 후두부보다 전두부에서 나타날 때 훨씬 더 위험하다. 이는 나의 연구는 물론이고 리처드 데이비슨의 연구에서도 드러난 사실이다.

위스콘신 대학의 리처드 데이비슨의 연구에 따르면, 우반구의 알파파 활성화 수준이 좌반구에서보다 더 저조한 사람들은 내향적이고 부정적이고 우울증에 취약한 경향이 있다. 이와 달리, 좌반구의 알파파 수준이 우반구에서보다 더 저조한 사람들은 외향적이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출생시에 어느 정도는 이미 존재하며 성격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 같다고 데이비슨은 말한다.

좌우반구의 뇌파 활동 불균형은 두 반구의 상호작용 방식을 보여준다. 외향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들은 좌반구의 알파파 수준이 더 낮다. 이것은 언어적이고 분석적인 좌반구가 우반구보다 더욱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이 외향적인 사람들의 알파파는 우반구에서 최고로 활발하다. 이는 그들의 우반구가 뇌의 정서 영역에 더 쉽게 접근하고, 따라서 정서적 스트레스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내향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좌반구의 알파파 수준이 더 높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하위 수준의 뇌(변연계)에서 일어난 정서적 스트레스는 주로 우반구에서 알파파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좌우반구의 상호억제 작용으로 인해 좌반구에서 알파파가 증가하면서 좌반구의 낙천적이고 외향적인 특성을 제한한다.

신경생리학자 로언 조셉의 말에 의하면, 언어적인 좌반구보다는 정서적인 우반구가 저차원의 정서적 고통을 훨씬 더 잘 견딘다. 좌반구는 이 '치밀어 오르는 이상한 힘' 에 익숙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서 관찰되듯이 알파파가 우반구에서 더욱 활발하다는 것은 우반구가 더 깊이 자리한 뇌 구조물이 일으킨 감정들에 더욱 익숙하고 그것과 더 많이 통합돼 있음을 암시한다.

만약에 정서적 고통이 좌반구의 기능을 간섭한다면 우리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극심한 정신적 혼란을 겪고 그와 더불어 우반구의 알파파 활성화 수준이 더 낮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일부 연구가 정확히 그것을 입증했다. 골드슈타인과 슈거먼의 1969년도 연구도 그중 하나다. 그 연구 결과, 정신질환자 집단은 우반구의 알파파 수준이 더 낮았고(우반구 활성화)반면에 정상인 집단은 좌반구의 알파파 수준이 더 낮았다(좌반구 활성화).

흥미로운 점은 정상인들도 꿈(REM)수면기와 환각제에 취한 동안에는 대체로 우반구 활동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정신질환자와 자연스러운 환각상태 또는 약물로 인한 환각상태에 있는 정상인들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다. 두 집단 모두 우반구가 고도로 활성화 된다는 것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이 글은 에릭 호프만의 〈이타적 인간의 뇌〉(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 찰 (급)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사찰로 가능함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 30평(삼존불)
• 법당, 방 3개, 화장실 2개, 대문입구 500년된 뜰밤나무도 있음
• 기도하실 스님이나 보살님 대환영 • 가액 : 8,500만원(조절)
010-3321-683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시청 2분거리 (거제시장 2층)
• 위치좋음
• 평수 : 40평, 방3, 주방, 법당, 방음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 / 월 35만원(시설비 3백만원)
010-9421-077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동 / 2층건물중 2층
• 법당 50평, 방 2, 화장실 1(옥상 사용가능)
• 황동불4자(석가모니불,지장보살,관세음보살)
• 법회 즉시가능
• 보증금 300만원 월33만원 / 시설비 2천만원(조정가능)
010-8528-909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구포시장. 지하철1번출구. 최요지 3층
• 건물 3층 45평,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개인사정상 급 안내
• 가액: 전세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4,500만원)
010-4142-6902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갤러리 색즉시공



내소사에서

그 많던 단풍잎 사라지니
발 디딜 틈 없던 절 마당
언젠가 싶게 발길 없네

없는 듯 가뿐하던 날개
오늘은 범종보다 무겁소
늦은 햇살 금쪽처럼 아쉬워
염불 한 줄 들었으면

금생을 절집에서 지냈으니
만 개의 눈도 이제 귀찮소
단풍까지만 보라 했으니
단풍까지만 보고 간다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당신과 나 사이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Buddha in Comic & Ani

⑳ 신카이 마코토의 '초속 5cm'

지구의 중력에서 이탈하기 위해 우주 로켓은 초속 11㎞로 하늘을 질주한다. 풍경을 뚫고 지상을 달리는 KTX의 경우 3백㎞의 속도로 사람을 실어 나른다. 굉장히 빠른 속도도 벚꽃의 낙화 같이 천천히 흐르는 인상적인 순간이 있다. 이들을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에 둔 채 원경(遠景)에서 바라본다면 말이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마음이 가는 만큼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여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신예 감독 신카이 마코토는 이런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각화된 시간의 관념으로 표현해 냈다. 바로 2007년 극장 개봉작인 〈초속 5㎝〉가 그의 작품이다. '앵화초(벚꽃 무리)' '코스모나우트' '초속 5㎝' 총 세 편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뤄진 이 작품은 한 소년과 소녀의 첫 사랑을 냉정할 정도로 중립적이면서 서정적으로 그려낸다. 너무 중립적이다 보니 줄거리도 간단하다.

1화인 '앵화초'는 타카키와 아카리의 아련한 첫사랑을 다룬다. 타카키와 아카리는 내성적인 성격과 좋아하는 것이 서로 같은 친구이자 연인이다. 하지만 벚꽃비가 내리는 봄날,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아카리가 전학을 가면서 그들은 아쉬움을 남긴 채 헤어진다. 편지만 주고받은 지 반년이 지나고, 더 먼 곳으로 전학을 가게 된 타카키는 아카리를 만나기 위해 기차에 몸을 싣고 그녀를 만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2화 '코스모나우트'에서는 타네가시마 섬에 이사 온 타카키와 그를 좋아하는 동급생 카나에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카나에는 등하교를 함께 하고 누구보다 가까이 지내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멀리 있음을 느낀다. 고백하려고 한 그녀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는다. 3화 '초속 5㎝'에서는 이제는 어른이 돼 버린 타카키가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이다.

빛의 연금술사 · 아날로그적 감수성 등 감독의 수식어는 신카이 마코토의 〈초속 5㎝〉를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키워드다. 소녀적 감수성으로 충만한 그의 작품 세계는 특별한 사건이나 굴곡이 없다. 소위 말해 서사라고 할 만한 요소가 그의 작품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옴니버스 애니메이션 〈초속 5㎝〉는 산카이 감독의 전작 〈별의 목소리〉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 등과 마찬가지로 어긋나는 사랑에 아파하고 견뎌내는 성장통의 또 다른 버전이자 오메가이다. 전작과 달리 SF요소를 배제한 것도 인간의 관계를 중립적이며 객관적으로 성찰하려 한 감독의 의도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

실제 〈초속 5㎝〉는 인생사가 설명이 불가능한 것처럼 인물이 정확히 어디로 떠나는지, 그들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비중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전차의 창문 위로 흘러가는 풍경이나 봄날 벚꽃 무리와 겨울 눈꽃의 이미지를 대칭시키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관통하는 마음의 속도와 시간 · 거리의 관계를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상충의 이미지를 통해 감독은 보는 이로 하여금 사람과 사람사이의 속도를 느끼게 해준다. 실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살아가야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작품의 부제도 이를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다.



〈초속 5㎝〉의 한 장면. 사람과의 관계를 속도로 성찰해 냈다. 감독은 상충의 이미지를 통해 감독은 보는 이로 하여금 사람과 사람사이의 속도를 느끼게 해준다.

사람 사이의 관계 · 거리를 '속도'의 개념으로 성찰해 사랑은 곧 '일념즉무량겁'

또한, 〈초속 5㎝〉에서 보여지는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인 '초속 5㎝'와 우주선이 발사장으로 가는 '시속 5㎞' · 타카키의 헤어진 여자친구 문자에 쓰여진 '당신과의 거리 1㎝'라는 독백은 사람의 마음이 가지는 속도에 대한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요소이다.

아직 어렸을 적의 타카키와 아카리는 초속 5㎝라는 속도로 서로를 바라보며, 언제까지나 같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1편 에피소드 말미 멀어진 타카키와 아카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초속 5㎝는 빠르면서도 느린 속도다. 유일하게 서사가 존재하는 1편의 주된 플롯은 소년이 소녀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폭설이 내려 멈춰진 전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소녀를 생각하며 "악의적인 시간이 나를 지나고 있다"고 독백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기다려 본 사람은 안다. 만나러 가는 1분이 조마조마하면서도 길게 느껴진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몸의 속도가 마음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을.

속도는 결국 시간과 직결된다. 단순히 사랑이라는 인연은 피고 지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 아니라 '일념즉무량겁(一念卽無量劫)'인 것이다.

불교사상을 도식화해서 보면 인생의 고달픔(四苦)을 깨닫고, 그 고달픔의 번뇌 끝에 삶이 공(空)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하여 세상만물에 대해 애틋한 마음(慈悲心)을 갖는다는 것이다. 다시 겨울이 지나 벚꽃이 만개한 봄 그녀와 놀던 전찻길에서 다시 그녀와 스쳐지나간다. 타카키는 지나가는 전차들을 보며 서 있다. 왠지 그녀도 돌아 봐 줄 것 같기 때문이다. 그전에도 그랬듯이. 하지만 그녀는 자리를 떠나고 없다.

그녀와 자신과의 시간은 지나간 전차처럼 빠르게, 멀리 흘러갔기 때문이다. 타카키는 미소를 보이며 길을 걸어간다. 이는 지나온 시간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되살아났음을 의미한다. 흩날리는 벚꽃사이로 모든 추억과 감정들이 녹아든다.

흔히 '이뤄지지 않는 사랑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반문을 하게 된다. 사라지고 만 것은 본디 없던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하고.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추억이 되는 날은 반드시 온다. 그 시간 안에는 '내'가 있고, '네'가 존재한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인연은 가슴 뛰는 기적 같은 나날과 달콤한 아픔이 함께 영원히 빙글빙글 돌아가는 끝나지 않는 관람차가 아닐까. 우리는 평생 사랑하며 살아야하기 때문에.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원 문재현 선사님 의 68번째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6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중 26권 출간! 고산, 조산, 남원, 동안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하여 변재에 자유자재했던 유마거사의, 부처님 당대를 휩쓸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변재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유마거사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대원선사 토끼뿔〉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바로보인
☎ 031-534-337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삼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동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동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동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거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차브레이크 장착으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 · 하차 시 유용합니다.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납 베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어떠한 哀苦도 내 마음의 한생각에 다 녹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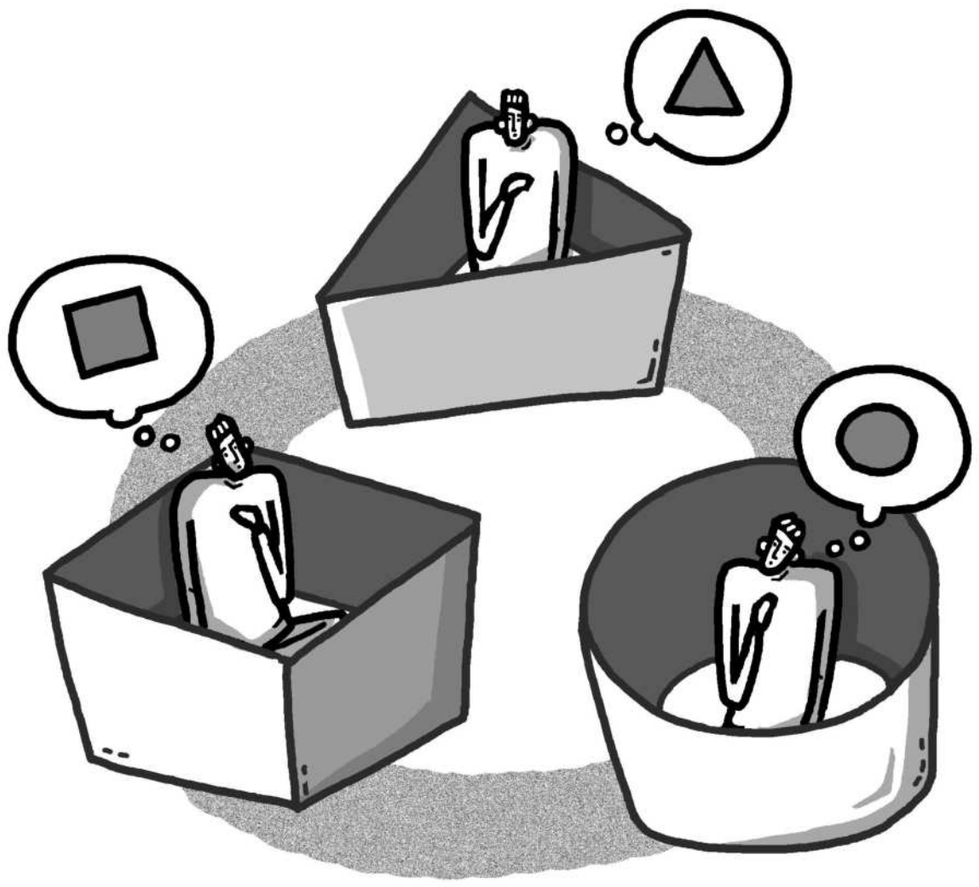
집이 부족해서 쌀쌀하고 추운 날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바깥에 서 계시게 해서 죄송한 마음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한자리를 하게 됐고 이렇게 더불어 같이 한 찰나에 한자리를 하고 한 찰나에 떨어지고 한 찰나에 한마음이 되고, 이렇게 묘한 법을 우리가 한자리에 도반으로서 같이 공부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이 도리를 모르고 간다면 세세생생에 이 자리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를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걸어온 발자취가 없듯이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가는 것이 듣는 것도 혼자가 아니고 또 보는 것도 혼자가 아니고, 말하는 것도 혼자가 아니고, 먹는 것도 혼자가 아니고, 만나는 것도 혼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같이 더불어 돌아가는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상·하, 즉 사방이 총 합해서 우리가 평등공법(平等空法)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모두를 합해서 공했다, 색(色)이다, 공(空)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듯이 하나도 혼자 하는 게 없고 혼자 걸어온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걸어왔지만, 내가 걸어왔다고 하지만 내가 걸어왔다고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몸속에 내 자생중생들이 많은 것이 다 나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걸어온 게 없노라 하는 겁니다. 혼자 보는 것도 없고 혼자 듣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니 내세울 게 어디 하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외부의 모든 생활 자체가 혼자 사는 게 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두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의 이 세상 만사가 다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는 그 자체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영원한 것을 우리 자체가 모르기 때문에 즉, 50% 반쪽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산다' 여기에도 무척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릴 게 하나도 없는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일체 만물만생이, 즉 말하자면 가다가 만나고 가다가 보고 가다가 듣고 할 때마다, 이런 게 있죠. 밥을 지을 텐데 소켓이, 이건 비유하는 겁니다. 소켓이 맞지 않으면, 거기다 끼워도 맞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질 못해서 밥을 못 지어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모든 내 자생중생들을 다스리면서 화(化)하게 만들어야 바로 그게 화한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어서 항상 소켓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이 되는 것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과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즉 말하자면은 주장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걸 안테나라고 해도 됩니다. 내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 놔야 일체제불의 마음이 내 마음을 통해서 불이 들어올 수가 있고, 만약에 소켓이 맞지 않는다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밥을 지어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꼭 내면의 나부터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은 뭐냐? 내 자생중생들을 남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과거로부터 자기가 악업 선업을 지은 자체, 근본의 표시입니다. 내 몸뚱이 속에 지금 악업 선업이, 과거의 악업 선업이 다 들어 있고 또 지금 살 때에 짓는 것은 미래의 선업 악업이, 미래에 올 것이 입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거는 지금 나오고 미래에 현실에 올 것은 자꾸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입력된 게 연방 나오면서 연방 미래로 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서 오는 그 자체의 업식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마음 속에 그 악업 선업의 중생들의 의식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인연을 지은 거니까. 그래서 나오는 대로 거기다 놓으면 즉, 미래의 그 업을 지을 것도 없어지고 과거의 업 지은 것도 없어지는 까닭에 거기다, 모든 것은 한 구녁에서 나오는 거 한 구녁에다가 놓아라, 이런 소립니다.


그림 · 최주현

내가 이런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큰 나무가 있으면 딱따구리가 그냥 덮어놓고 쪼죠. 쪼아서 나무가 뚫어지죠. 그렇듯이 여러분은 덮어놓고 무조건, 내 큰 나무라고 해도 됩니다. 내 나무에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딱따구리가 쪼듯 그렇게 자문자답하면서 생활하면서 해나가야 그대로 생활이 참선이며 생활선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바로 좌선입니다. 이 모두가 이렇게 참선을 할 때에 생활이 없는데 부처가 어딨겠습니까? 우리들이 없는데 또 부처가 어딨겠습니까? 우리들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으니까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의 모든 것이 과거로부터 현실로 나오는 거니까 그 나오는 데다가 직접, 딴 데 바깥에다가 허우적거리지 말고 안에다가, 모든 것은 거기다가 놓고 맡기고 '너만이 이끌 수 있다. 너만이 아픈 거를 낫게 할 수 있다. 너만이 화목하게 할 수 있다. 너만이 깨치게 할 수 있다.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다.' 육신과 정신과 둘입니까? 둘이 아닌 까닭에 너와 나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해 주시오' 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지. 그렇게 놓고 갈 때 비로소 그 통은 딱따구리가 쪼아서 뚫어지듯, 뚫어서 그 나무의 속이 탕 비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집을 삼아서 차고 앉는다 이겁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은 알을 까서 또 생산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깨달으면 알을 깔 수 있고, 생산을 해낼 수가 있고, 깨닫지 못하면 생산을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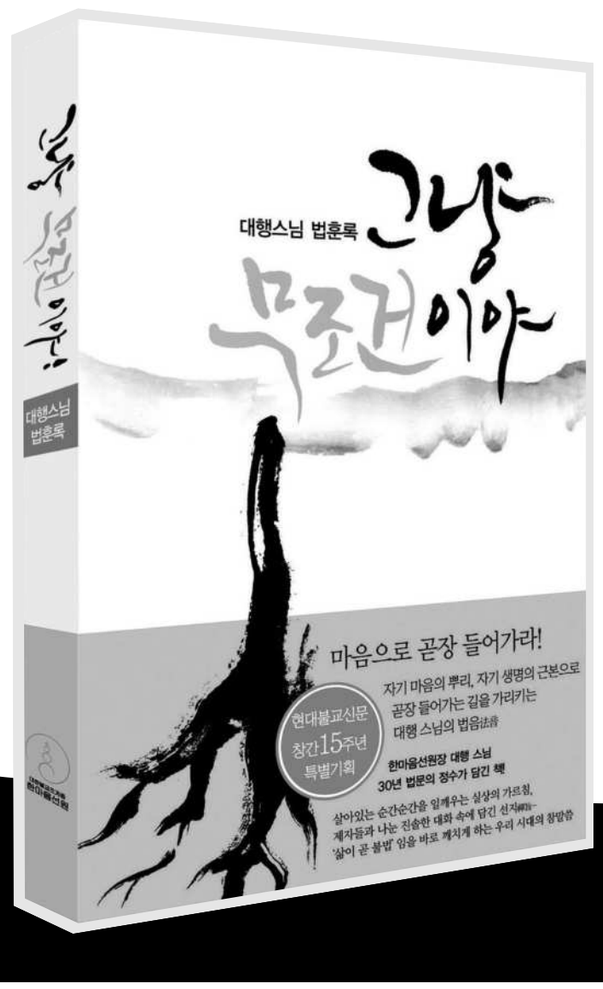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그래서 이 깨달은 마음은 마음과 마음이 위에서부터 직결이 돼 있고, 아래서부터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과 마음이 한데 찰나에 합쳤다가 찰나에 떨어지고 찰나에 합쳤다 찰나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과 마음이 항상 둘이 아님을 뜻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법좌(法座)를 낼 수가 있고 생산을 해낼 수가 있는 까닭에 바로 진짜 부처님이 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는 이 과거의 나와 현실의 나가 둘이 아니게 상봉이 돼야만이 되지 과거의 나가 즉, 전의 조사(祖師)들은 부(父)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의 나가 바로 나의 조상이니까 '부' 고, 현실의 나가 '자(子)' 가 됩니다. 그래서 부와 자가 둘이 아니게 상봉할 때, 깨달을 때에 비로소 그 둘이 아닌 도리의 섭리를 알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상봉함으로써 마음과 마음이 전체 주장자와 주장자가 둘이 아니게끔 찰나찰나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말로 이론으로 법이 떨어지니까 될 수가 없고 법설이 될 수가 없고 한데 떨어지는 거죠. 그 음파가 한데 떨어지니까, 통신이 될 수가 없으니까, 성자가 날 수가 없죠. 그걸 성자가 날 수 있게끔 하는 건 생산해내는 생산처가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내 마음, 마음 자체가 생산처가 되어서 바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법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러하듯이 길을 가다가도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가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생활 속에서 오는것 마다하지 말고 공부재료로 삼으세요

☞ 29면에서 계속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소가 여러 마리가 끌려간다 이럴 때, '내가 그 당시에 봤다.' 이럴 때, 한순간에 한 찰나에 볼 때 한 찰나에 이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한마음이 된 주장자 자체는 바로 안테나가 돼서 일체제불의 마음이 찰나에 듭니다. 그래서 한마음이 되어서 불이 들어오게 되니 그 소들은 무명을 벗고 인도 환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도리를 모르고 만약에 옷을 벗는다면 한 치도 발을 떼놓을 수가 없다, 이 소립니다.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항 속에서 한 발짝도 떼놓을 수 없는 그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주머니에 있는 것이 어항 속에서 고기가 살듯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 그 어항 속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내 자생중생들 그 자체 악업 선업에서, 그 업 굴레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다. 첫째는 내 업 속에서 벗어나야 그 어항, 업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구경경지(究景境地)에 이르게 되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인! 즉 자유인이란 부처를 뜻하는데 여래(如來)라고도 할 수 있죠. 여래라는 뜻은 우리가 한데 합쳐서 전체 돌아가면서 나투고 화(化)해서 돌아가는 그 평등공법(平等空法)이 즉 여래의 집이라고 합니다. 여래의 부처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선(生活禪)이자 여래선(如來禪)으로서 지금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래선.

전체 우리가 하나하나가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꽃이 예쁘게 피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찰나에 꽃과 나와 둘이 아니게 그 소켓이 맞기 때문에 딱 맞아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꽃은 화(化)합니다. 꽃이 화해서 내가 됨으로써 바로 나는 수많은 거를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여기서 수없이 꺼내도 줄지 않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야만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도리(禪道理)에서는 여자 남자가 따로 없고, 길고 짧은 게 따로 없고, 더럽고 깨끗한 게 따로 없고, 부자고 가난하고가 따로 없고, 또 부처 중생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부처님을, 엊그저께도 그렇게 묻는 분이 있었는데 부처를 어떻게…. 개라면 뭐, 뭐라면 집어죽여서 먹겠다 했다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보면 모두가 내 마음 속에 한마음으로 돌아가니 내면의 자생중생들과 외부의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항상 통해서 돌기 때문에 항상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도 집어먹고 중생도 집어먹고, 하다못해 풀 한 포기도 집어먹고 저 곤충에 이르기까지 집어먹고 다 집어먹고 갖춘 그런 것이 장엄(莊嚴)이라고 합니다. 장엄을 갖춘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또 우연히도 없습니다. 절대적이지.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서 물건값을 주고 물건을 사 왔다면 돈을 준 사이도 없고 물건을 준 사이도 없이 우리는 여여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두가 다 우리 생활 속에서 터득할 수 있는 것이니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프다든가 괴롭다든가 애고(哀苦)가 닥친다든가, 항상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마는 유전성이라든가 영계성、업보성 또는 세균성, 이 모두가 바로 내 마음의 한생각에서 그것을 다 녹일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그거를 녹이지 못한다면은 항상 그것이 뭐 에누리없이 나오는 것이니까 나오는 데다가 되놓는다면 카세트에 넣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짐으로써 다시 녹음을 해넣는 관계상 그 업보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상、하, 사방 모두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그 세상이 또는 삼세(三世), 삼심(三心)이 일심(一心)이 돼서 우리가 일심도 공(空)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나 좋은 공부입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조건과 권리를 가졌죠. 그런데 여러분이 딱 막혀서 나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이 되고 내가 속상해서 죽겠다고 하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놈이 왜 저런가 하고 그렇게 원망을 하게 되고 증오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증오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죠.

알고 보면 저 나무 뿌리에 의해서 나무가 살고 있는데 그 옆의 나무가 스쳤다고 해서 가지가 부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가지 부러진 거는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이지 어째서 옆의 나무의 잘못입니까? 옆의 나무의 잘못을 생각한다면 원망이 돌아가고 증오가 돌아가고 이럼으로써 항상 악업에 말리게 됩니다. 선업 짓는 것은 몇 알갱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모두 악업에 속하죠.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악업을 짓지 말라고 하되 선업도 짓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선업을 짓게 되면 악업이 또 좇고 악업을 짓게 되면 선업이 좇으니 이거는 평생에, 아니 세세생생에 벗어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 악업도 놓고 선업도 놓아라. 가는 거 잡지도 말고 오는 거 마다하지도 말라. 이 모두가 우리가 선업을, 잘했다고 그래서 내가 공덕이 많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행을 잘했다고 해서 내가 잘했다고 아무리 꼬나들고 내세워봤자 절대로 그거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입니다. 그거는 공덕이 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바로 한 나무가, 전체가 살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뿌리로 인해서 살고 돌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는 누구를 원망하기 이전에 모두가, 나는 뿌리로 인해서 살고 있으니까 '뿌리에서만이 내 지금 몸뚱이, 가지, 잎새 모두를 살리고 있구나,' 하고 살아야만이 마음이 안정되고 내 방석을 내 방석대로 그대로 안정되게 찾고 바로 누구의 원망도 없이 아주 그 선법(禪法)을 그대로 잘 해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나무라면은 나무의 잎새와 가지와 나무가 공기와 태양빛을 흡수하면서 뿌리에서는 수분과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리면서 또는 위에서는 그런 거를 흡수해서 또 아래로 내려보내면서, 정맥 동맥이 오르고 내리고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나무와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 텔레비전을 보시고 잘 아시겠지만 일체 만물만생이 우리들 살림살이와 우리들 생명과 우리들 그 작용하는 작용법과 뭐가 다릅니까? 차원이 낮고 높고 그것뿐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업신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있다고 세울 수가 있습니까? 모두 과거의 수억겁 광년 전부터 우리는 미생물에서부터 화(化)해서 진화되고 진화돼서 이렇게 나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은 안 돼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업신여기기 이전에, 벌레 하나를 봤을 때도 업신여기기 이전에 내 몸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 몸속을 볼 때 천차만별의 모습과 천차만별의 의식과, 그 생명들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그 많은 자체가 바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억겁 광년 전서부터 이렇게 모습을 해가지고 진화됐기 때문에 그놈들을, 그 자생중생 놈들을 안고 우리는 집합소가 돼서 집이 돼주고 있다. 심부름꾼이 돼주고 있다. 역시 관리인이 돼주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다못해 밥 한 그릇을 먹는다 하더라도 혼자 먹는 게 아니구나. 바로 마음으로써 마음을, 의식을 다스리면서 밥 한 그릇을 먹되 너희는 전부 공(空)해서 한마음이니까 바로 둘이 아니다, 너는 내 마음에 의해서 모두가 작용하고 돌아가는 바로 나인 것이다. 이럴 때 바로 그 속에서 의식들도 '나를 내가 죽일 수는 없어.' 하는 생각이, 의식이 듭니다. 그거는 의식들이기 때문에 이 촉각으로 인해서 더 잘 압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두뇌는 둔하지만 그 자생중생들이 한마음이 돼주면은 아주 촉각의 두뇌가 아주 성숙해집니다, 물리가 터지고. 그래서 우주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만사는 모두가 가설이 돼 있다. 가설이 돼 있어서 우리 이 마음에 그렇게 통하면 직결이 된다.

자생중생들이 즉 말하자면은 유마힐 거사가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왔을 때 중생들의 병이 다 나아야 내 병이 낫노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생중생들을 다스리면서, 내 자생중생들이 병이 났으니까 내가 병이 나는 거지, 자생중생들이 건강한데 내가 왜 병이 납니까? 자생중생들이 다 병이 나아야 내 몸이 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이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인 줄 알고 다스려야 합니다. 제각기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된다면 그게 아수라장이지 다른 게 아수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 바깥으로도 아수라장을 만드는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포 하나하나의 생명들의 의식이 바로 지금 지구의 레이더망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우주의 법계입니다, 이 세포 하나하나가. 우주의 법계처럼 이 레이더망처럼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을 관리하고 대기권에서 모든 것을 작용합니다. 그리고 안으로 통신할 건 통신하고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럼 안에서 통신을 받아서 또 작용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대기권에서 의식들이 나가서 마음을 조절하는가 하면 모든 것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모든 거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한마음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내 한마음이 안으로 그 뭇 중생들을 다스리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생활 속에서 그대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쫓아가려고 애쓰지 말고 버리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대로 생활 속에서 오는 것 대로 마다하지 말고 공부하는 데 그 생활을 재료로 삼는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 되하고 하는 말 되하고 하는 거같이 들을지 모르지만 너무도,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얘기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릇이 요만한 데다가 들이부으면 그게 담겨 있습니까? 또 요만한 도라무통에다가 우주 같은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한데 쓸어 붓는다고 해서 그게 담겨지겠습니까? 다 흘러버리지. 여러분이 차원이 높을수록 아마 그릇은 크고 담기는 거는 여여하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자리에서 생기는 그 그릇이 크고 작은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깨쳐서 부처님이 됐다 할지라도 한 그릇의 부처님이지 두 그릇의 부처님이 아닙니다. 물론 한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그랬지 부처님이 있다고 했다면 부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부처님이 개개인으로 돼 있다면 여래(如來)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이 제각기 모두 돌아간다면 여래선(如來禪)이라는 말을 안 했을 겁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외부의 모든 것이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면도 내 개개인으로 사는 게 하나도 없고요.

(다음 호에 계속)

일체제불의 마음은 항상
내 마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 놔야
일체제불의 마음이 내 마음을 통해서
불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1월 21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원

현 불 샵 단독입점

현불샵이 추천하는 명품청동촛대세트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불자 세상보기

만병통치약과 진시황 그리고 탐욕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아사이베리, 고지 등 과일 주스가 암과 당뇨병 등에 특효가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팔아온 일당이 경철에 붙잡혔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를 통해 원가보다 열 배나 뻥튀기를 하여 무려 739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한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필자는 언뜻 진시황을 떠올렸다. 웬 뜬금없이 춘추전국시대를 종식시키고 오늘의 대중국을 형성케 한 기초를 만든 진시황을 떠오르는가? 천하의 진시황도 만병통치약에 현혹돼 사기를 당한 제일 고전적인 사례가 아닐까 해서이다. 불로장생이라는 진시황의 허황된 꿈을 이용하여 얼마나 많은 사기꾼이 달려 들렀을까(이 중에는 자신이 사기꾼이라는 자각이 없는 확신범도 있겠지만). 불로장생약을 구한다고 오백 명의 동남동녀를 데리고 봉래산으로 떠난 서복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진시황은 납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진시황의 어리석음은 바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닐까. 인간의 특징 중 하나는 인간이 지닌 유한성을 무한성으로 연결시키려는 욕망을 지닌 존재가 아닌가 생각되다. 정신이나 영혼의 무한성을 추구하면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육체적인 무한성은 불로장생의 여러 방법을 찾게 된다. 유한성을 무한성으로 확장시키려는 인간의 열망은 결코 비난 받을 특징이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욕망을 돈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부추기고 이를 이용해 돈을 버는 사기에 있다. 이것은 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인 예로 중세시대의 가톨릭이 면죄부를 돈으로 판 것도 똑같은 경우이다. 중세의 가톨릭을 탓하기에는 우리의 현실도 매우 아프기만 하지만.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미다스의 황금손은 돈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고전적인 은유이다. 미다스는 디오니소스 신을 도운 대가로 신에게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손을 대는 것은 무엇이든 금이 되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음식이 금으로 변하고 포도주 한 방울이 금으로 변하고 심지어 사랑스런 딸도 금상으로 변하고 보니 이 어찌 환장할 일이 아니겠는가. 미다스는 자기의 탐욕을 후회하고 디오니소스 신에게 이 저주를 풀어달라고 청원했고 다행스럽게도 자비를 베풀어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이 신화는 고대 그리스에서보다 오늘날 더 큰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훨씬 더 돈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미다스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 잡혀 허우적거리고 있다.

오늘날 돈은 제일 큰 잡단 환상이 되었다. 많은 영적 선지자들은 이 집단 현상으로 인해 현대인들이 환상을 실제처럼 느끼는 정신병의 질환에서 허덕대고 있다고 한탄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유용성과 효용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문제는 돈의 결핍의 문제보다는 자아의 결핍과 관련된다. 자아의 텅 빈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것은 근원적으로 돈이 아니라 붓다의 가르침이다. 즉 연기의 법칙과 무아의 가르침이다. 붓다의 가르침으로 보면 '돈은 흐르는 과정'이다. 돈의 흐르는 과정을 올바르게 하여 붓다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그건 그렇고, '주스 만병통치약'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노인들이라고 한다. 필자도 만병통치약 선전에 흔들린 적이 꽤 있었다. 주변의 만류가 없었다면 몇 번이나 넘어 갈 뻔 했다. 그 만큼 마음관리 하기가 쉽지 않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시대에 비례하여 그 만큼 노인의 지혜도 커져야 할 텐데. '지금 여기의 감사한 밥상'에 우리의 건강이 있을 것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템플스테이 주간 '문화융성'에 적합

서울 도심 사찰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하며 돌아오는 2015년을 준비하는 템플스테이가 마련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서울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간 '2014 서울 템플스테이 WEEK'를 개최한다. 서울 시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9곳에서 진행되는 이번 주간 행사는 서울시민과 서울을 방문한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다양한 전통문화와 사찰음식,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체험 행사가 마련된다고 한다.

초겨울의 문턱에서 열린 '템플스테이 WEEK'는 당일형과 1박2일 형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에도 '전통사찰 WEEK'를 열고 시내 53개 전통사찰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 같은 주간 행사는 불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데 있어 모범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교문화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은 문화재적 가치를 높게 평가돼서만이 아니다. 승가 공동체의 삶이 사찰 안에서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이다. 한국 불교의 전통이 생활과 삶 속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불교문화재는 보존과 동시에 활용에도 힘을 써야 한다. 서울시가 불교계와 손을 잡고 전통사찰을 탐방하는 '전통사찰 WEEK'와 도심 사찰 속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템플스테이 WEEK'를 진행하는 것은 문화재 활용에 모범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재 활용사업은 현 정부의 문화정책기조인 '문화융성'에도 가장 부합하는 사업 아이템이다. 그래서 문화재청도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역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도 이 같은 활용사업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이제는 구슬을 꿰어야 할 시점이다.

약탈문화재 환수, 남북 협력 계기 되길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이 보관중인 '오구라 컬렉션' 반환을 위해 남북한 불교도들이 뜻을 모으기로 했다.

해외 반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해 활동해온 한국의 문화재제자리찾기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는 11월 3일 '우리 민족의 문화재 반환을 촉구하는 남북 불교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남북은 "도쿄국립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는 '조선 대원수 투구' 등 약탈 문화재들을 모두 다 우리 민족에게 반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남북 불교계는 우리 민족끼리의 가치 아래 단합된 힘으로 일제가 약탈해 간 모든 문화재들을 찾기 위한 공동활동을 줄기차게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남북이 간만에 의견을 모은 것은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인 혜문 스님의 공이 컸다. 스님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 등서 이번 공동성명 문안 조정을 위해 북쪽 불교계 관계자들과 만나 활발히 논의했다.

오구라 컬렉션은 일제 강점기 때 실업가인 오구라 다케노스케(1896~1964)가 한반도 등에서 수집해 간 유물 1400여점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39점이 일본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수준 높은 문화재들이 포함돼 있다. 혜문 스님은 컬렉션 가운데 여러 정황상 도난품임이 분명한 조선 대원수 투구와 오구라가 1964년 작성한 목록에서 "민비(명성왕후)가 죽은 곳(경복궁 건청궁)에서 가져왔다"고 기술한 주칠 12각상 등 34점은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해선 안 된다는 조정신청을 지난 8월 말 접수한 상태다. 비록 일본 법원이 11월 5일 문화재 제자리 찾기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남과 북이 뭉쳐 한목소리로 문화재반환을 위해 타국과 싸우고 있는 점은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민족간의 뜨거운 결합, 즉 하나되기가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되길 기대한다.

발언대

생명나눔실천본부 20년

현재 한국의 장기이식대기자는 2만6천여명. 지난해 실제로 장기이식이 이뤄진 경우는 3천7백명에 지나지 않는다. 장기이식 희망자의 이식 대기시간도 갈수록 길어져 평균 3년9개월이 걸린다. 이처럼 장기기증은 아직 사람들에게 낯설기만 한 것이 사실. 장기기증의 나눔정신은 불교의 보시사상과 떼어서 설명하기 힘들다. 평소 장기기증 운동에 열심인 이들에게 그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장기기증 서약하는 당신이 관세음보살"



정연 스님
삼론종 종회의원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이왕 죽는다면 한 명이라도 소중한 목숨을 살리고 가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보시중의 가장 큰 보시이지 않을까. 부처님은 생명존중사상을 설파하셨고 무소유 역시 강조하셨다. 당연히 장기기증은 부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룩한 행위다.

그러나 스님들 중에도 장기기증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는 분들을 많이 봤다. 수행자가 돼서 몸에 대한 집착을 여의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 실망이 앞선다.

부처님 역시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셨더라면 흔쾌히 장기기증에 동참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 역시 2012년 한쪽 눈의 시신경이 파괴돼 실명돼 버렸다. 지금은 나머지 한쪽 눈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아파보니 환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그래서 주저 않고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장기기증 서약서를 보냈다.

추후에 내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도들에게 항상 장기기증을 권한다. 불자라면 응당 해야하는 보시라고 설득하며 부처님이라면 당연히 마음을 내셨을 거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동감을 표한다. 지금까지 동참한 이들이 3백명이 넘을 것이다.

장기기증에 대한 마음을 내고 이를 결심하는 이들이야말로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다. 다른 수식어는 필요하지 않다.

부처님은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무재칠시를 설하셨다. 가진것이 없어도 내몸으로 할 수 있는 보시에 대한 설명이다. 소유가 아닌 존재 자체가 바로 보시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불자들부터 진정한 나눔에 대해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스님들부터 모범을 보일 때 사회에 생명나눔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다.

"살려는 의지 있는 이들에게 도움되고 싶어"



김순임
생명나눔실천본부 봉사자

2005년, 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입적하시면서 생전 유지에 따라 법구를 기증했다는 소식은 모두에게 감화를 줬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큰스님께서 보여주신 무주상보시행에 큰 감동을 받았다. 당시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스님을 따라 장기기증 서약에 많이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막상 장기기증에 동참할 생각을 하니 용기가 나지 않았다. 3년이 흘렀고, 어느 날 친구가 장기기증서약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속으로 뜨끔했다. 법장 스님 생각이 다시 나면서 마음을 크게 먹었다. 그렇게 2007년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

그 후로 본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캠페인에 나가 사람들에게 장기기증 홍보를 한다. 항상 옷에 장기기증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보여온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기기증에 대해 이야기한다. 10명 중 8명은 거부감을 표시한다. 나이든 사람일수록 심하다. 마찬가지로 사찰에 가서 캠페인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 몇몇 곳에서는 난색을 표한다. 불자들이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보시의 공덕에 대해 수차례 들었을텐데도 장기기증 권유를 극구 뿌리치는 이들을 보면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병원에 와서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몇 년째 병원봉사를 하는데 정말 장기기증이 절실한 사람이 많다. 피부를 재생해야 하는 이들, 눈이 안 보이는 이들, 신장기능이 약화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이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이들에게 떠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든다.

내 추천으로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한 친구는 좋은 눈을 기증하고 가야한다며 꾸준히 눈운동을 한다. 이렇게 살아생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삶을 마감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가는 것도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생각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허리 · 팔 · 다리 · 무릎 · 어깨 등 …
통증이 있으시분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글루코사민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환원 작용한다.
효도선물
글로코에이
신제품

문질러 발라주세요
▶ 허리, 팔, 다리, 무릎,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
▶ 근육통이 있으신 분
▶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기능공 직장인
▶ 수술후에도 통증이 있으신 분
▶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신 분
▶ 골프,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세상에 이럴수가 통증이 싹 ~
120㎖ × 2개 가격 3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칠여래부처님 화현도량 신비의 돌 부처님 부산 자비선원



대중들에게 설법 중인 진성 큰스님

부산 자비선원에 오늘도 끊임없는 불자들 긴 기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바세계 중생들의 힘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칠여래부처님께서 나투셨다는 소식을 듣고 온 불자들의 행렬이다. 도대체 자비선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자비선원 주지 학봉당 진성스님은 남들이 겪지 못한 일들을 수행으로써 이겨내면서 마침내는 칠여래부처님을 친견하시게 된다.

진성스님은 40여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능엄주, 화엄경, 금강경, 법화경, 경전공부와 참선을 해왔다. 끊임없는 수행중에 진성스님은 희유한 일을 겪게 된다. 불기 2558년 3월 25일경 새벽예불 끝나고 참선 중 홀연히 비몽사몽간 중에 바람과 구름을 가르듯이 가사장삼을 휘날리며 주장자를 든 큰노스님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노스님은 한손에는 주장자, 한손에는 큰보자기를 들고 계셨고 그 보자기를 소승에게 내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으로 일체중생을 제도하는데 써라! 아마 만 중생들에게 큰 빛이 될것이다!' 라며 보자기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승이 큰보자기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

"어째서 이런 일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신비의 가피체험

다보는 순간 자루에 들은 돌이 갑작스럽게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너무 황홀한 광채로 인해 순간 눈이 부셨고 고개를 들고 노스님을 바라보니 그 노스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바로 참선에서 깨어났는데 거 참! 희유한 일을 겪는 구나 하며 스님은 평상시 정진 생활을 할 뿐이었다.



돌을 들면서 소원을 비는 불자들

진성스님은 어느날 청도 운문사를 가보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대중스님 한분과 운문사로 가던 중 운문사계곡 입구에서 물이 너무 맑아 잠시 차에서 내렸다. 이때 진성스님은 무언가 발견하셨다. 그것은 다름아닌 아주 볼품없는 못생기고 단단한 돌이었다. 이것을 진성스님은 꼭 차에 싣고 가고 싶어 대중스님께 부탁을 하였다. 대중스님은 스님의 말씀을 듣고 어쩔수 없이 차에 싣고 오던 중 이 돌을 다듬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황등 석재공장에 맞겨 달라고 속가에 부탁을 하고 자비선원으로 돌아왔다. 속가에서 돌을 잘 맏겼는지 석재공장에서 연락이 왔다. "스님 이 돌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대중스님께 묻기에 "네모든 세모든 타원형이든 사장님이 알아서 다듬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답변을 해주었다.

한달이 지나 택배가 와서 종무원에게 풀어보라 하니 조그마한 10kg정도 되는 둥근 돌이었다. 석재공장에서 보낸 돌이었다. 대중스님은 이 돌을 종무원에게 시켜 신중단에 올리라고 부탁을 했다. 다음날 대중스님이 새벽에 다게물을 올리려고 하자 신중단 한가운데 놓여져 있어 여러모로 불편할 것 같아 한쪽 옆으로 옮기려 하자 이게 왠일인가? 돌이 무거워서 들을 수가 없었다. 분명히 어제는 10kg정도 밖에 되지 않은 작은 돌이었는데 지금은 도대체 무거워서 들수가 없어 진성주지스님을 급히 찾았다. 자초지정을 말씀드리니, "그래?" 하시면서 진성스님 역시 들으려고 하자 꼼작을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고 놀라시며 진성스님은 잠시 좌정을 하였다. 그리고 새벽예불을 마치고 나서 하는 말씀이 "아마 이 돌이 범상치 않은 돌 인가 보다"라고 하며 여러모로 실험을 해보셨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신기한 힘을 발휘하는지 알수가 없다고 하면서 3일이 지났다. 진성스님은 이 희유한 일을 파악하고자 경전과 각종 문헌을 찾아보시더니 이 돌은 아마 묘색신여래부처님이 화현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후 진성스님은 묘색신여래부처님과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응답을 주고 받았다. 그날 이후 스님께서 석재공장에 전화를 하시어 연꽃으로 된 받침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똑같은 돌을 4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하셨다. 이말은 들은 대중스님은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 "큰스님 왜 돌을 4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까? 라고 여쭈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이 돌은 묘색신여래부처님 한분만 오신게 아니고 다섯부처님이 오셨단다. 첫째는 다보여래부처님, 두번째는 묘색신여래부처님, 세번째는 광박신여래부처님, 네 번째는 이포외여래부처님, 다섯 번째는 감로왕여래부처님이라 하시며 이것을 오여래부처님이라고 한단다"라고 말씀하셨다.



한.캄 NGO회장으로 캄보디아 난민의료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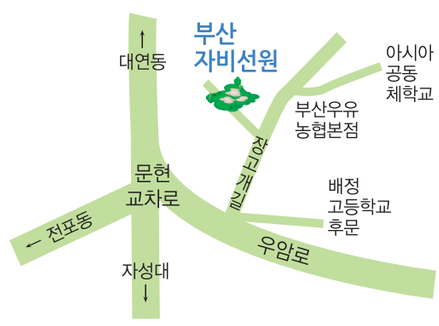
누구나 오셔서 소원을 얘기하시고 그 자리에서 확인하십시오. 칠여래 부처님이 들려지지 않으면 소원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한달 후 석재공장에서 다 완성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대중스님은 진성스님을 모시고 황등 석재 공장으로 갔다. 이때 진성스님은 갑작스레 가사장삼을 수하시고 신비의 돌을 맞이 하셨다. 스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석공이 건네준 돌에 넙죽 큰 절을 올리시면서 "아~이고 부처님 이 제자 진성이 부처님을 모시러 왔습니다"라고 큰절을 올리시는 것이었다. 스님께서는 "부처님이시여 이 진성사문이 부산 자비선원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합장을 하니 갑작스레 또 돌이 들리지 않고 꼼짝하지 않은 것이였다. 이 모습을 본 석공이 "이럴수가 있습니까?"라고 반문 하였다. 스님께서 석공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전까지는 당신이 돌에 조각과 작업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이 돌은 부처님께서 화현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난 후 석공에게 "당신도 이 신비의 돌을 한번 들어 보아라"라고 말씀하셨다. 석공은 설마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두손으로 신비의 돌을 들어보니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석공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조금전까지도 공 굴리듯이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스님께 여쭈니 "그 돌은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과거 부처님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 부처님이 화현을 하셨다."

이 부처님은 제일먼저 다보여래부처님이라고 명하노니 다보여래 부처님이라고 소중히 모시라고 대중스님께 말씀하시는 것이였다. 두 번째 부처님은 이미 오셔서 자비선원에 계셨고, 황등석재공장에서 오여래부처님을 차에 싣고 와서 법당에 모셔놓고 예불과 정근 공양을 매일 올리었다. 오여래부처님은 우리가 천도재할 때 관음시식에서 칭양성호에 나오시는 오여래부처님으로써 영가들에게 탐 진 치 삼독심을 없애고 신구의 삼업을 맑혀 지은죄업을 사하고 공덕을 쌓아 왕생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부처님들이시다.

더욱 진성스님이 열심히 정진하던 중, 두분의 부처님과도 인연을 맺게 되어 마침내 칠여래부처님이 화현한 도량으로 발돋움했다.이후 진성스님은 묘색신여래부처님 한분만 예불하는 것이 아니고 여섯부처님께 예불과 정근을 계속해오셨다.

진성스님은 "이제 답답하고 억울하고 암담했던 일들이 봄눈 녹듯 해결될 것입니다. 일곱 부처님을 친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불자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칠여래 부처님의 본심이 그러합니다. 그러하오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가피가 벌어집니다. 큰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지극히 기도하고 칠여래 부처님께 여쭤보십시오" 정성스런 기도를 통해서 비로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이렇듯 칠여래부처님이 부산 자비선원에 나투신 이유는 스님의 끊임없는 정진의 결과이다. 칠여래부처님이 화현한 도량으로 발돋움한 자비선원! 억울하고 암담한 일을 겪는 이들에게 소중한 귀의처가 되고 있다.



NAVER 부산자비선원 검색

문 의 : 051)633-8445~7
주 소 : 부산 광역시 남구 장고개로 93번길 41 (문현동) 문현동 배정고등학교 후문, 부산우유농협 본점 앞
지하철 : 2호선 문현역 1번 출구 하차
버 스 : 68, 23, 26, 134, 남구3 문현교차로에서 하차

소원따라 이루어지는 칠여래부처님의 신묘한 영험 – 칠여래부처님은 근기에 따라 자기가 처한 현실에 맞는 부처님을 찾아 예경하고 소원을 빌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다보여래부처님 기도영험	보승여래부처님 기도영험	묘색신여래부처님 기도영험	광박신여래부처님 기도영험	이포외여래부처님 기도영험	아미타여래부처님 기도영험	감로왕여래부처님 기도영험
입시준비, 각종 시험, 고시응시생 및 재판계류 해결을 원하는 불자님	천도재 후, 재시 · 보시 · 법시를 하면 효과극대화, 행복과 재물이 축적되어 내생에 백만장자의 지름길	직장승진, 취업 또는 결혼인연,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분, 득남을 원하는 불자님	탐 · 진 · 치 삼독의 고통은 물론 고가 풀리어 특히 부동산, 전월세 등에 효험	암환자, 공황장애, 우울증환자, 어린아이자폐증환자, 빙의, 특히 원인모를 병에 시달리는 분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부처님이 48가지 소원을 들어주며 영가 극락왕생 발원 하시는 분	사업이 번창하고 큰 소원을 이룰 수 있어 건설업, 제조업, 사회사업가, 사회복지법인 사업을 하시는 분

가피 체험사례

빚더미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다

지난해 선박 사업을 하던 저에게 20억이라는 적자가 생겨 엄청난 시련이 닥쳐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 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도반이 진성큰스님을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하기에 벼랑끝에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자비선원으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진성 큰스님께서 대뜸 감로왕여래불께 기도해보라고 하시길래, 20억을 벌어 적자를 면하게 해달라고 성심을 다해 기도를 드리며 감로왕여래불께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올렸습니다. 100일 기도가 끝날 때 쯤 일본에서 선박입찰건이 들어오더니, 하루에 연거푸 3건이나 낙찰되어 하루에 비행기를 3번이나 타야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는 부처님께 삼배하고 일본에 들어가라는 큰스님의 말씀에 잠시 절에 들러 부처님께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되면 3%를 부처님전에 올리겠다구요. 그랬더니 다음 날 낙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로왕여래불께 감사한 마음으로 3%를 올리고 왔습니다.

저는 2014년도 큰 꿈이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간절곶에 불사를 할 것입니다. 요즈음 하루하루가 신바람이 납니다. 한국에 들리면 이제부터는 큰스님 꼭 찾아뵙고 입찰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스님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김기주 (대일에스앤피 대표)

빙의치료 후 큰스님곁에 머물다

저에게는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어 유명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도 병은 낫지를 않고, 어떤 특효약도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침이 흐르는가하면, 밤에는 귀신에 시달리는 일 때문에 잠을 자기가 무서워 정신신경과에서 감금당하고 약을 먹어야 하는 아픈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8월달 BTN 불교방송 광고를 보고, 부산 자비선원 진성큰스님을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포외여래불부처님께 1주일, 21일, 49일 정성을 다해 기도를 그랬더니 병이 말끔하게 나았습니다!! 침을 흘리지 않고, 귀신도 안보이고, 환청도 안 들리니 잠을 너무나 편안히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들과 같은 평범한 일상이 제겐 큰 축복입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너무 감사할 따름이며 병이 완쾌된 보답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자비선원에서 진성큰스님의 상좌가 되어 불법에 매진하려 합니다.

2014년 8월 최영길 (부산 00동)